

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200-01

ISBN 979-11-5598-080-4(93390)

The Korean War

6·25전쟁 주요 무기 Ⅱ

공산군편

윤시원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The Korean War

6·25전쟁 주요 무기 Ⅱ

공산군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간사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간 진행된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한반도는 국제 냉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지적 열전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은 지역적으로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동·서 양대 진영의 중심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비롯해 초강대국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세계대전에 버금갔습니다.

한반도라는 단일지역에서 세계 초강대국들이 참여한 만큼 전쟁의 강도도 매우 컸습니다. 특히 3년간의 전쟁에는 제1·2차 세계대전에서 검증된 각종 무기는 물론 전후에 개발된 신형 무기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서 ‘최첨단 신무기의 경연장’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무기들이 동원되어 그 종류와 숫자를 제대로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무기는 병력 및 작전과 함께 전쟁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쟁사 연구에서는 무기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6·25전쟁사 연구의 한 분야로 유엔군과 공산군이 전쟁에서 사용한 주요 무기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6·25전쟁 주요 무기』 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6·25전쟁 주요 무기』(전2권)는 우리 연구소가 2016년부터 진행한 사전편찬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6·25전쟁사 책자 발간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60여 년간 축적된 전쟁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정리하여 사전식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 주요 작전과 전투 316개를 선별·정리하여 『6·25전쟁 주요 전투』 I·II로 발간한 것이 그 첫 번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하는 『6·25전쟁 주요 무기』 I·II가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6·25전쟁 주요 무기』(전2권)에 수록된 무기 항목은 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사』(전11권)를 바탕으로 전쟁에서 자주 사용된 무기를 경중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책의 구성은 제1권이 유엔군 편이며, 제2권이 공산군 편입니다.

제1권 유엔군 편에서는 소화기(18종)·대전차무기(5종)·화포(10종)·전차(7종)·장갑차(5종) 등 총 45종의 지상무기, 항공모함(7종)·전함(1종)·순양함(7종)·구축함(7종)·상륙함(4종)·소해함(2종)·기타함정(8종) 등 총 36종의 해상무기, 전투기(7종)·폭격기(2종)·수송기(5종)·연락기(4종)·훈련기(1종)·헬리콥터(2종)·함재기(9종)·수상기(3종) 등 총 33종의 항공무기를 수록하였습니다.

제2권 공산군 편에서는 소화기(16종)·대전차무기(6종)·화포(30종)·전차(2종)·장갑차(1종)·전투차량(6종) 등 총 61종의 지상무기, 소해함정(2종)·구잠정(1종)·어뢰정(1종) 등 총 4종의 해상무기, 전투기(4종)·폭격기(2종)·훈련기(2종) 등 총 8종의 항공무기를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우리 연구소 연구원이 제1권 집필을 담당하였으며, 제2권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완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서술방식은 개요, 연혁 및 제원, 운용, 참고문헌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개별 무기의 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6·25전쟁 당시에 실제 사용되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국군 장병들을 비롯해 일반 독자들에게 6·25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에 대한 좋은 정보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향후 6·25전쟁사와 무기 발달사 연구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연구 성과이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집필에 열과 성을 다해준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박동찬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윤시원 박사, 그리고 인쇄를 맡아준 국군 인쇄창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원고를 감수해 주신 연구소 연구원들과, 특히 외부감수위원으로 집필 항목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신 (전)해군역사기록관리단 군사편찬과장 임성채 박사,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이원석 역사편찬과장, 전쟁기념관 고한빈 학예연구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3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대리 심 현 용

일러두기

1. 『6·25전쟁 주요 무기』 I·II는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통해 6·25전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전쟁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편찬 목적을 두었다.
2. 이 책은 전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권이 유엔군 편, 제2권이 공산군 편이다. 각 권은 지상무기, 해상무기, 항공무기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무기의 명칭은 가능한 한 생산국가의 제식 명칭을 따르고자 하였다.
4.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6·25전쟁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수록하려 하였다.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받은 것이며, 사진마다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
5. 본문의 각 표에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표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표의 내·외에 비고란을 두어 보충 설명하였다.
6. 이 책에서 사용한 국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표기법을 따랐으며, 인용된 자료의 원문을 번역 수록할 경우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현대문으로 번역하고, 원문 제작 당시 관용어나 제도어는 가급적 원문을 준용하였다.
7.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을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고유명사나 혼동하기 쉬운 용어 등은 원어를 ()안에 삽입하였다.
8. 현재의 중국(군)과 러시아(군)는 편의상 주로 중공(군)과 소련(군)으로 표기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중국, 러시아를 혼용했다.
9. 본서에서는 6·25전쟁 시기 사용된 대표적인 무기만을 다루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함을 밝혀둔다.



The Korean War

목 차

- 발 간 사
- 일러두기

I. 지상 무기

11

01. 소화기

13

- 권총 16
- 모신-나강 M1891/1930 소총 19
- 99식 소총 23
- 38식 보병총 26
- 모신-나강 M1938/1944 기병총 28
- 기타 소총 31
- PPSH-41(슈파킨) 기관단총 34
- PPS-43(수다예프) 기관단총 39
- DP/DPM(데그차로프) 경기관총 41
- ZB vz.26 경기관총 44

02. 공용화기

46

- 92식 중기관총 46
- PM M1910(막심) 중기관총 49
- DShK(데그차로프-슈파킨) 중기관총 52
- PTRD(데그차로프)-41/PTRS(시모노프)-41 대전차총 55
- 97식 곡사보병포 59
- 82mm PM-41 박격포 62
- 120mm PM-43 중박격포 65

03. 대전차무기	69
• 37mm 대전차포 M1930(1-K)	71
• 94식 37mm포	74
• 37mm 직사포 M3	77
• 45mm 대전차포 M1937/M1942	81
• 57mm 대전차포 M1943(ZiS-2)	86
• 6파운드 대전차포	89

04. 화포	90
• 76mm 연대포 M1927	91
• 92식 보병포	95
• 공산군의 야전포병	99
• 41식 산포	105
• 94식 산포	108
• 75mm 경곡사포 M1A1	111
• 38식 야포	114
• 90식 야포	119
• 95식 야포	123
• 76.2mm 사단포 M1942(ZiS-3)	126
• 14식 77mm 야포	133
• M2A1 105mm 곡사포	135
• 14식 10cm 유탄포	139
• 91식 10cm 유탄포	141
• 92식 10cm 캐논포	145

• 122mm 곡사포 M1938(M-30)	149
• 122mm 군단포 M1931/1937(A-19)	155
• 4식 15cm 유탄포	158
• 15cm 중곡사포18	162
• 152mm 곡사포 M1937(ML-20)	164
• M1 155mm 곡사포	167
• BM13 132mm 방사포	169
• SU-76M 자주포	172
• ISU-122 자주포	180
• 37mm 대공포 M1939(61-K)	183
• 3.7cm Flak18	188
• 88식 7cm 야전고사포	190
• 76mm 대공포 M1931(3-K)	192
• 85mm 대공포 M1939(52-K)	194

05. 기갑 차량 197

• T-34전차	201
• IS-2 중전차	210
• BA-64B 경장갑차	215

06. 차량 221

• ZIS-151 트럭	228
• GAZ-51/GAZ-63 트럭	231
• ZIS-5 트럭	234
• GAZ-67B 승용차	237
• 모터사이클(M-72)	240
• S-65 트랙터	243

Ⅱ. 해상 무기 247

01. 소해함정 249

- 푸가스급 소해함 249
- YMS-1급 소해정 252

02. 구잠정 254

- SC497급 구잠정 254
- OD-200 구잠정 256

03. 어뢰정 257

- G-5급 어뢰정 257

Ⅲ. 항공무기 261

01. 전투기 263

- 미그15 전투기 263
- 야크9 전투기 270
- 라보츠킨9 전투기/라보츠킨11 전투기 276

02. 폭격기 279

- 일류신10 지상공격기 279
- 투폴레프2 경폭격기 283

03. 훈련기 286

- 야크18 훈련기 286
- Po-2 훈련기/야간폭격기 288



The
Korean
War

I 지상 무기



01. 소화기
02. 공용화기
03. 대전차무기
04. 화포
05. 기갑 차량
06. 차량



공산군의 소총기

소총과 권총을 비롯한 소총기는 군인의 기본 무장이다.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의 소총분대는 10명으로 편성됐다. 북한군 소총분대는 PPSH-41기관단총을 장비한 분대장, DP경기관총/DPM경기관총을 장비한 부분대장, PPSH-41기관단총을 장비한 기관총 부사수, 모신 소총을 장비한 소총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PPSH-41기관단총은 수요에 비해 보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관총 부사수도 모신 소총을 장비하는 사례가 많았다. 북한군 제7사단 51연대처럼 38경비여단을 개편한 보병부대는 모신 소총 대신 일본제 38식 소총과 99식 소총을 소총분대의 기본 무장으로 사용했다. 즉 북한군의 1선급 전투부대는 소련제 모신 소총을 사용하고 2선급 부대는 일본제 소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과 달리 중공군은 다양한 소총기를 사용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은 일본제 38식 소총, 99식 소총, 소련제 모신 소총, 미국제 M1903소총 뿐만 아니라 독일제 Gew98 계열에 기반한 중국제 소총 등 다양한 소총을 사용했다. 중공군은 점진적으로 소련제 무기의 비중을 높여가며 장비를 통일하려 시도했다.

〈표〉 6·25전쟁시기 공산군의 소총

장비	개발국	비고
모신 M1891/1930소총	러시아/소련	
38식 소총	일본	산시성 타이위안 조병창에서 생산
99식 소총	일본	
중정식 소총	중국	중화민국에서 개발
M1903 스프링필드 소총	미국	
vz.24 소총	체코슬로바키아	
M1 개런드	미국	
모신 M1938/1944기병총	소련	
M1 카빈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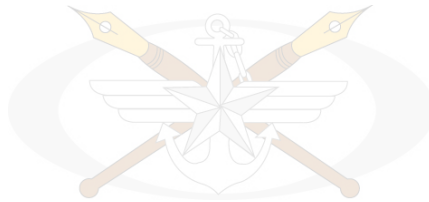
기관단총은 6·25전쟁 시기 공산군 보병을 상징하는 무기가 되었다. 공산군의 기관단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PPSH-41 기관단총이다. 미군은 기관단총 때문에 소총소대간의 교전에서는 공산군의 소총소대가 미군 보다 화력 투사량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공산군의 가장 큰 특징은 보병연대와 전차연대 예하에 PPSH-41 또는 PPS-43 기관단총으로만 무장한 자동총중대를 두었다는 점이다. 공산군의 자동총중대는 위력정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PPSH-41 기관단총의 화력 때문에 유엔군 정찰대와의 조우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중공군은 소련제 기관단총 외에 산시성 타이위안 조병창에서 생산한 M1928 기관단총도 사용했다.

〈표〉 6 · 25전쟁시기 공산군의 기관단총

장비	개발국	비고
PPSh-41	소련	
PPS-43	소련	
M1928 톨슨	미국	산시성 타이위안 조병창에서 생산

참고문헌

HQ EUSAK, *Monograph: Enemy Materiel*(1953. 8. 16), RG550 Entry E2(A1) Box27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개요

6·25전쟁 중 공산군은 소련제 나강 M1895, 토카레프 M1933, 일본제 14년식 권총, 94식 권총 등 다양한 권총을 사용했다.



- 나강 M1895권총
- 출처 :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 토카레프 M1933권총
- 출처 :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연혁 및 제원

나강 M1895 권총은 1895년 러시아 제국군의 제식 권총으로 채용이 되었다. 초기에는 권총을 설계한 벨기에에서 생산을 했으나 1898년부터 러시아에서도 생산이 시작됐다.

토카레프 M1933(TT-33) 권총은 1930년 소련군이 나강 M1895 권총의 후속으로 도입한 M1930의 개량형이다. M1933은 M1930의 일부 구조를 간략화 하여 대량생산과 정비에 용이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나강 M1895/토카레프 M1933 제원

구분	나강 M1895	토카레프 M1933
구경	7.62mm	7.62mm
유효사거리	46m	50m
최대사거리	200m	200m
중량	0.794kg	0.854kg
장탄수	7발(실린더)	8발(탄창)

운 용

나강 M1895 권총과 토카레프 M1933 권총은 대부분 장교에게 지급되었다. 기갑차량 승무원과 조종사 들도 방어용 무장으로 권총을 지급받았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모신-나강 M1891/1930 소총

개요

모신-나강 M1891/1930 소총(이하 모신 소총)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 보병의 제식 소총이었다.



- 북한 보안대원 복장을 착용하고 모신 소총을 든 한국인 모델. 1948년 4월 미군이 적성장비 교육용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모신 소총은 1891년 러시아 제국군이 제식으로 채용한 소총이다. 러시아군의 모신(Sergei Mosin) 대위가 설계했다. 소련군에서도 제식 소총으로 사용되었다. 소련군은 1930년 모신 소총의 총신 길이를 단축하고 탄창 구조 등을 변경하는 개량을 거쳐 M1891/1930이라는 제식명을 붙였다. 1930년의 개량 당시 벨기에의 총기 설계자 나강(Leon Nagant)이 1891년 러시아군의 제식소총 공모에 제출했던 시제품의 요소가 반영되었다. 개량형 모신 소총은 제2차세계대전 중 소련군의 제식 총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모신-나강 M1891/1930 소총 제원

구분	모신-나강 M1891/1930	
구경	7.62mm	
유효사거리	일반	500m
	조준경 장착	800m
최대사거리	3,000m	
중량	4kg	
장탄수	5발	

운 용

북한군은 보병, 포병 등의 전투 병과에 모신 M1891/1930소총을 지급하고 통신, 위생(의무) 등의 비전투 지원병과에는 모신 M1938, 또는 M1944 기병총을 보급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대마다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군 제5보병사단은 보병연대의 대전차포 운용요원들에게 모신

소총을 지급했으나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대전차포 운용 요원들에게 모신 M1938 기병총을 지급했다.

〈표〉 북한군 완편보병연대의 모신나강소총 보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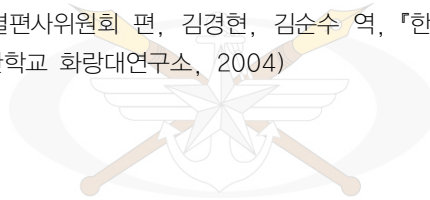
연대본부		94	
연대직할대	군악대	15	
	정찰소대	8	
	경비소대	24	
	고사기관총소대	0	
	공병소대	0	
	운수중대	3	
	통신중대	50	
	45mm 대전차포 중대	0	
	76mm 연대포 중대	22	
	120mm 박격포 중대	3	
	자동총 중대	0	
	보병대대(3)	대대본부	3
통신소대		14	
반전차총소대		0	
위생소		0	
공급소대		3	
45mm 대전차포 소대		0	
보병중대(3)		중대부	1
		위생분대	0
		소총소대(3)	28
		중기관총소대	8
중기관총중대		54	
82mm 박격포중대	47		

출처 : 「보병련대조직편제표」, RG242 Entry299 Box844

방어전투시 북한군의 소총분대의 소총수들은 목표가 400m 이내로 들어오면 사격을 시작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다만 분대에 우등사수(분대지정사수)가 있을 경우 우등사수는 600m부터 사격을 하도록 했다. 북한군 포로들을 심문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1950년 8월 경 모신 소총을 가진 소총수들은 1인당 평균 100발의 탄약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99식 소총

九九式短小銃

개요

99식 소총은 북한군이 2선급 부대와 내무서원의 무장으로 사용한 일본제 소총이다.

연혁 및 제원



- 99식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 내무서원
- 출처 : RG242, National Archives

99식 소총은 일본육군이 38식 소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소총이다. 7.7mm 구경의 소총탄을 사용해서 6.5mm 탄을 쓰는 38식 소총에 비해 위력이 증가했다. 일본 육군은 1919년부터 38식 소총을 대체할 7.7mm 소총개발에 착수했다. 1938년 육군기술본부의 주최 하에 7.7mm 소총 개발을 위한 협의회가 열리면서 차기소총 개발이 탄력을 받았다. 1939년 5월에 완성된 3차 시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소총은 99식이라는 명칭을 받고 1941년부터 정식으로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일본의 공업 생산력의 한계 때문에 38식 소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주로 태평양 전선에 투입되는 사단들에 99식 소총이 지급됐다.

99식 소총 제원

구분	99식 소총
구경	7.7mm
최대사거리	3,400m
중량	4.1kg
장탄수	5발

출처 : 佐山二郎, 『小銃・拳銃・機関銃入門—日本の小火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08) 439쪽.

운 용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군을 무장해제 하고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일본제 무기를 소량 인도했다. 북한에서 조직한 38경비여단은 소련군으로부터 인도받은 일본제 장비로 무장했으며 소총수들의 기본 무장은 99식 소총이었다. 소련의 군사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소련제 소총이 도입되었음에도 2선급 부대나 내무서원들이 99식 소총을 계속 사용했다.

6·25전쟁 발발시 북한 38경비여단의 일부 병력은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38경비여단을 기반으로 창설한 북한군 제7사단 51연대는 모신 소총을 지급받지 못해 연대 전체가 99식 소총과 38식 소총으로 무장했다. 또한 북한은 후방 점령을 위해 편성한 치안연대 등의 2선급 부대에도 99식 소총을 보급했다. 북한군 제110치안연대와 제1전투지구경비사령부 예하 부대들이 99식 소총을 장비한 것이 확인된다. 북한군의 99식 소총 사수들은 보통 80~100발 가량의 실탄을 휴대하고 작전을 수행했다.

참고문헌

HQ EUSAK, Monograph: Enemy Materiel(1953. 8. 16), RG550 Entry E2(A1) Box27
 佐山二郎, 『小銃・拳銃・機関銃入門—日本の小火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08)





38식 보병총

개요

38식 보병총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사용한 일본제 소총이다.

연혁 및 제원

38식 보병총은 일본군이 러일전쟁에서 사용한 30식 보병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소총이다. 30식 보병총은 기본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에 개발진은 이를 바탕으로 혹독한 기후에서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신형 소총은 1906년 정식으로 채용됐다. 대량 생산은 1908년부터 시작됐으며 제1차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일본군 현역사단들은 모두 이 소총으로 무장을 교체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칭타오 전투와 시베리아 출병에서 호평을 받았다.

38식 보병총 제원

구분	38식 보병총
구경	6.5mm
최대사거리	2,400m
중량	4.1kg
장탄수	5발

출처 : 佐山二郎, 『小銃・拳銃・機関銃入門—日本の小火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08) 439쪽.

북한은 38식 소총을 99식 소총과 마찬가지로 후방의 2선급 부대에 보급했다. 그러나 38경비여단을 기반으로 창설된 제7사단 51연대의 경우 처럼 병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모신 소총이 부족해 38식 소총과 99식 소총을 대신 지급받은 1선 부대도 존재했다.

중국은 일본군에게서 노획한 것 외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38식 소총을 사용한 국가이다. 산시성 군벌 옌시산(閻錫山)은 일본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다가 38식 소총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의 산시 조병창이 38식 소총을 생산했다. 또한 일본이 패전한 뒤 압수된 대량의 38식 소총도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에서 사용되었다. 북한군은 38식 소총을 2선급 부대에서 사용한 반면 중공군은 1선급 보병사단들이 38식 소총을 주력으로 사용했다. 중공군 제38군 114사단, 40군 120사단, 42군 126사단, 50군 150사단, 66군 196사단, 197사단이 38식 보병총을 기본 화기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HQ EUSAK, Monograph: Enemy Materiel(1953. 8. 16), RG550 Entry E2(A1) Box27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佐山二郎, 『小銃・拳銃・機関銃入門—日本の小火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08)



모신-나강 M1938/1944 기병총

개요

모신-나강 M1938 기병총과 M1944 기병총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지원병과 사병과 부사관의 기본무장으로 사용한 소총이다.



- 미군이 노획한 모신 M1944 기병총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모신-나강 M1938기병총은 M1891/1930의 총신을 단축한 형식이다. 보병부대의 공용화기 운용병과 비전투병과에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M1938은 1939년부터 생산되었다. M1938은 총신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제외하면 기계적으로 M1891/ 1930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1944년 말 부터는 M1938에 접이식 총검을 장착한 M1944가 생산되었다. 중국은 모신-나강 M1944 기병총을 53식이라는 제식명으로 생산했다.

모신-나강 M1938/1944 기병총 제원

구분	모신-나강 M1938/M1944 기병총	
구경	7.62mm	
유효사거리	500	
	3,000m	
최대사거리	M1938	3.55kg
중량	M1944	3.9kg
장탄수	5발	

운 용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M1938과 M1944를 모두 공급 받았으나 M1944의 양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소련군과 마찬가지로 모신 기병총을 공용화기 운용병과 지원병과에 지급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 보병연대는 편제상 다음과 같이 모신 기병총을 지급받았다.

〈표〉 완편보병연대의 모신 기병총 보유량

연대본부		1	
연대직할대	군악대	0	
	정찰소대	0	
	경비소대	0	
	고사기관총소대	30	
	공병소대	23	
	운수중대	27	
	통신중대	18	
	45mm 대전차포 중대	17	
	76mm 연대포 중대	15	
	120mm 박격포 중대	48	
	자동총 중대	0	
보병대대(3)	대대부	0	
	통신소대	1	
	반전차총소대	13	
	위생소	7	
	공급소대	9	
	45mm 대전차포 소대	4	
	보병중대(3)	중대부	2
		위생분대	5
		소총소대(3)	0
		중기관총소대	0
중기관총중대	3		
82mm 박격포중대	5		

출처 : 보병연대조직편제표, RG242 Entry299 Box844

참고문헌

Harriman, Bill., The Mosin-Nagant Rifle (Oxford: Ospery, 2016)



공산군의 기타 소총

개요

중공군은 6·25전쟁 참전 당시 다양한 소총을 사용했다. 이것은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 장기간의 내전을 겪으면서 여러 군벌이 난립한 가운데 군벌들이 제각기 소총을 도입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양(漢陽)88식 소총

한양88식 소총 제원 및 연혁

구분	한양88식 소총	주요 내용
구경	7.92mm	한양88식 소총은 허베이성 한양 조병창에서 1895년부터 생산한 소총이다. 독일의 M1888 소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슛적으로 중화민국 육군의 주력 소총이었다. 한양88식소총은 1895년부터 1944년까지 1,083,480정이 생산되었다.
유효사거리	500m	
최대사거리	2,000m	
중량	4.06kg	
장탄수	5발	

중정식(中正式) 소총

중정식 소총 제원 및 연혁

구분	중정식 소총	주요 내용
구경	7.92mm	중정식 소총은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의 호를 따라 명명된 총이다. 이 소총은 독일 마우저사가 개발한 M1924 소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중화민국 정부는 1932년에 마우저의 M1924 소총을 한양88식 소총을 대체할 신형 소총으로 채택했다. 중국에서는 1935년부터 저울생산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양산은 1937년부터 시작되었다. 중정식 소총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중화민국 정부의 제1, 11, 21, 41 조병창 등 총 4곳에서 약 40만정이 생산되었다.
유효사거리	500m	
최대사거리	2,000m	
중량	4.08kg	
장탄수	5발	

vz.24 소총 제원 및 연혁

구분	vz.24 소총	주요 내용
구경	7.92mm	vz.24 소총은 체코슬로바키아가 1924년에 제식 채용한 소총이다. 독일군이 제1차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M1898 소총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동북의 군벌 장쥘린은 1927년부터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vz.24 소총을 수입했다. 장쥘린은 약 20만정의 vz.24 소총을 도입했다. 국공내전이 끝난 뒤 중화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vz.24 소총의 상당수가 공산군에 노획되었다. 6·25전쟁 당시 일부 북한군 부대가 체코식 소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vz.24로 추정된다.
유효사거리	500m	
최대사거리	4,700m	
중량	4.2kg	
장탄수	5발	



PPSh-41(슈파긴) 기관단총

개요

PPSh-41 기관단총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사용한 기관단총이다.



- 노획한 PPSH-41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수도사단 장병. 1950년 8월.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PPSh-41 기관단총은 핀란드군의 수오미 KP/-31 기관단총의 영향을 받아 개발되었다. 수오미 KP/-31 기관단총이 사용한 대용량의 드럼형 탄창이 대표적이다. PPSH-41 기관단총의 시제품은 1940년 가을에 완성되었다. 1941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구조가 단순해 대량 생산에 용이했다. 1947년까지 약 6백만정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PPSh-41기관단총 제원

구분	PPSh-41
구경	7.62mm
중량	3.64kg
장탄수	71발(드럼형 탄창)
발사속도	900발/분

출처 : McNab, Chris., *Soviet Submachine Guns of World War II: PPD-40, PPSH-41, and PPS* (Oxford: Osprey, 2014)

운 용

6·25전쟁 발발 당시 완편 상태의 북한군 보병사단은 1,950정의 기관단총을 보유했다. 이 중 대부분이 PPSH-41 기관단총이었다. 기관단총은 분대장급의 부사관에게 지급되었다. 북한군의 소총분대는 편제상 2정의 기관단총을 보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전투 손실이 누적되고 단기간 동안 많은 부대를 편성하면서 편제대로 기관단총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대가 늘어났다. 제15사단 45연대의 경우 1950년 8~9월 경 일부 소총소대는 부소대장 1명만 PPSH-41을 지급받았고 분대장들은 소총으로 무장해야 했다. 춘천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북한군 제2사단 17연대도

예하 소총소대들이 기관단총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완편보병연대의 기관단총(PPSh-41, PPS-43) 보유량

연대본부		2	
연대직할대	군악대	0	
	정찰소대	21	
	경비소대	4	
	고사기관총소대	6	
	공병소대	5	
	운수중대	0	
	통신중대	0	
	45mm 대전차포 중대	36	
	76mm 연대포 중대	27	
	120mm 박격포 중대	0	
	자동총 중대	94	
보병대대(3)	대대본부	0	
	통신소대	0	
	반전차총소대	0	
	위생소	0	
	공급소대	0	
	45mm 대전차포 소대	12	
	보병중대(3)	중대부	0
		위생분대	0
		소총소대(3)	9
		중기관총소대	0
중기관총중대		0	
82mm 박격포중대		0	

출처 : 「보병련대조직편제표」, RG242 Entry299 Box844

1950년 9월 초 북한군 제5사단 10연대의 경우를 보면 소총중대에 15정의 PPSH-41 기관단총이 지급되어 있었다. 북한군 제5사단과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의 사례를 보면 낙동강 전투 당시 북한군의 기관단총 사수는 보통 탄창 2개 분량, 142발의 탄약을 휴대했다. 전선이 고착화 되고 북한군의 보급 사정이 개선되면서 기관단총 사수의 탄약 휴대량은 증가했다. 1951년 10월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소총중대에 소속된 PPSH-41 기관단총 사수들은 작전시 평균 4탄창 분량의 탄약을 휴대했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기관단총으로만 무장한 보병중대를 충격집단으로 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술은 제2차세계대전시 소련군의 경험에서 배운 것 이었다. 북한군은 105사단의 3개 전차연대와 각 보병사단 예하의 보병연대 직할로 자동총중대를 편성했다. 자동총중대는 지휘관인 장교를 제외한 전원이 PPSH-41 또는 PPS-43 기관단총으로 무장했다. 자동총중대는 전원이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어 정찰시 조우전이 벌어지거나 야간 전투에서 기습을 할 때 위력을 발휘했다. 북한군 제73보병연대 예하 대대들은 대대 직할로 자동총 소대가 편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소총대대 예하의 자동총 소대는 20정의 PPSH-41로 무장했다.

중공군은 기관단총의 위력을 높게 평가해서 1953년에는 중공군 보병사단이 편제상 3,145정의 PPSH-41 또는 PPS-43 기관단총을 보유했다. 유엔군과 국군은 수색대간의 교전 같은 돌발상황에서 공산군이 기관단총을 대량으로 보유해 우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군은 PPSH-41 기관단총 때문에 소총 소대간의 교전에서는 미군이 공산군에게 근소하게 밀린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6·25전쟁 이전에 PPSH-41 기관단총을 자체적으로 소량 생산했다. 북한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연간 3만정의 PPSH-41 기관단총을

생산할 계획을 수립하고 소련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실시하지 못했다. 중국도 PPSH-41 기관단총을 50식 기관단총이라는 명칭으로 채용하여 생산했다.

참고문헌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 안드레이 란코프 역음·전현수 옮김,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정서 (1945~1952)』,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PPS-43(수다예프) 기관단총

개요

PPS-43 기관단총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사용한 기관단총이다.

연혁 및 제원

소련군은 PPSH-41 기관단총의 생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PPSH-41 기관단총의 구조를 단순화한 기관단총의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수다예프(Alexey Sudayev)가 제시한 시제품이 PPS-42라는 명칭으로 채용되었다. PPS-42는 PPSH-41과 비교했을 때 구조가 단순화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중량이 감소해 병사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듬해인 1943년 PPS-42를 일부 개선한 PPS-43이 채용되어 양산에 들어갔다. PPS-43은 1946년까지 생산되었다.

PPS-43기관단총 제원

구분	PPS-43
구경	7.62mm
유효사거리	150m
최대사거리	200m
중량	3.04kg
장탄수	35발
발사속도	700발/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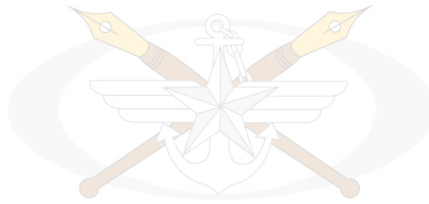
PPS-43 기관단총은 PPSH-41과 동일하게 분대장 보직에 있는 부사관이나 자동총중대 대원들에게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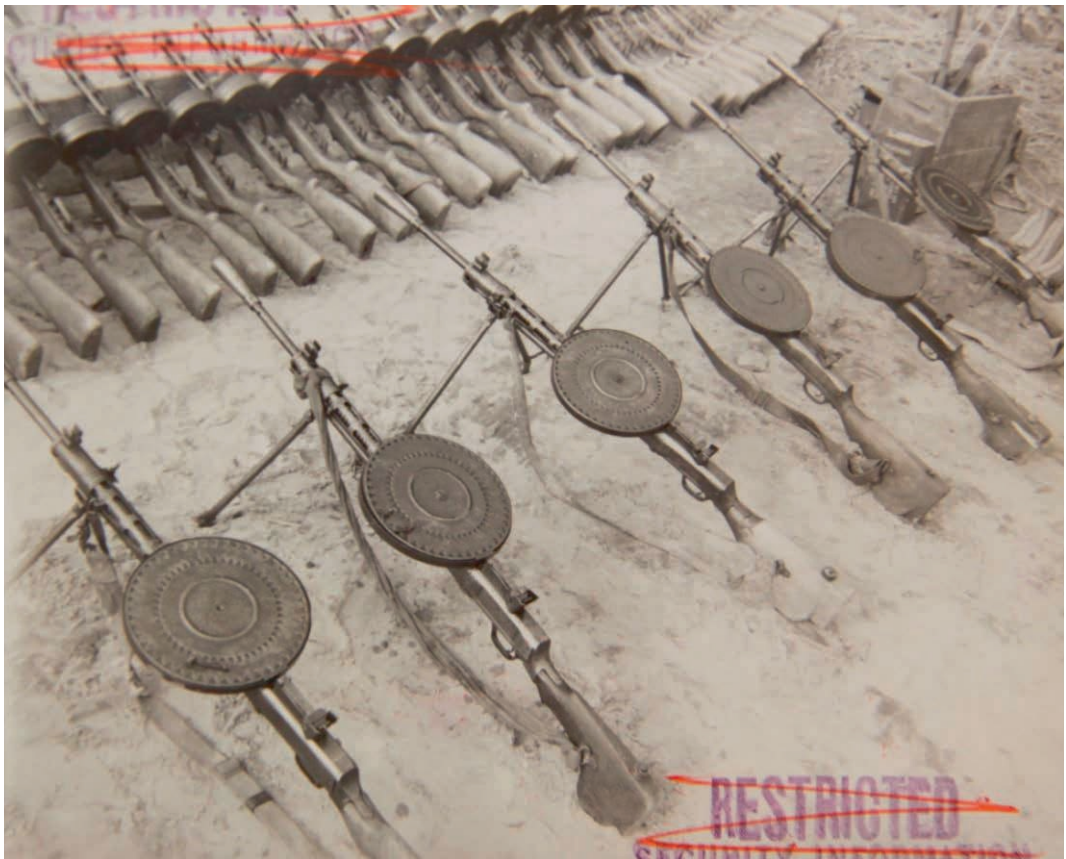




DP/DPM(데그차로프)경기관총

개요

DP경기관총은 6·25전쟁 중 북한군과 중공군이 분대급에서 운용한 공용화기이다.



- 1950년 10월 수도사단이 북진중에 노획한 북한군의 DP경기관총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DP경기관총은 1928년 소련군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기관총이다. 이 기관총은 데그차료프(Vasily Degtyaryov)의 주도하에 개발됐다. 최초의 시제품은 1926년에 완성되어 시험을 받았다. 1927년 DP-27이라는 명칭으로 저율생산을 시작했다. 시험운용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제품이 192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분대급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DP경기관총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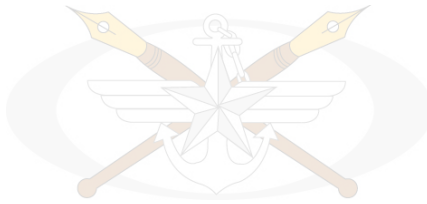
구분	DP경기관총
구경	7.62mm
유효사거리	800m
최대사거리	3,000m
중량	9.12kg
발사속도	550발/분

운 용

북한군은 DP경기관총을 분대급 지원화기로 사용하였다. 북한군 소총분대의 DP경기관총 사수는 부분대장 임무를 수행했다. 한편 상태의 북한군 보병사단은 338정의 DP경기관총을 보유했다. DP경기관총은 보병 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 등의 기동 장비에도 탑재되었다. 북한군이 운용한 모터사이클은 사이드카에 1정의 DP경기관총을 탑재했다. 보병분대의 DP경기관총 운용요원은 전투시 보통 1,000발의 탄약을 휴대했다.

참고문헌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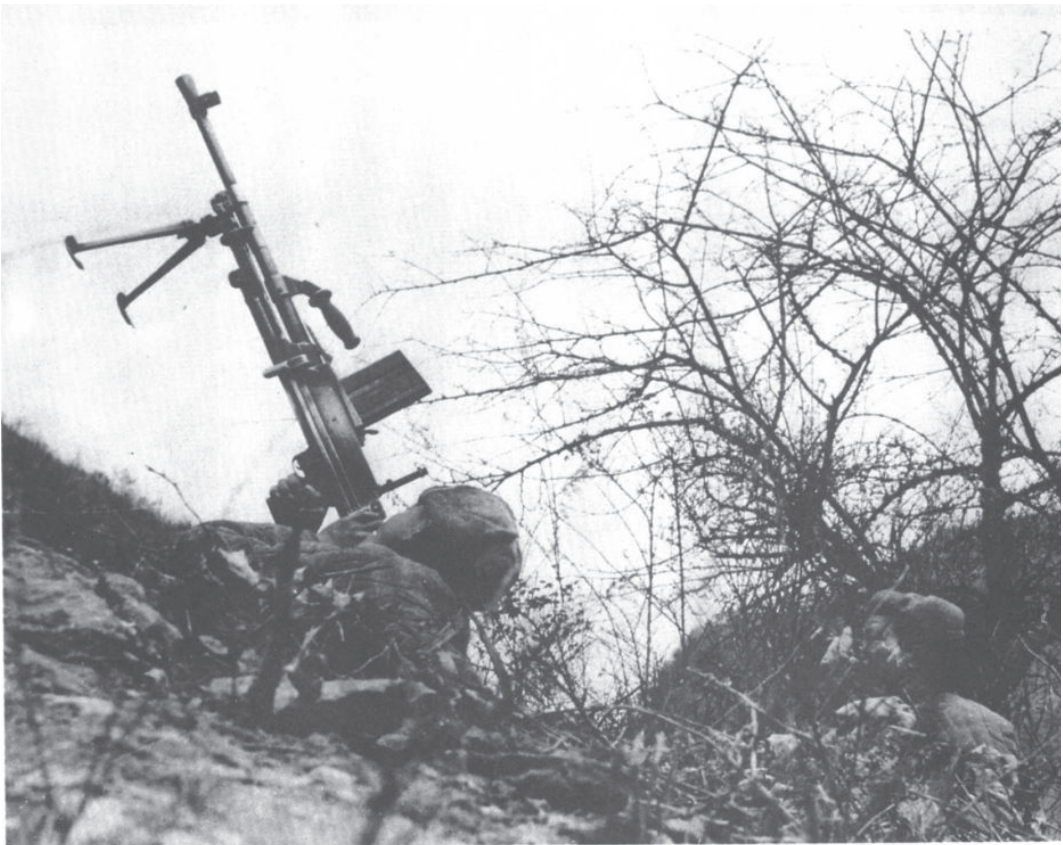




ZB vz.26 경기관총

개 요

ZB vz.26경기관총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사용한 분대지원화기이다.



- ZB vz.26 경기관총으로 대공사격을 하는 중공군 병사
- 출처 : <<抗美援朝战争后勤经验总结>>编委会, 『抗美援朝战争后勤经验总结 图片选集』, (北京: 长城出版社, 1989) 61쪽.

연혁 및 제원

ZB vz.26 경기관총은 1923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 1928년 체코슬로바키아 육군의 제식 경기관총이 되었다.

운 용

중화민국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ZB vz.26 경기관총 30,249정을 주문했다. 중화민국은 1935년부터 ZB vz.26 경기관총을 중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중공군은 이 경기관총을 노획해 사용했다. 중공군은 ZB vz.26 경기관총을 분대 지원화기로 사용했다.

참고문헌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92식 중기관총

九二式重機関銃

개요

92식 중기관총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사용한 일본제 중기관총이다.



- 1951년 국군 제6사단이 춘천 지구에서 노획한 92식 중기관총
- 출처: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92식 중기관총은 일본 육군이 1914년 채용한 3년식 기관총의 개량형이다. 일본 육군은 제1차세계대전의 전훈을 분석하여 6.5mm탄을 사용하는 3년식 기관총의 위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본 육군은 1931년 3월 3년식 기관총을 바탕으로 신형 기관총을 개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932년 제작된 시제품을 시험한 결과 위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1933년 92식 중기관총이라는 명칭으로 정식 채용했다. 1933년에 배치된 초도 물량 816정은 기존의 3년식 기관총을 개조한 것이다. 정식 생산은 1934년부터 시작됐다.

92식 중기관총

구분	92식 중기관총
구경	7.7mm
최대사거리	4,300m
중량	55.5kg
발사속도	450발/분

■ 출처 : 佐山二郎, 『小銃・拳銃・機関銃入門—日本の小火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08), 441쪽.

운 용

북한은 소련군으로부터 인도받은 92식 중기관총을 운용했다. 6·25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군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련제 무기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92식 중기관총이 일부 1선급 부대에 배치되었다. 북한군 제7사단 1연대는 편성 당시 소련제 장비가 부족해 PM-1910 중기관총 대신 92식 중기관총 12정을 지급 받았다. 원래 중공군 소속이었다가 입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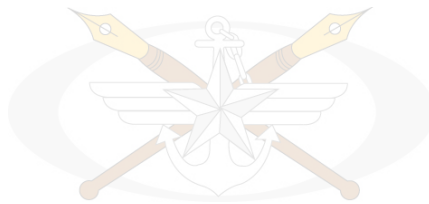
북한군으로 편입된 부대들도 다수의 92식 중기관총을 사용했다. 북한군 제5사단 10연대의 경우 중공군에서 북한군으로 편입될 당시 92식 중기관총 12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군도 92식 중기관총을 중대급의 지원화기로 사용했다.

참고문헌

ATIS Interrogation Reports, Issue #6: North Korean Forces(1950. 9. 23.)

ATIS Interrogation Reports, Issue #55: Korean Operations(1951. 4. 5.)

佐山二郎, 『小銃・拳銃・機関銃入門—日本の小火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08)





PM M1910(막심) 중기관총

개요

PM M1910 중기관총은 러시아 제국군이 채용한 중기관총으로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군의 중대급 공용화기로 운용되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도 중대급 공용화기로 이 중기관총을 운용하였다.



- 1950년 촬영된 북한군 PM M1910 중기관총팀
- 출처 : RG242,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러시아 제국군은 1910년 미국의 맥심(Hiram Maxim)이 개발한 수냉식기관총을 PM M1910이라는 명칭으로 채용했다. 러시아군은 이 기관총의 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퀴가 달린 총가를 채용했다. 소련군은 PM M1910을 계속 사용하면서 총가를 개량했다. 개선된 블라디미로프 총가를 사용한 개량형은 PM M1910/30이라는 명칭으로 생산되었다. 이 중기관총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중대급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PM M1910중기관총 제원

구분	PM M1910중기관총
구경	7.62mm
유효사거리	800m
최대사거리	3,000m
중량	62.66kg
발사속도	600발/분

운 용

6·25전쟁 발발직전 북한군 보병사단은 편제상 204정의 PM M1910/30 중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기관총은 보병중대에 2정이 배치되었다. 보병연대 예하의 중기관총 중대는 이 기관총을 12정 보유했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의 각 대대는 중기관총 중대에 이 기관총을 12정 보유했다. 모터사이클 연대의 중기관총 중대는 PM M1910/30 중기관총을 운반하기 위해 GAZ-67B 지프를 사용했다.

PM M1910/30중기관총은 냉각방식으로 수냉식을 채택해 장기간 지속 사격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1950년 8~9월 낙동강 전투 당시 북한군 보병연대 중기관총 중대와 보병중대의 중기관총 운용반은 2,000발의 탄약을 휴대했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DShK(데그차로프-슈파긴)중기관총

개요

DShK중기관총은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 중에 사용한 12.7mm 중기관총이다. 북한군과 중공군은 이 중기관총을 37mm 대공포를 보조하는 대공화기로 운용하였다.



- 1950년 7월경 미군이 노획한 DShK 중기관총.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소련군은 1929년 12.7mm 구경의 중기관총 개발을 시작했다. 데그차료프가 개발한 DK중기관총이 1933년부터 1935년에 소량 생산되어 운용되었다. DK중기관총은 드림형 탄창을 사용해 연사속도가 낮았다. 이 때문에 슈파긴이 DK중기관총을 일반적인 벨트 급탄식으로 개량한 것이 1938년 DShK중기관총으로 채용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 DShK중기관총은 다양한 임무에 사용되었다. IS-2 중전차와 ISU-152/122 자주포의 보조 무장으로도 사용되었다.

DShK중기관총 제원

구분	DShK중기관총
구경	12.7mm
유효사거리	2,000m
최대사거리	2,500m
중량	157kg(총가 포함)
발사속도	600발/분

운 용

6·25전쟁 발발직전 북한군의 보병사단은 편제상으로 18정의 DShK중기관총을 보유했다. 북한군은 이 중기관총을 대공화기로 운용했다. 북한군은 이후 유엔군 공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병사단 편제를 개편해 총 36정의 DShK중기관총을 보유하도록 했다. 중공군의 보병사단 또한 DShK중기관총을 대공화기로 운용했다. 1953년 중공군 보병사단은 편제상 32정의 DShK중기관총을 보유했다.

또한 이 중기관총은 대공포대대에서도 대공포를 보조할 대공화기로 운용되었다. 북한군의 고사포대대는 8문의 37mm M1939대공포와 18정의 DShK 중기관총을 보유했다. DShK 중기관총은 일반적으로 대공포 진지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되어 대공포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대공화기로서 DShK 중기관총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군사고문단은 1950~1951년 초에 북한군이 지상대공화기로 격추한 항공기 중 3%만이 중기관총에 격추된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문헌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PTRD(데그차로프)-41/PTRS(시모노프)-41 대전차총

개요

PTRD-41 대전차총과 PTRS 대전차총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 보병이 운용한 대전차화기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운용한 장갑차와 경전차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했다.



- 1950년 7월 초 노획한 PTRS-41 대전차총을 들고 있는 미군 장교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PTRD-41 대전차총은 폴란드의 M35대전차총과 독일의 38식대전차총(Panzerbuechse 38)의 영향을 받아 개발된 대전차화기이다. 1941년 7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100m의 거리에서 35~4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 독일군의 장갑차와 경전차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했다. 또한 전쟁 초기에 사용된 3호전차와 4호전차 같은 독일군의 중형전차도 측면과 후면은 이 대전차총의 탄환을 방어할 수 없었다. 볼트액션 방식의 단발식이었기 때문에 사수의 숙련도에 따라 사격 속도의 편차가 큰 점이 단점이었다.

PTRS-41 대전차총은 시모노프(Sergei Simonov)가 설계한 대전차 소총이다. 1941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이 총은 PTRD-41 대전차총과 달리 가스압으로 작동하는 반자동 방식을 택했다. 이 때문에 제조단가가 상승하고 기계적으로 고장이 잘 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장갑관통력 등의 성능이 PTRD-41과 동일했기 때문에 PTRD-41이 더 널리 사용되었다.

PTRD/PTRS대전차총 제원

구분	PTRD-41 대전차총	PTRS-41 대전차총
구경	14.5mm	14.5mm
유효사거리	300m	800m
최대사거리	1,000m	1,500m
중량	17.3kg	20.93kg
장탄수	1발	5발

출처 : Zaloga, Steven., *Anti Tank Rifles* (Oxford: Ospery, 2018)

대전차소총은 6·25전쟁 시기 공산군에서만 운용한 무기이다. 북한군을 조직한 소련군은 제2차세계대전시 보병의 휴대용 대전차화기로 대전차소총을 운용했다. 영국군은 제2차세계대전 후반기에 대전차소총을 퇴출시켰으나 소련군은 전쟁이 끝날 때 까지 사용했다. 북한군 보병사단을 소련군 편제를 바탕으로 조직하면서 북한군도 보병의 휴대용 대전차화기로 대전차소총을 사용했다.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PTRD-41과 PTRS-41을 도입해 운용했다. 보병사단 예하의 대전차총 대대, 보병연대 예하의 대전차총 소대, 보병대대 예하의 대전차총 분대에서 PTRD-41 또는 PTRS-41 대전차총을 운용했다. 북한군 제13보병사단은 사단 직할의 대전차총 대대 편제가 확인된다. 보병대대의 대전차총 분대는 6정의 대전차총을 장비했다.

공산군의 대전차총은 근거리에서 국군의 M-8 장갑차와 미군의 M-24 경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이 있었다. 그러나 미군이 M-26등 방어력이 강화된 전차를 투입하면서 대전차용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인용이나 일반 차량을 상대로 위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전쟁 후반기에도 사용되었다.

현재 서울시 육군박물관이 6·25전쟁 중 국군이 노획한 PTRS-41 대전차총 1정을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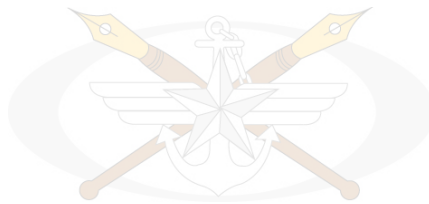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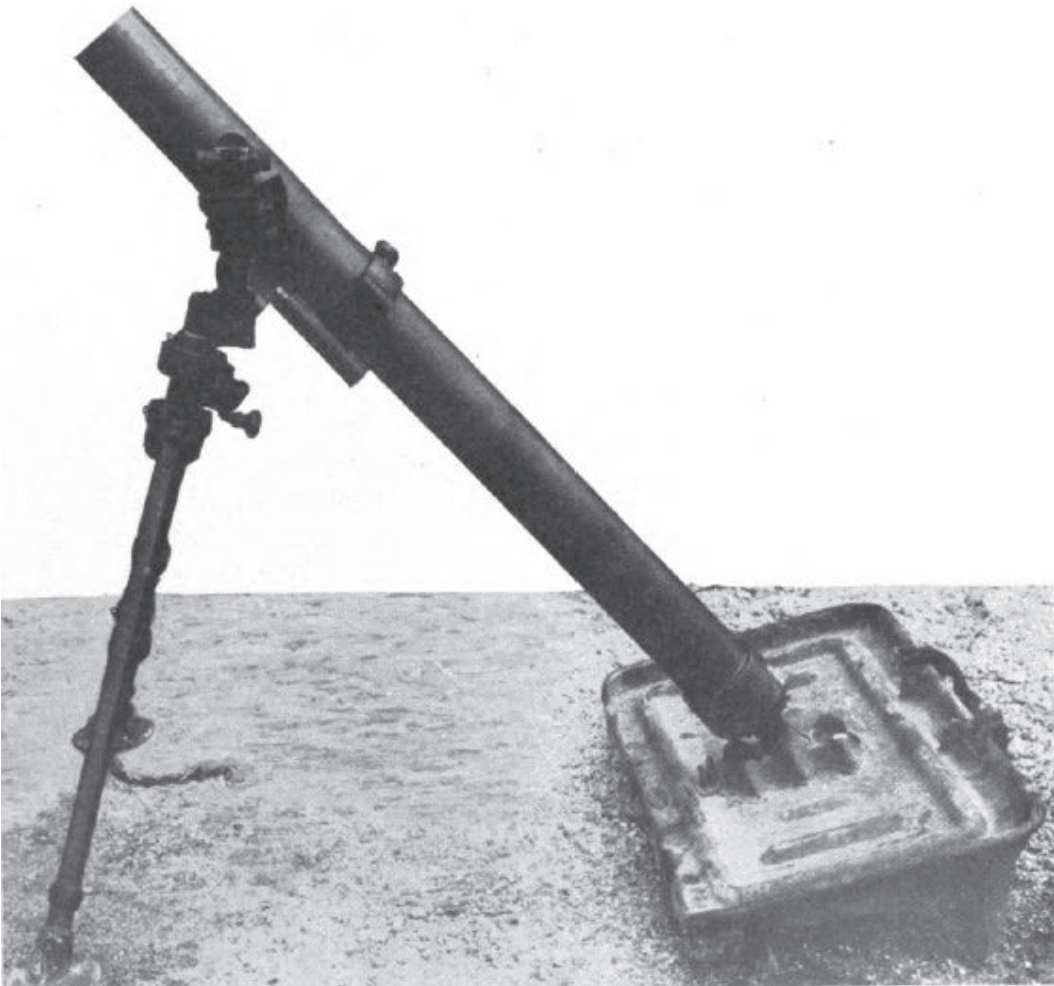


97식 곡사보병포

九七式曲射歩兵砲

개요

97식 곡사보병포는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사용한 일본제 박격포이다.



- 97식 곡사보병포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p.204.

연혁 및 제원

97식 곡사보병포는 일본 육군이 보병대대의 92식 보병포를 보조하기 위해 개발한 박격포이다. 프랑스 육군의 브랑(Brandt) mle 27 박격포를 참고하여 개발에 들어갔다. 1937년 11월 오사카 포병공장에서 시제품을 완성해 시험을 시작했다. 시험 결과 경보병사단(駙馬編成師團) 예하 보병대대의 편제장비로 적합하나 일반 보병사단의 보병포를 대체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39년 1월 정식으로 채택되어 양산에 들어갔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 생산량이 증가했다.

97식 곡사보병포 제원

구분	97식 곡사보병포
구경	81.3mm
최소사거리	75m
최대사거리	2,850m
중량	67kg
발사속도	15~20발/분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迫撃砲 噴進砲他: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1), 103~104쪽.

은 용

1950년 말~1951년 중반기에 투입된 중공군 보병사단은 일반적으로 27문의 81~82mm 박격포를 보유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보병사단 중 일부가 97식 곡사보병포를 장비한 것이 확인된다. 중공군 제 197사단 591연대와 같이 주로 일본제 장비로 무장한 부대가 연대 직할

지원화기로 97식 곡사보병포를 운용했다. 소련제 82mm 박격포가 도입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되었다. 97식 곡사보병포는 미국제 81mm 박격포탄을 사용할 수 있어 중공군이 아군의 박격포탄을 노획해 사용했다.

1950~1951년의 작전에서 중공군은 보병연대 직할의 81~82mm 박격포를 공격준비사격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공군의 보병연대는 보급능력이 부족해 충분한 박격포 포탄을 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공군의 포병전력이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병연대의 81~82mm 박격포도 공격준비사격에 투입됐다. 중공군은 유엔군에 비해 야포와 기동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수운반이 가능한 박격포를 적극적으로 운용했다. 중공군은 박격포가 기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악지역 작전에서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참고문헌

ATIS Interrogation Reports, Issue #49: Korean Operations (1951. 3. 20.)

중공군 항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迫撃砲 噴進砲他: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11)



82mm PM-41 박격포

개요

82mm PM-41 박격포는 소련군이 82mm BM-37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대대급 박격포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보병대대에서 주력 박격포로 운용하였다.



- 훈련중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82mm 박격포 운용반
- 출처 : RG242,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소련군은 1937년부터 프랑스의 M27/31 박격포를 기반으로 개발한 82mm BM-37 박격포를 보병대대의 박격포로 사용했다. 소련군은 82mm BM-37의 운용편의성을 개선한 82mm PM-41을 1941년에 채택하고 양산을 시작했다. PM-41은 운반시 박격포의 포다리에 바퀴를 연결해 이동을 용이하게 한 점이 특징이었다. 차량 운반시 포다리에 바퀴를 연결해 견인할 수 있어 기동성이 향상되었다. 1943년에 이를 다시 개량한 PM-43이 등장했다. 두 종류의 박격포 모두 전쟁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었다.

82mm PM-41 박격포 제원

구분	82mm PM-41 박격포
구경	82mm
최대사거리	3,040m
중량	52kg
발사속도	15~25발/분

운 용

6·25 발발 직전 북한군의 보병사단은 편제상 89문의 82mm 박격포를 보유했다. 북한군의 보병대대는 예하에 82mm 박격포를 장비한 박격포 중대를 두고 있었다. 보병대대의 박격포중대는 총 12문의 박격포를 보유했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 예하 대대의 박격포중대는 8문의 박격포와 견인용으로 8대의 GAZ-67B 지프를 보유한 점이 보병대대의 박격

포 중대와 달랐다. 모터사이클 연대의 박격포 중대는 차량을 보유해 작전시 포탄 휴대량이 포 1문당 60발 정도였다. 일반 보병대대의 박격포 중대는 82mm 박격포를 말로 운반했다. 이 때문에 탄약 휴대량도 제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주간에는 북한군의 포병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박격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낙동강 전투 기간 중 미군 사상자의 상당수가 북한군의 박격포 사격으로 발생했다. 특히 82mm 박격포는 120mm 박격포에 비해 진지 변환과 이동이 용이해 생존성이 높았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들어가고 보급사정이 호전되면서 탄약 휴대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미 구축된 진지에 포탄을 비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51년 9월 기준으로 북한군 제27사단은 소총대대 이하의 박격포 중대가 82mm 박격포 1문당 1,000발의 탄약을 할당받고 있었다.

중공군은 참전 초기 20식 82mm 박격포, 셴양 83mm 박격포 등 다양한 종류의 박격포를 운용했으나 점차 소련제 82mm 박격포로 대체했다. 1953년 완편 상태의 중공군 보병사단은 87문의 소련제 82mm 박격포를 보유했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120mm PM-43 중박격포

개요

120mm PM-43 중박격포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중박격포이다. 1938년에 채용된 PM-38의 개량형이다. 소련군 보병연대의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도 보병연대의 지원화기로 120mm 박격포를 사용하였다.



- 1950년 가을 부산의 노획무기 전시회에 전시된 120mm PM-43중박격포
- 출처 : RG306,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소련군은 1938년에 120mm 박격포를 채용했다. 이 박격포는 강력한 위력으로 독일군도 복제하여 생산한 우수한 장비였다. 소련군은 PM-38을 개량한 PM-43을 1943년부터 생산했다.

120mm PM-43 중박격포 제원

구분	120mm PM-43 박격포
운용인원	6명
구경	120mm
최대사거리	5,700m
중량	275kg
발사속도	9발/분

운 용

6·25 발발 직전 북한군 보병사단은 편제상 18문의 120mm PM-43 중박격포를 보유했다. 국군은 이에 해당하는 무기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연대단위의 화력에서 북한군에 압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곡사포와 같은 중장비가 없었던 북한군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연대 예하에 박격포 대대를 두었다. 모터사이클연대 예하의 중박격포대대는 3개 중대로 편성되었으며 각 중대는 본부소대와 2개의 화력소대로 편성되었다. 각 화력소대는 2문의 120mm 박격포를 보유했다. 120mm 박격포는 운용하는데 GAZ-51 트럭이 필요했기 때문에 82mm 박격포와 달리 주간 작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진지 변환을 신속하기 할 수 없어 유엔

군의 정찰기에 포착될 경우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다. 다만 차량이 배속되었기 때문에 기본 탄약 휴대량에 여유가 있는 점이 강점이었다. 낙동강 전투 당시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의 120mm 박격포 운용요원들은 작전시 박격포 1문당 40발의 포탄을 휴대했다.

중공군도 소련으로부터 120mm 박격포를 도입해 운용하였다. 1953년에는 중공군 보병사단이 편제상 12문의 120mm 박격포를 보유하게 되었다. 중국은 PM-43의 성능을 높게 평가하여 53식 박격포라는 명칭으로 생산하였다.

참고문헌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공산군의 대전차포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전차를 처음 투입했을 때 독일군은 전차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보병포 등을 대전차화기로 운용했다. 그러나 연합군이 더 많은 전차를 투입하면서 전차를 격파하기 위한 화포가 개발되었다. 독일군은 1918년부터 대전차포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전차의 발전과 함께 대전차포도 발전했다. 특히 소련군은 독일군의 기갑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대전차포를 대량으로 사용했다.

6·25전쟁 당시 공산군의 주력 대전차포는 45mm M1942였다. 북한군의 보병사단은 편제상 48문의 45mm 대전차포를 보유했다. 제12사단과 같이 45mm 대전차포 부족으로 보다 구형인 37mm 대전차포를 보유한 사례도 있다. 전쟁 발발당시 북한군의 부대별 대전차포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6·25 발발 당시 38선에 배치된 북한군 대전차포 현황

부대	장비	
	37mm 대전차포	45mm 대전차포
제1사단		48
제2사단		43
제3사단		48
제4사단		48
제5사단		
제6사단		48
제12사단	12	32
제13사단		12
제15사단		12
제105전차여단		12
제1경비여단		8
제3경비여단		33
제17포병연대		
제603연대		16

출처 :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285~291쪽.

※ 제105전차여단은 57mm 대전차포를 장비했다.

전쟁 초기에는 국군과 유엔군의 기갑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45mm 대전차포의 위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군의 M8 장갑차나 미군이 1950년 7월 투입한 M24 경전차는 북한군의 45mm 대전차포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엔군이 M26, M46, 센추리온과 같은 우수한 전차를 투입하

자 공산군은 대전차화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45mm 대전차포는 근거리에서 차체 측면 하단을 노려야 M26, M46에 유효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중공군은 대전차포가 부족해 92식 보병포와 같은 위력이 부족한 화기도 대전차 임무에 투입해야 했다. 1951년 5월 유엔군의 반격작전시 전차의 공격은 공산군의 방어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었다. 미군이 전차를 대량으로 투입한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 보병들이 전차로 인한 공황 상태에 빠진 사례도 있었다.

1951년 이후 공산군은 노획한 바주카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위력이 강화된 57mm 대전차포를 보병사단의 주력 대전차화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57mm 대전차포 ZiS-2는 전발 발발당시 제105전차여단과 같은 극소수의 부대에서만 사용했다. 그러나 미군이 참전한 뒤 대량의 전차를 투입하자 이에 대응하여 공산군의 57mm 대전차포 보유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53년 기준으로 중공군의 보병사단은 편제상 57mm 대전차포 30문을 보유했다.



37mm 대전차포 M1930(1-K)

개요

37mm 대전차포 M1930 1-K(37-mm protibotankovaia pushka obraztsa 1930 goda(1-K))는 소련이 1920년대 말에 개발해 배치한 대전차포이다. 북한군과 중공군이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소련 육군은 1920년대 후반 대전차 전용의 직사화기 소요를 제기했다. 대전차포 개발은 당시 소련과 안보협력 중이던 독일과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1929년 독일 라인메탈사는 소련 정부에 37mm 대전차포의 설계도와 시제품, 부품 등을 제공했다. 소련은 이 포를 제식으로 채용해 모스크바의 8호공장에서 생산했다. 그러나 소련 육군이 보다 강력한 45mm 대전차포를 도입하면서 37mm 대전차포의 생산은 중단되었다. 총 509문이 생산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이 중화민국 정부에 수출되었다. 37mm 대전차포는 전차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BT-2 경전차와 T-26 경전차가 이 포를 주포로 사용했다.

37mm 대전차포 M1930(1-K)제원

구분	37mm 대전차포 M1930(1-K)제원
운용인원	4명
구경	37mm
포신길이	1.66m
포구초속	800m/s
최대사거리	4,000m
부양각	-8°~+25°
중량	380kg
발사속도	15~20발(분)

출처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35.

운 용

6·25전쟁 발발 당시 45mm 대전차포가 부족했던 북한군 제12사단이 37mm 대전차포 12문을 사용했다. 이 포는 위력이 부족하고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북한측에서 사용한 기록이 매우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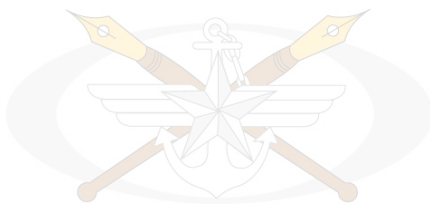
중공군은 37mm 대전차포를 보다 많이 사용했다. 이 포는 1930년대 중화민국 정부가 소련과 협력 관계에 있을 때 도입됐다. 소련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와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대량의 군수물자를 제공했다. 1938년 3월 소련 정부는 홍콩을 통해 80문의 37mm 대전차포와 45,000발의 포탄을 수출했다. 1939년 4월에는 2차분으로 100문, 11월에는 200문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37mm 포는 소련에서 이미 단종된 도태 장비였기 때문에 점차 포탄을 비롯한 소모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세계대전과 국공내전 기간 동안 꾸준히 사

용되었으며 국공내전이 종결된 뒤에도 중공군의 제식 장비로 운용되었다.

중공군이 한국 전선에 투입될 당시 중공군 보병사단들은 미국제 37mm 대전차 포와 소련제 37mm 대전차포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대공세인 제5차 전역 당시 중공군은 3문의 소련제 37mm 대전차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Hogg, Ian V., *Allied Artillery of World War Two*. (Ramsbury: Crowood Press, 1998)
-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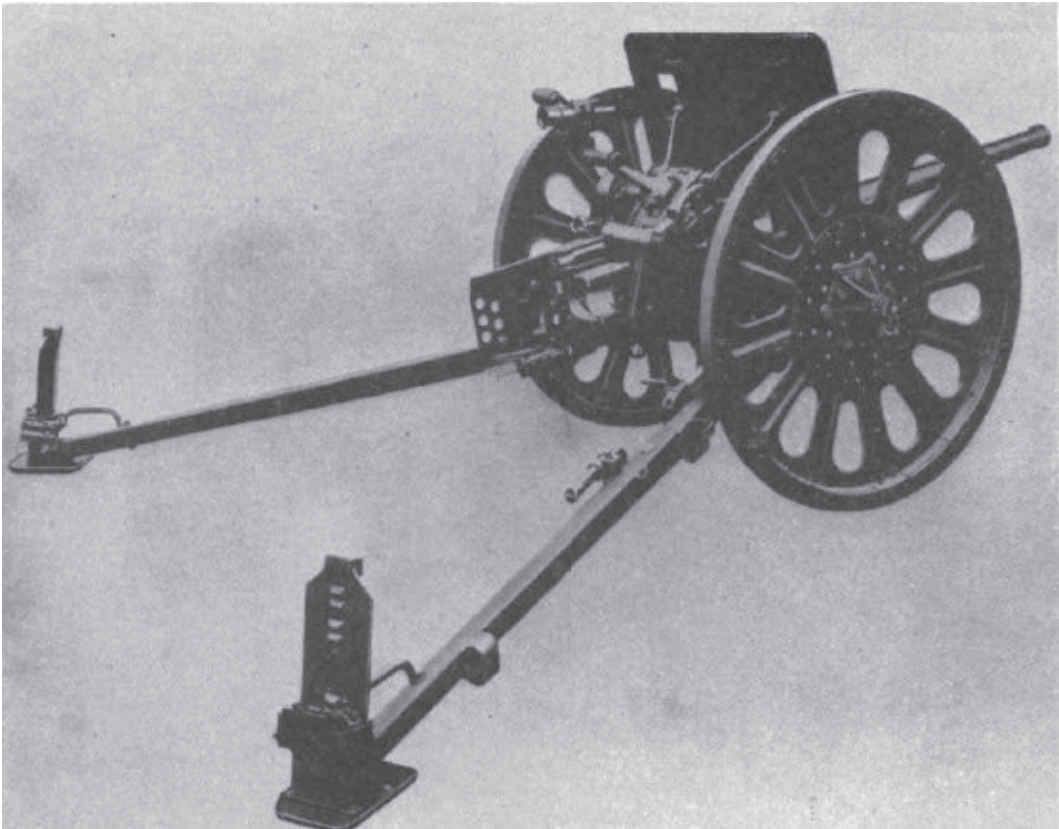


94식 37mm포

九四式三十七耗砲

개요

94식 37mm포는 1934년 일본 육군이 도입한 대전차포이다. 일본 육군이 처음으로 도입한 본격적인 대전차포였다. 중일전쟁부터 제2차세계 대전기 까지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국공내전 당시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 양측에서 사용되었다. 일부는 6·25전쟁기 중공군이 사용했다.



- 94식 37mm포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30-480, p.218.

1933년 일본 육군은 대전차전 임무를 전담할 신형 화포 개발을 결정했다. 이때 일본 육군은 신형 포의 구경을 37mm로 하고 1,000m 거리에서 2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했다. 또한 인력으로 견인하고 방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무게는 300kg 이내로 제한할 것도 요구했다. 같은해 7월 설계가 시작되어 12월에는 시제품의 시험 사격이 가능했다. 1934년 4월부터 5월까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시제품을 시험 사격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더 경량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부 개량을 거친 시제품이 1934년 9월부터 시험 평가를 받았다. 일본 육군은 1935년 3월 29일 이 포를 94식 37mm포로 제식 채용했다.

총 3,400문이 생산되어 일본군 보병연대의 속사포 중대에 4문씩 배치되었다. 1939년 노몬한 전투 당시 소련군의 BT-5, 7 및 T-26 전차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해 다수의 소련 전차를 격파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의 M3 경전차조차 격파하기 어려워 대전차무기로서 효력을 급속히 잃었다. 일본군의 대전차화기 부족 때문에 위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1945년까지 일선에서 사용되었다.

94식 37mm포 제원

구분	94식 37mm포 제원
운용인원	4명
구경	37mm
포신길이	1.70m
포구초속	710m/s
최대사거리	6,600m
부앙각	-10°~+25°
중량	327kg
발사속도	30발(분)
사용탄종	94식 철갑탄, 94식 유탄 등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歩兵砲 対戦車砲 他-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1), 120~121쪽.

운 용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항복한 일본군으로부터 다수의 장비를 압수해 사용했다. 94식 37mm포도 국공내전 기간 중 양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인 5차 전역 당시 94식 37mm포가 최소 18문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37mm 직사포 M3

개요

37mm 직사포 M3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사용한 대전차포이다. 57mm 대전차포 도입으로 빠르게 도태되어 미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렌드리스법으로 중국에 원조되어 중화민국 육군의 대전차병기로 운용되었다. 중공군의 참전 초기 중공군 대전차 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련제 대전차포가 대량으로 도입되면서 점차 도태되었다.



- 37mm 직사포 M3을 정비중인 미군 병사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1930년대 중반까지 미국 육군은 보병연대 예하에 대전차포가 없었다. 보병연대는 12.7mm 증기관총을 대전차포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스페인 내전에 독일제 37mm 대전차포가 투입되어 큰 성과를 거두자 미국 육군도 이와 유사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937년 1월 미육군 무기체계위원회(Ordnance Committee)는 독일에서 2문의 37mm 대전차포를 연구 참고용으로 도입했다. 미육군 보병병과는 보병이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된 대전차무기체계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37mm 보다 큰 구경의 화기 도입에 반대했다. 1938년 말까지 여러 종류의 시제품이 시험되었다. 그 결과 T10 대전차포와 T5 포를 결합한 시제품이 선정되었다. 37mm 직사포 M3으로 채용된 이 포는 1940년부터 1943년까지 18,702문이 생산되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당시 보병연대 및 보병대대, 해병연대 및 해병대대의 주력 대전차포로 사용되었다. 1943년 이후 유럽 전선의 미국 육군에서는 견인식 37mm 직사포 M3바주카포와 57mm 대전차포로 급속히 대체되었다. 다만 M5 경전차와 M8 장갑차의 주포로 사용된 M3포는 전쟁 말기까지 사용되었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군의 전차 전력이 미약했고, 37mm 대전차포가 정글 등 극한 환경에서 운용하기 편리했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전쟁 말기까지 사용되었다.

37mm 직사포 M-3 제원

구분	37mm 직사포 M-3
운용인원	4~6명
구경	37mm
포신길이	2.1m
포구초속	884m/s
최대사거리	6,900m
부양각	-10°~+15°
중량	413kg
발사속도	25발(분)
사용탄종	M74 철갑탄, M51철갑탄, M63고폭탄, MK II고폭탄, M2유산탄 등

용 용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중화민국 육군에 37mm 직사포 M3을 대량으로 원조했다. 미국은 전쟁에 참전한 직후인 1942년 4월 중화민국 육군에 60문의 37mm 직사포 M3과 135,000발의 M63고폭탄, 405,000발의 M51철갑탄을 공급했다. 이후 추가로 560문, 1943년에 396문, 1944년에 653문이 원조되었다. 대부분은 버마-인도 전역에 파견된 중화민국 육군 부대에 보급되었다. 일본 패망후 이 지역에 주둔하던 중화민국 육군이 본토로 귀환하면서 국공내전 당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내전에 승리한 뒤 중화민국 육군이 사용하던 37mm 직사포 M3을 대량으로 노획해 제식 장비로 채용하였다.

1950년 중공군이 참전할 당시 37mm 직사포 M3을 장비한 부대가 있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대공세인 5차 전역 당시 5문의 37mm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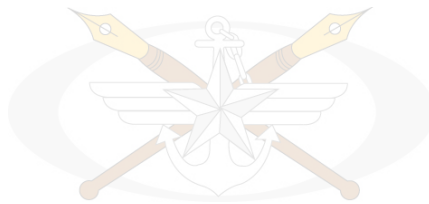
사포 M3을 투입한 것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Hogg, Ian V., Allied Artillery of World War Two (Ramsbury: Crowood Press, 1998)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章慕榮,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陸軍武器裝備建設之考察」『二十一世紀』2005年 8月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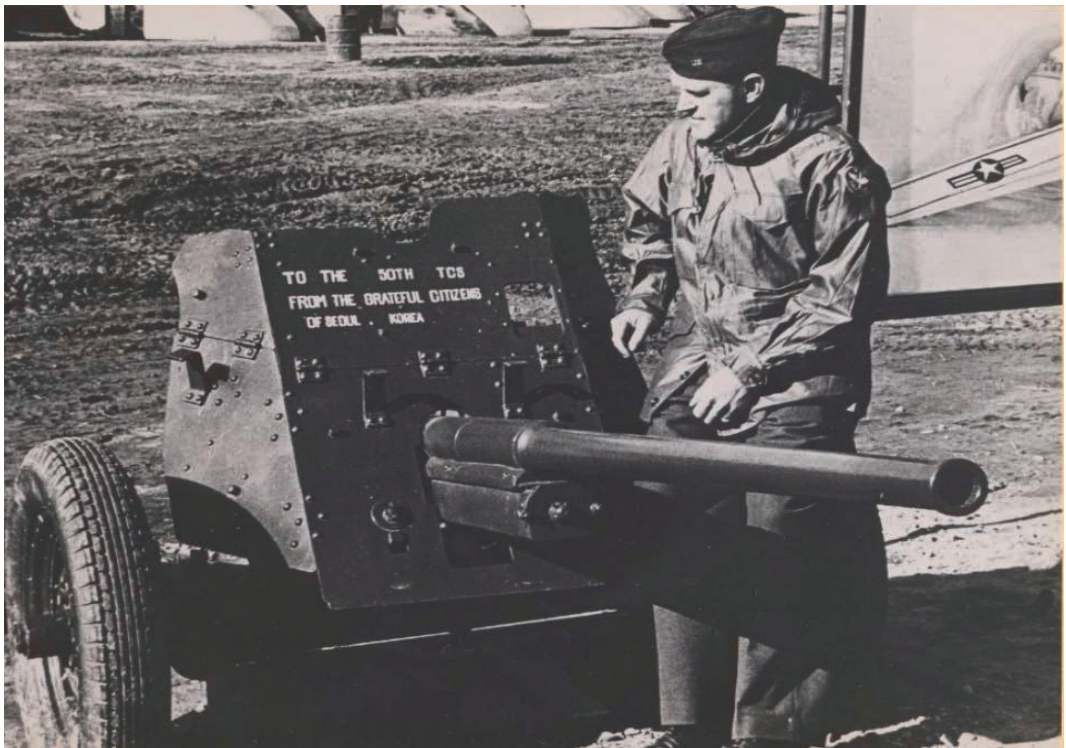




45mm 대전차포 M1937/M1942

개요

45mm 대전차포 M1937(45-mm protivotankovaia pushka obr. 1938.g(53-K))는 1930년대 중반 소련이 개발해 배치한 보병연대의 대전차화기이다. 1937년부터 1943년까지 총 37,354문이 생산되었다. 1942년부터 보다 신형인 45mm 대전차포 M1942(45-mm protivotankovaia pushka obr. 1942.g (M-42))로 대체되었다. 두 대전차포 모두 6·25 전쟁 기간 중 북한군과 중공군이 사용했다.



- 미군이 노획한 45mm 대전차포 M1942를 살펴보는 미공군 장병
- 출처 : RG342,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45mm 대전차포 M1937은 소련이 1930년대 초반에 도입한 37mm 대전차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장비이다. 1937년 시제품이 완성되어 1938년 1월 까지 공장 시험을 거쳤다. 공장 시험을 마친 시제품포 3문은 소련군의 시험을 받았다. 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1938년 4월 24일 45mm 대전차포 M1937의 제식명을 부여받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포는 1941년 독일군이 침공할 당시 소련 육군 보병연대의 주력 대전차 화기였으며 대량으로 배치되어 독일군 전차에 큰 피해를 주었다. 전쟁 초기에 독일군이 사용한 초기형 3호전차와 4호전차는 일반적인 교전 거리에서 45mm 대전차포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독일군이 구형 전차의 장갑을 강화하고 티거와 판터 등 신형 전차를 도입하면서 45mm 대전차포의 효용성은 줄어들었다.

45mm 대전차포 M1937(53-K) 제원

구분	45mm 대전차포 M1937(53-K)	45mm 대전차포 M1942(M-42)
운용인원	4명	4명
구경	45mm	45mm
포신길이	2.07m	3.09m
포구초속	760m/s	870m/s
최대사거리	4,400m	4,550m
부양각	-8°~+25°	-8°~+25°
중량	560kg	625kg
발사속도	15~20발/분	

- 출처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37.

45mm 대전차포 M1942는 45mm 대전차포 M1937을 개량한 장비이다. 포신의 구경을 46구경에서 68.6 구경으로 늘리고 포방패 장갑의 두께를 4.5mm에서 7mm로 늘려 소총탄에 대한 방호력을 높였다. 포신을 늘리고 포탄의 장약을 늘린 결과 포구초속이 760m/s에서 870m/s로 증가했다.

운 용

북한군 보병사단은 소련 육군의 편제를 받아들여 45mm 대전차포를 보병연대의 대전차포로 사용했다. 북한군 보병연대의 대전차포 중대는 3개의 화력소대와 1개의 탄약소대로 편성되었다. 각 화력소대는 2문의 45mm 대전차포와 견인용 말 2마리를 보유했다. 탄약소대는 탄약 수송용 말 1마리를 보유했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 직전 부대별로 다음과 같이 45mm 대전차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1경비여단 8문, 제3경비여단 33문, 제1보병사단 48문, 제2보병사단 43문, 제3보병사단 48문, 제4보병사단 48문, 제5보병사단 48문, 제6보병사단 48문, 제12보병사단 32문, 제13보병사단 12문, 제15보병사단 12문, 제105전차여단 12문, 제603모터사이클연대 16문. 소련군은 76.2mm 사단포를 대전차포 부대에도 배치해 운용했으나 북한군은 대전차포 부대에 76.2mm 사단포를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므로 대전차 임무는 대부분 45mm 대전차포가 담당했다. 개전 초기 북한군이 상대한 기갑장비는 국군의 M8장갑차와 미군의 M24경전차에 불과했으므로 45mm 대전차포의 파괴력으로 충분히 상대가 가능했다. 1950년 7월 1일 북한군 제6사단은 영등포 방면 전투에서 장갑차를 동반한 국군의 역습을 격퇴하고 소수의 M8 장갑차를 45mm

대전차포로 파괴하였다. 북한측은 이 전투에서 7대의 장갑차를 격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45mm 대전차포를 다른 지원임무에 사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군은 한강 도하 작전 당시 제3보병사단과 제4보병사단의 도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92문의 45mm 대전차포를 직접조준사격 임무에 투입했다. 도하작전 중 북한군은 대전차포로 한강 남안의 국군 방어진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군이 1950년 7월 말부터 M4A3E8, M26 등의 중형전차를 전장에 투입하자 45mm 대전차포의 효율성은 저하되었다. 그러나 근거리 매복공격으로 미군 전차의 측면을 노려 격파에 성공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했다.

중국은 중일전쟁 시기부터 이 포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련 정부는 1938년 2월 50문의 45mm 대전차포, 그리고 350,000발의 대전차포 포탄을 중화민국 정부에 수출했다. 이때 공급된 대전차포 중 일부는 국공내전이 종결된 뒤 중공군의 제식 장비로 편입되었다.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할 당시 45mm 대전차포는 중공군 보병사단이 운용한 여러 대전차포 중의 하나였다. 중공군의 1951년 춘계대공세인 제5차 전역당시 45mm 대전차포 M1937을 투입한 것이 확인된다.

6·25전쟁 당시 국군이 노획한 45mm 대전차포 M1942 1문이 현재 서울 육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민족보위성총참모부, 『1932년 식 및 1937년식 45mm 반전차포 소대장 및 포장수첩』,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49)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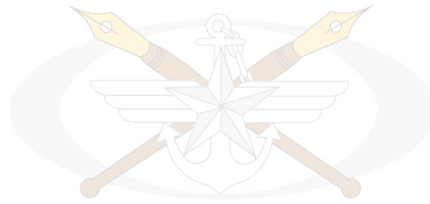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중공군 항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黄毅, 『中国人民志愿军后勤史』, (北京: 金盾出版社, 1991)





57mm 대전차포 M1943(ZiS-2)

개요

57mm 대전차포 M1943은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 중 개발해 배치한 대전차포이다. 동급의 대전차포 중 우수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대전차화기로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1940년 그라빈이 이끄는 설계국은 소련군 포병국으로부터 신형 대전차포 개발 임무를 맡았다. 그라빈의 개발팀은 당시 소련군이 운용하던 KV-1 중전차의 방어력을 기준으로 삼아 신형 대전차포의 성능 목표를 표준 교전거리에서 90mm의 장갑을 관통하는 것으로 잡았다. 구경은 57mm로 결정했다. 그라빈의 설계국은 1940년 5월 개발에 착수해 1941년 초 시험평가를 마쳤다. 소련군은 이 포를 57mm 대전차포 M1941로 제식채용했다. 이 신형 대전차포는 독소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 6월 생산에 들어갔으나 생산가격과 포탄 조달 문제로 곧 중단되었다. 그러나 1942년 독일군의 신형 중전차 티거가 전장에 등장하고 1943년에는 판터 전차가 투입되면서 소련군의 대전차화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57mm 대전차포 생산이 재개되었다. 1943년에 생산이 재개되면서 제식 명칭이 57mm 대전차포 M1943으로 변경되었다. 이 포는 1945년까지 9,645문이 생산됐다.

57mm 대전차포 M1943 (ZiS-2) 제원

구분	57mm 대전차포 M1943 (ZiS-2)
운용인원	5명
구경	57mm
포신길이	4.16m
포구초속	870m/s
최대사거리	8,400m
부양각	-5°~+25°
중량	1,250kg
발사속도	10~25발(분)

- 출처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38.

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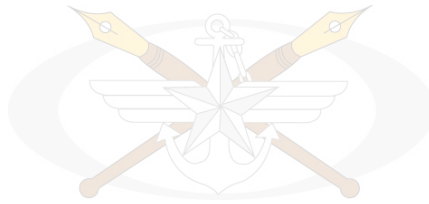
북한군의 주력 대전차포는 45mm 대전차포였으나 소련제 57mm 대전차포도 함께 운용되었다. 북한 제105전차사단 직할의 대전차포 대대는 57mm 대전차포를 운용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이 장비를 예비물자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공군은 1951년 4월 춘계공세인 5차전역부터 소련에서 도입한 이 포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각 병단 예하의 대전차부대에 배치되었으며 36문이 사용되었다. 1951년 9월 중공군 장비 통계를 보면 총 72문의 소련제 57mm 대전차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소련제 야포가 대량으로 도입되면서 중공군이 사용한 미국제 및 일본제 견인식 대전차포를 대체하였다. 1952년 하반기 이후 완전상태의 중공군 보병사단은 사단직할

의 대전차대대에 12문, 각 보병연대에 6문 등 총 30문의 57mm 대전차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57mm 대전차포가 배치되면서 중공군의 대전차화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참고문헌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6파운드 대전차포

개 요

6파운드 대전차포는 제2차세계대전 중 영연방군이 사용한 57mm 구경의 대전차포이다. 6·25전쟁기에 중공군이 이 포를 소수 운용하였다.

운 용

1951년 9월 한국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의 장비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제 6파운드포 6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산군의 보병포

보병포는 일반적으로 보병연대 직할대로 편성되어 보병의 공격시 직접 화력지원을 담당하는 견인식 직사화기이다. 제2차세계대전 시기에 널리 운용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말기 무반동포가 등장하고 보병연대 단위에서 120mm급 중박격포 사용이 늘어나면서 도태되었다. 6·25전쟁 시기 공산군은 보병연대 편제에 보병포 중대를 두고 보병포를 대규모로 운용했다. 반면 유엔군의 경우 주력인 미육군이 제2차세계대전 직후 보병연대 편제에서 보병포 중대를 폐지하고 무반동포를 도입하면서 전쟁 기간 중 보병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현대에는 과거 보병포가 수행했던 임무를 대구경 무반동포와 보병의 휴대용 미사일, 120mm급 중박격포가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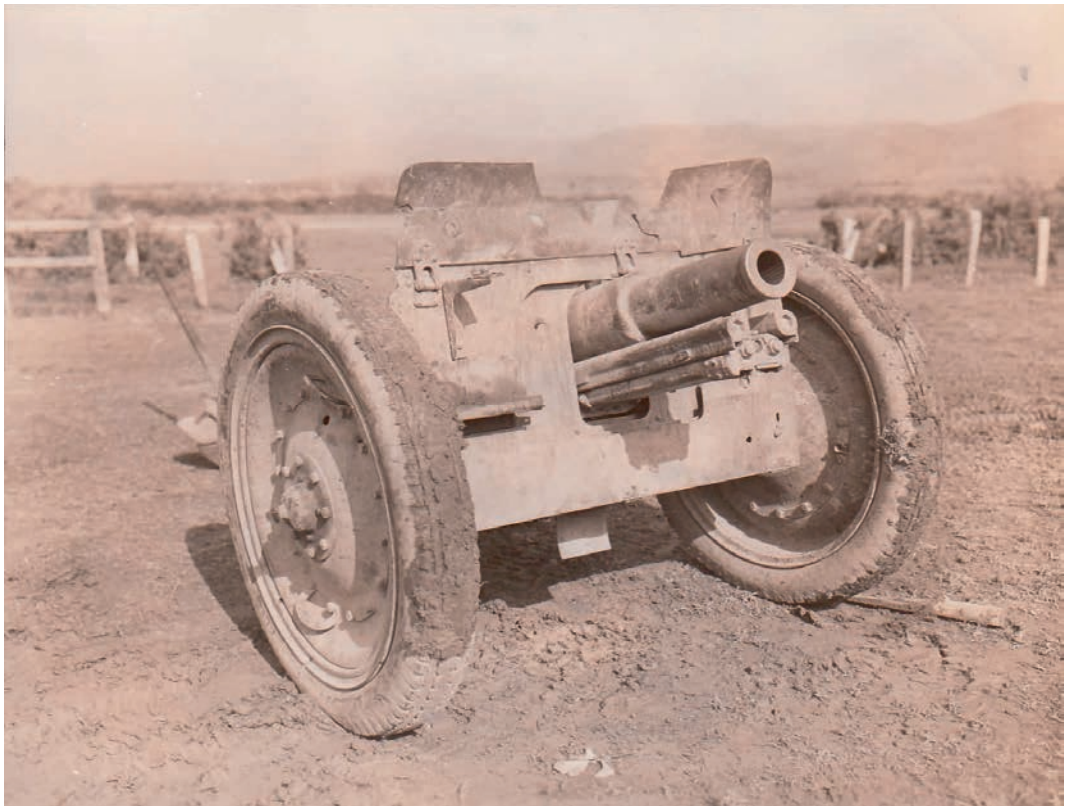
6·25전쟁 당시 공산군이 사용한 보병포는 크게 2종류이다. 소련제 76mm 연대포 M1927과 일본제 92식 보병포이다. 공산군은 보병포를 보병에 대한 직접 화력뿐만 아니라 대전차 임무에 투입하는등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76mm 연대포 M1927

개요

76mm 연대포 M1927(76-mm polkovaia pushka obr.1927g.)은 소련 육군의 보병사단 예하 보병연대의 직접 화력 지원용으로 개발되었다. 1928년부터 1943년 까지 총 16,482문이 생산되었다. 6·25전쟁시기 북한군도 보병연대에 이 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공군도 소련제 장비를 도입하면서 이 포를 사용했다.



- 1950년 8월 미군이 노획한 76mm연대포
- 출처 : RG111, NARA

1924년 소련군은 보병연대의 지원화기로 사용할 신형 76mm 연대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76mm M1902 보병포는 사정거리가 짧고 포가 무거워 운용하는데 융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련군은 연대포를 완전히 새로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포를 바탕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후보로는 76mm 산포 M1909, 76mm 야포 M1910, 76mm 야포 M1913 등 3개가 꼽혔다. 최종적으로 76mm 야포 M1913을 바탕으로 신형 연대포를 개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신형 연대포의 설계는 1925년 시작됐다. 설계는 1925년에 완료되었고 1926년 시제품이 제작되어 1927년 1월부터 6월까지 레닌그라드 군관구 예하의 시험장에서 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 중 포구 초속이 381m/s를 넘어가면서 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포의 양각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었다.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량한 시제품이 1928년 완성되었다. 소련 육군은 이 포를 76mm 연대포 M-1927로 정식 채용했다. 일선 부대 배치는 1928년 12월 22일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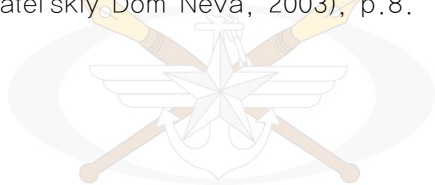
76mm 연대포 M-1927은 1928년부터 1943년까지 생산되어 소련군 보병연대의 지원화기로 운용되었다. 1941년 독일과의 전쟁이 발발하자 76mm 연대포 M-1927의 성능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 포는 보병연대의 화력 지원에 사용되는 만큼 최전선에서 적 전차와 교전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포의 위력이 낮아 독일군의 경전차 조차 확실하게 격파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1943년 생산이 중단되고 신형 연대포인 76mm 연대포 M1943으로 교체되었다.

76.2mm 연대포 M1927 제원

구분	76.2mm 연대포 M1927
운용인원	6명
구경	76.2mm
포신길이	1.25m
포구초속	387m/s
최대사거리	4,200m
부양각	-6°, +25°
중량	780kg
발사속도	발(분)

- 출처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8.

운 용



6·25전쟁 기간 중 북한군 보병연대의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 보병연대는 연대 직할의 보병포 중대에 4문의 76.2mm 보병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병포중대는 2개의 화력소대와 1개 탄약소대로 편성되었다. 각 화력소대는 2문의 76.2mm 보병포를 보유했다.

보병포는 보병을 동반하며 직접화력지원을 제공하는 무기체계였기 때문에 보병의 행군 속도에 맞춰 말로 견인을 했다. 76.2mm 보병포 1문을 견인하는데 4마리의 말이 필요했다. 북한군 보병연대의 보병포 중대는 작전시 300발의 보병포 탄약을 휴대하였다. 북한군 보병연대의 수송수단은 우마차와 인력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탄약을 대량으로 휴대하기 어려웠다. 작전시 휴대하는 탄약이 부족해 북한군의 보병포는 충분

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6·25전쟁 당시 국군이 노획한 76.2mm M1927 보병포 1문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IX Corps War Diary Sep 1950, Annex 2.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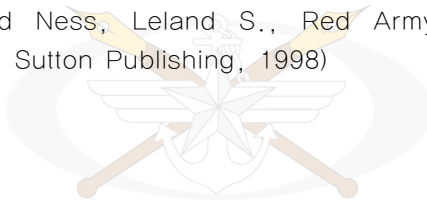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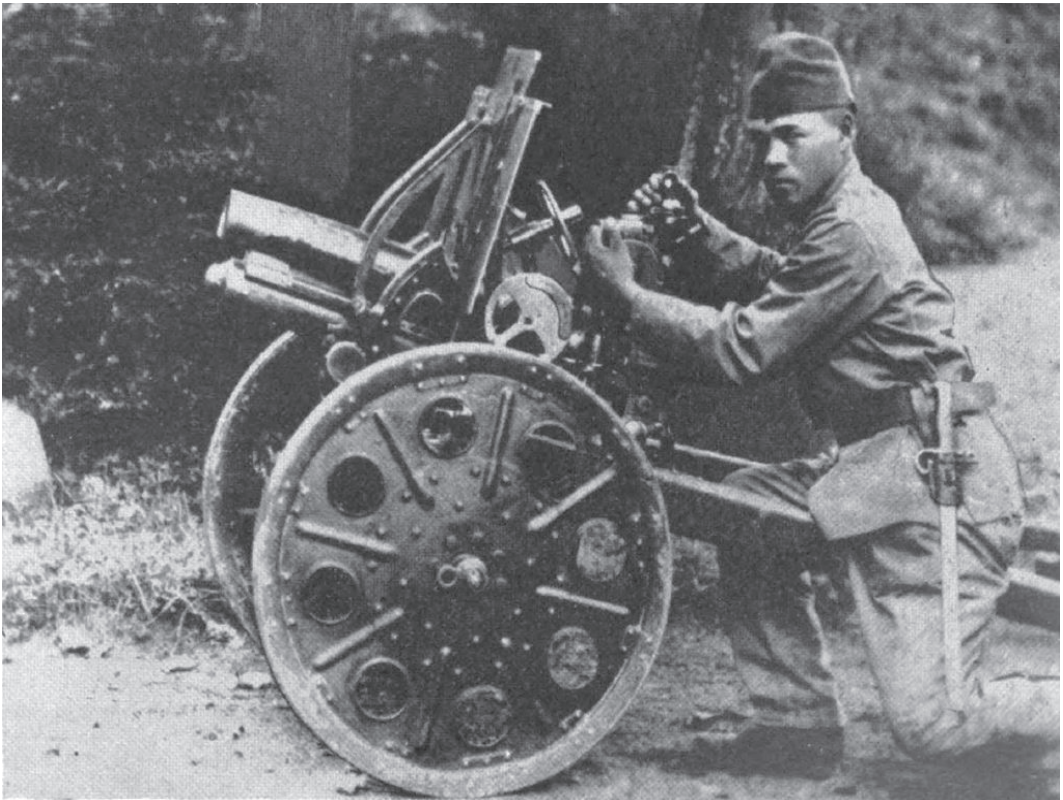


92식 보병포

九二式歩兵砲

개요

92식 보병포는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육군이 대대급의 지원화기로 사용한 경포이다. 약 3,000문이 생산되었다. 국공내전과 6·25전쟁기에 중공군도 이 포를 사용했다.



- 92식 보병포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30-480, p.219.

연혁 및 제원

일본 육군은 1922년 37mm 구경의 11식 보병포를 도입해 보병대대의 화력지원 용으로 사용했다. 11식 보병포는 가볍고 인력으로 운반하기도 용이한 장점이 있었으나 작은 구경 때문에 유탄의 위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일본 육군은 1928년 11식 보병포를 대체할 구경 70mm의 신형 보병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1930년 3월 시제품이 완성되어 사격 시험을 실시한 뒤 1931년 시험 결과를 반영한 두 번째 시제품을 제작했다. 두 번째 시제품은 좋은 평가를 받아 1932년 7월 6일 92식 보병포로 제식 채용 되었다.

92식 보병포는 다른 야포나 산포 보다 초속을 낮게 억제한 대신 탄두의 껍질을 얇게 만들어 작약량을 늘렸다. 반면 낮은 초속 때문에 철갑탄의 관통 능력이 떨어져 대전차 전투 능력은 낮았다.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말 1마리로 견인할 수 있었고 분해시에는 말 3마리, 또는 병사 10명으로 운반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본군 보병 1개 대대에 2문이 배치되어 운용되었다.

92식 보병포 제원

구분	92식 보병포
운용인원	6명(중공군 운용교범 기준)
구경	70mm
포신길이	0.79m
포구초속	197m/s(1호장약 사용시)
최대사거리	2,830m
부양각	-6°, +70°
중량	203.5kg
발사속도	10발(분)
사용탄종	92식 유탄, 95식 조명탄, 97식 강제총류탄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歩兵砲 対戦車砲 他—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1), 78~79쪽.

운 용

중공군은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92식 보병포를 보병연대의 직접지원용으로 사용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다수의 중공군 부대가 92식 보병포를 운용한 것이 확인된다. 제39군은 1950년 9월 36문의 92식 보병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50군은 1950년 10월 한반도에 투입될 당시 14문의 92식 보병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전쟁 기간 중 본토에 비축하고 있던 92식 보병포의 상당수를 한국전선에 투입했다.

92식 보병포는 중공군의 보병연대급에서 운용하는 가장 강력한 직사 화기였다. 중공군 보병사단이 연대포병군을 조직할 때 92식 보병포는 120mm 중박격포와 함께 사용되었다. 92식 보병포는 유엔군과 국군 방어전연상의 사격진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다. 특히 중공군 보

병의 돌격시 직접화력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장비였다. 그러나 보급을 인력과 우마에 크게 의존한 중공군의 특성상 충분한 탄약을 휴대할 수 없어 92식 보병포의 운용에 제약이 많았다.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 시 92식 보병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92식 보병포 1문이 공격작전시 휴대하는 포탄은 30발 가량이었다. 중공군의 참전 초기에는 대전차화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92식 보병포를 대전차전투에도 투입하였다.

92식 보병포는 임무의 특성상 유엔군과 국군 방어전연의 0.5~2km 전방에 추진배치되어 사용되었고 실전에서는 훨씬 가까운 거리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성상 유엔군과 국군의 직사화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았다. 6·25전쟁 기간 중 중공군이 상실한 92식 보병포는 총 78문이다.



참고문헌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Li Chen, 'From Civil War Victor to Cold War Guard: Positional Warfare in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1951-1953'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8-1&2, 2015



공산군의 야전포병

6·25전쟁 기간 중 공산군이 사단 직할 포병대대 이상의 부대에서 운용한 곡사포와 평사포, 산포는 다음과 같다.

〈표〉 6·25전쟁시 공산군이 운용한 산포, 곡사포, 평사포

장비명	운용국가	운용부대
41식 산포	중국	보병사단 포병대대
94식 산포	중국	보병사단 포병대대
M1A1 75mm 경곡사포	중국	보병사단 포병대대
76,2mm 사단포 M1942(ZIS-3)	북한	보병사단 포병연대 예하 포병대대
	중국	보병사단 포병대대
38식 야포	중국	보병사단 포병대대, 군직할 포병연대 예하 포병대대
90식 야포	중국	보병사단 포병대대, 군직할 포병연대 예하 포병대대
95식 야포	중국	보병사단 포병대대, 군직할 포병연대 예하 포병대대
14식 야포	중국	보병사단 포병대대
M2A1 105mm 곡사포	중국	독립포병사단 예하 포병대대
14식 10cm 유탄포	중국	독립포병사단 예하 포병대대
91식 10cm 유탄포	중국	독립포병사단 예하 포병대대
92식 10cm 캐논포	중국	독립포병사단 예하 포병대대

122mm 곡사포 M1938(M-30)	북한	보병사단 포병연대 예하 포병대대
	중국	보병사단 유탄포대대, 독립포병사단 예하 포병대대
122mm 군단포 M1931(A-19)	북한	독립포병연대
152mm 곡사포 M1937(ML-20)	중국	독립포병사단 예하 포병대대
M1 155mm 곡사포	중국	독립포병사단 예하 포병대대
4식 15cm 유탄포	중국	독립포병사단 예하 포병대대
15cm sFH 18	중국	독립포병사단 예하 포병대대

공산군 포병의 특징은 사단급 이상의 포병부대가 운용하는 장비의 질이 유엔군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점이다. 이 점은 북한군 보병사단 포병연대와 미군 보병사단 포병연대를 비교하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북한군 보병사단의 포병연대는 76.2mm 사단포 M1942(ZiS-3) 24문과 122mm 곡사포 M1938(M-30) 12문을 보유한 반면 미군 보병사단의 포병연대는 M2A1 105mm 곡사포 36문과 M1 155mm 곡사포 12문을 보유했다. 유엔군의 동급 부대에 비해 한등급 낮은 화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포병의 사정거리와 화력투사량 모두 유엔군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 점은 중공군도 마찬가지이다. 중공군은 참전 당시 보병사단 예하에 75mm 구경의 곡사포 또는 산포 12문을 보유하는데 그쳤으며 전쟁 말기에 가서야 1개 대대의 122mm 곡사포가 보병사단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또한 소련이 중국에 지원한 야포 중에서 중공군이 6·25전쟁에 투입한 화포 중 가장 위력이 강한 것은 150~155mm 구경의 곡사포들이었다. 반면 유엔군은 미군의 8인치 곡사포가 있어 화력전에서 우위를 차지했

다. 공산군의 야포로는 미군의 8인치 곡사포를 상대로 대포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공산군 포병의 또다른 특징은 편제 장비가 잡다하다는 점이다. 6·25 전쟁 발발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사단포병연대에 76.2mm 사단포와 122mm 곡사포, 독립포병연대에 122mm 군단포를 운용하는 등 편제장비가 통일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다양한 군벌들이 내전 시기에 도입한 야포, 제2차세계대전 시기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야포,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야포,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야포가 혼재되어 있었다. 1951년 2월~4월 중공군 제9포병연대의 편제 장비는 다음과 같았다.

〈표〉 중공군 제9포병연대 장비(1951년 2월~4월)

부대	장비
제9포병연대 1대대	38식 야포, 90식 야포, 91식 유탄포
제9포병연대 2대대	38식 야포
제9포병연대 3대대	38식 야포, 91식 유탄포

- 출처 : 王本昌·候永吉, 『威震敌胆: 炮兵第九团团史』(中国人民解放军炮兵第九团, 1993) 139, 158쪽

중공군 제9포병연대의 편성을 보면 1개 포병대대 조차 장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전에서 여러 포병부대를 통합해서 운용할 때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1952년의 소위 ‘상감령 전투’ 당시 중공군 제15군 예하 제45사단 사단포병군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었다.

〈표〉 ‘상감령 전투’ 당시 중공군 제45사단 포병군 편성

부대	장비	수량
제1집단(제2포병사단 30연대 2개 중대)	M1 155mm 곡사포	8
제2집단(제28포병연대 2개 중대)	4식 15cm 유탄포	8
제3집단(제7포병사단 3대대)	122mm 곡사포 M1938(M-30)	9
제4집단(제9포병연대 3대대)	38식	11
제5집단(제45보병사단 포병대대)	형식 미상 산포	9
제6집단(제35고사포대대, 제601고사포대대)	37mm 대공포 M1939	4
	85mm 대공포 M1939	3
제209방사포연대	BM13 방사포	24

■ 출처 : 李鹏, 「上甘岭战役志愿军炮兵作战纪实」『世界航空航天博览』2004年第12期, 81쪽

1개 사단이 미국, 소련, 일본에서 생산된 5종의 곡사포와 산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포병 편성은 병단 단위의 전략적 공세에서 보급 및 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했다. 중국은 1951년부터 소련에서 장비를 도입해 포병 장비를 표준화하려 했으나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도 포병 장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1953년 7월 금성돌출부 전투 당시 중공군이 사용한 곡사포와 산포는 다음과 같았다.

〈표〉 금성돌출부 공세 당시 중공군이 사용한 화포

장비	수량
152mm 곡사포 M1937(ML-20)	3
M1 155mm 곡사포 및 4식 15cm 유탄포	32
122mm 곡사포 M1938(M-30)	77
M2A1 105mm 곡사포	84
14식 및 91식 10cm 유탄포	7
92식 10cm 캐논포	8
76,2mm 사단포 M1942(ZiS-3)	98
38식 야포	40
75mm 산포	90
92식 보병포	45
132mm 방사포	59
120mm 박격포	47
4.2인치 박격포	24
82mm 박격포	445

- 출처 :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下(初稿)』(연도미상), 71쪽.

미 제8군은 중공군 참전 초기 중공군 포병의 주력이었던 일본제 야포들은 사정거리가 짧고 구식이어서 소련제 야포에 비해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사정거리가 짧아 최전선에 가깝게 배치해야 했고 이 때문에 유엔군의 대포병사격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소련제 야포들은 일본제에 비해 우수했으나 미군의 8인치 곡사포와 비등한 위력을 가진 포가

없었던 점이 약점이었다. 전쟁기간 중 공산군 병사들은 유엔군의 포병을 매우 두려워 했다.

참고문헌

HQ EUSAK, Monograph: Enemy Materiel(1953. 8. 16), RG550 Entry E2(A1) Box27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사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
(연도미상)

王本昌·侯永吉, 『威震敌胆: 炮兵第九团团史』(中国人民解放军炮兵第九团, 1993)

李鹏, 「上甘岭战役志愿军炮兵作战纪实」『世界航空航天博览』2004年第12期,

Li Chen, 'From Civil War Victor to Cold War Guard: Positional Warfare in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1951-1953'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8-1&2, 2015





41식 산포

四一式山砲

개요

41식 산포는 1911년 일본 육군과 해군 육전대가 채용한 산악용 경포이다.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연대급 직사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약 3,800문이 생산되었다. 국공내전에서도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이 대량으로 운용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운용했다.



- 미군이 노획한 일본군의 41식 산포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30-480, p.220.

연혁 및 제원

일본 육군은 러일전쟁이 끝난 뒤 전쟁 중 운용한 31식 산포를 대체할 신형 산포의 개발에 착수했다. 오사카 포병공창은 독일 크루프 사의 75mm 14구경 산포를 대폭 참고하여 1908년 시제품을 완성했다. 일본 육군은 이 시제품을 평가한 뒤 1911년 41식 산포라는 명칭으로 정식 채용했다.

이 포는 주퇴 복좌장치를 채택해 분당 10발이라는 양호한 발사 속도를 가졌다. 또한 견인 운반시 말 2마리로 운용할 수 있었고 산악지대에서 분해해 운반할 경우에는 말 6마리가 필요했다. 구조가 단순해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았다. 배치 당시에는 사단 포병예하의 산포병 연대에서 사용했다. 중일전쟁 시기 부터는 보병연대의 직사 지원화기로 사용되면서 연대포로 불렸다.

41식 산포 제원

구분	41식 산포
운용인원	7명
구경	75mm
포신길이	1.37m
포구초속	352.4m/s
최대사거리	7,100m(94식 유탄 사용시)
부양각	-8°~+25°
중량	539.5kg
발사속도	10발(분)
사용탄종	10식 유탄, 90식 유탄, 94식 유탄, 95식 철갑유탄 등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406~407쪽.

1920년대 중국의 여러 군벌들은 일본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면허생산 권을 취득하고 있었다. 중국이 면허생산한 41식 산포는 두 종류이다. 한 양 10식과 샨시 13식이다. 타이위안(太原) 조병창은 41식을 개량해 사정 거리를 7,000m로 늘린 17식 산포를 생산했다. 또한 중일전쟁 기간 중 노획한 일본군의 41식 산포도 함께 운영되었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6·25전쟁 참전 당시 일본제 장비에 필요한 소모품의 상당수를 국산화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1951년 9월 기준으로 총 140문의 41식 산포를 운용하고 있었다. 6·25전쟁 기간 중 중공군은 949,734발의 75mm 산포용 포탄을 보급받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었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총 총 57문의 41식 산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中國人民解放軍 華北軍區, 『野戰砲兵操典草案』(1950. 1)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사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94식 산포

九四式山砲

개요

94식 산포는 일본 육군이 41식 산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75mm 구경의 경량급 야포이다. 국공내전에서도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이 대량으로 운용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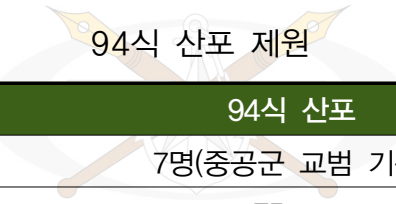


- 94식 산포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30-480, p.221.

연혁 및 제원

일본 육군은 1920년 41식 산포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75mm 산포 개발을 시작했다. 1934년부터 오사카 포병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갔으며 1944년부터 나고야 공창에서도 생산을 시작했다. 만주국 셴양의 포병공창에서도 생산되었다. 그러나 생산량이 많지 않아 41식 산포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함께 사용되었다.

94식 산포는 분해해서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었다. 분해시 22명으로 운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태평양 전쟁시 정글 전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용하는 탄두는 38식 야포와 동일했으나 장약량은 38식 야포에 사용하는 탄이 94식 산포에 사용하는 탄 보다 50% 더 많았다.



94식 산포 제원

구분	94식 산포
운용인원	7명(중공군 교범 기준)
구경	75mm
포신길이	1.3m
포구초속	392m/s
최대사거리	8,300m
부양각	-10°~+45°
중량	536kg
발사속도	
사용탄종	90식 철갑탄, 94식 유탄, 95식 철갑유탄, 90식 유산탄, 90식 연막탄, 90식 조명탄 등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444~445쪽.

운 용

중국은 만주 셴양에 있던 포병공창을 접수한 뒤 94식 산포와 소모품의 생산을 계속했다. 중국은 일본제 장비에 필요한 소모품의 상당수를 국산화 하는데 성공했다. 중공군은 1951년 9월 기준으로 총 156문의 94식 산포를 운용하고 있었다. 6·25전쟁 기간 중 중공군은 949,734발의 75mm 산포용 포탄을 보급 받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었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총 74문의 94식 산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 中國人民解放軍 華北軍區, 『野戰砲兵操典草案』(1950. 1)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사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75mm 경곡사포 M1A1

75mm Pack Howitzer, M1

개 요

75mm 경곡사포 M1A1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수부대와 산악 부대용으로 사용한 경곡사포이다. 렌드 리스를 통해 중화민국 육군에 지원되어 국공내전 기간 중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이 포를 운용했다.



- 1942년 M1A1 경곡사포 운용 교육을 받고 있는 중화민국 육군 포병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M1 경곡사포는 1927년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곡사포와 달리 ‘경곡사포(pack howitzer)’로 설계된 이 포는 6개 부품으로 분해할 경우 각 부품의 중량이 73~107kg으로 인마수송이 가능하여 산악과 같은 험지에도 전개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어 1940~1944년 사이에 8,400여 문이 제작되었고, 대부분은 미 육군 공수사단 예하의 글라이더 및 강하포병대대의 주요 화포로 활용되었다. 같은 시기에 영국과 호주, 중국 등에도 원조되어 주로 산포(山砲) 역할을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대형 곡사포들의 자주화로 인하여 퇴역하였고 지금까지 소수가 의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75mm 경곡사포 M1A1 제원

전장	368cm	전고	94cm
전폭	122cm	중량	653kg
발사각	5 ~ 45°	사격속도	분당 6발
사거리	8,800m	조작인원	6명

■ 출처 : War Department, TM 9-1320 *75mm Howitzers and Carriages* (1944)

운 용

미국 정부는 1941년 5월 렌드 리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1942년 중순부터 중화민국 육군에 600문의 75mm 경곡사포 M1A1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42년 5월 중순 32문의 75mm 경곡사포가 버마에 도착했다. 1942년 말 까지 250문의 75mm 경곡사포가 인도로 보내졌다. 일부는 중화민국 육군 제5군이 장비했다. 1943년 10월 말까지 중공군의 5개

포병대대가 75mm 경곡사포를 장비하게 되었다. 11월에는 추가로 1개 대대가 75mm 경곡사포를 장비했다. 1945년 초 중국 본토의 중화민국 육군은 284문의 75mm 경곡사포를 보유했으며 인도-버마 전선의 중국 육군이 115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1945년 8월까지 추가로 105문의 75mm 경곡사포를 원조했다.

75mm 경곡사포는 국공내전 기간 중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 양측에서 사용되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 포병은 이 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 제50군은 1950년 10월 한반도에 투입될 당시 16문의 75mm 경곡사포를 보유했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공세 당시 중공군이 최소 71문의 75mm 경곡사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1951년 9월 한반도에 투입된 중공군의 장비 통계를 보면 총 129문의 75mm 경곡사포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총 27문의 M1A1 경곡사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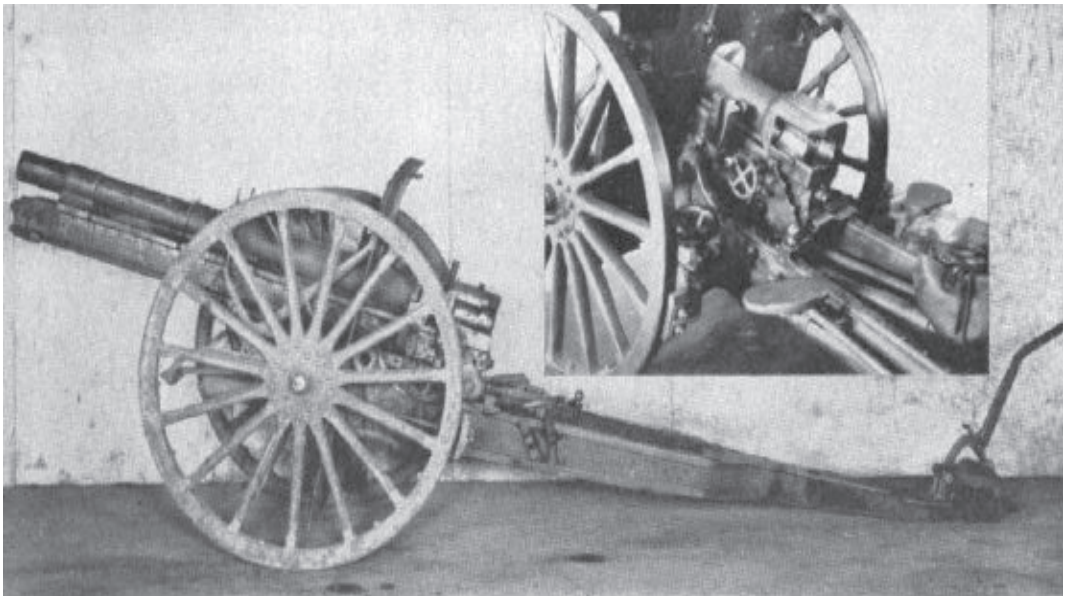


38식 야포

三八式野砲

개요

38식 야포는 일본이 독일 크루프(Krupp)사의 1903년식 75mm 야포를 면허 생산한 것이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 육군에 배치되었으며, 구식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에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국공내전 기간 중 중화민국 육군과 중국공산군 양측에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초기 중공군의 병단 및 군단급 직할 포병부대의 주력 야포였다.



- 38식 야포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30-480, p.226.

일본 육군은 러일전쟁을 통해 유럽의 강대국을 상대로 현대전 경험을 쌓았다. 이 전쟁에서 포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일본은 1904년 독일 크루프사가 개발한 31구경 75mm 야포 400문을 면허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오사카 포병공창은 1905년부터 이 야포를 38식 야포라는 명칭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1905년부터 1912년까지 총 1,435문의 38식 야포가 생산되었다. 이 야포는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접 사격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무기였다. 그러나 이미 러일전쟁부터 전방에 배치한 관측반을 활용한 간접사격 방식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으로 포병이 직접 사격을 하는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었다.

일본 육군은 제1차세계대전의 경험을 반영해 38식 야포를 현대화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38식 야포의 개량점은 발사각을 높여 간접사격에 용이하게 하고 제퇴 기구를 개선한 것이었다. 38식 야포의 개량은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오사카 조병창에서 이루어졌다. 추가로 1941~42년 사이에 비축물자로 있던 소수의 38식 야포가 개량되었다. 38식 야포는 추가 개조로 포의 양각이 크게 상승하고 사정거리가 증가했으나 주퇴복좌기와 포가의 구조적 결함이 증가했다. 양각을 35도 이상으로 할 경우 복좌기능이 크게 떨어져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웠다.

일본 육군은 구식화 되어가는 38식 야포를 대체하기 위해 90식 야포와 95식 야포를 잇따라 개발했으나 충분한 숫자를 생산하지 못했다. 일본 육군은 독일 육군과 미국 육군의 보병사단 편제의 영향을 받아 사단 포병을 105mm 곡사포와 150mm 곡사포 중심으로 개편하려 했으나 야포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75mm 구경 야포를 계속 사용할 수 밖

에 없었다. 일본의 공업 역량 부족으로 38식 야포는 1945년까지 일본 육군 보병사단의 표준 장비로 사용되었다.

38식 야포 제원

구분	38식 야포	
운용인원	7명	
구경	75mm	
포신길이	2.3m	
포구초속	38식	510m/s
	38식 개[改]	585m/saz
최대사거리	38식	8,350m
	38식 개[改]	11,550m
부양각	38식	-8°, +16.5°
	38식 개(改)	-8°, +43°
중량	38식	947kg
	38식 개(改)	1,135.kg
발사속도	38식	25발/분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114~115, 162~163쪽.

운 용

38식 야포는 일본제 무기이나 중일전쟁 이전부터 중화민국군에서 운용되었다. 만주 군벌 장쥘린(張作霖)은 38식과 38식(개)를 모두 구매했으며 셴양 조병창에서 38식 야포의 면허 생산도 실시했다. 1932년까지 셴양 조병창은 108문의 38식 야포를 생산했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해

만주국을 수립한 뒤 장쑤린의 셴양 조병창은 만주국이 접수하여 38식 야포 생산을 계속했다. 일본이 전쟁에 패망한 뒤 셴양 조병창은 소련이 접수했고 최종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인수했다. 중국 정부는 38식 야포를 비롯한 일제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 과거 셴양 등에 건설되어 있던 군수 공장을 사용했다. 포탄 및 주요 부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38식 야포는 성능이 우수한 소련제 야포가 대량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당시 일반적인 중공군 보병사단은 1개 포병대대에 총 12문의 38식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단포병대대는 3개 포대로 편성되었으며, 각 포대는 2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각 소대는 2문의 38식 야포를 보유했다. 중공군의 사단포병은 공격임무 수행시 유엔군과 국군 진지의 병력과 화기를 제압하고 진지에 대한 파괴사격과 보병공격을 지원했다. 38식 야포를 장비한 포병의 사격진지는 유엔군과 국군의 전연 2~4.5km 전방에 구축했다. 그러나 1950년 말~1951년 초 중공군 보병사단의 포병대대는 보급능력의 부족으로 38식 야포 1문당 20발의 포탄을 휴대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시 충분한 포격을 가할 수 없었다. 이 시기 중공군 사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은 통상 15~20분 정도였다.

중공군은 1951년 4월과 5월 공세에 실패하고 유엔군의 반격을 받아 퇴각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화포를 상실했으며, 특히 사단포병의 장비 손실이 극심했다. 이 과정에서 중공군 사단포병의 근간이었던 38식 야포의 상당수가 상실되었다. 1951년 9월 중공군의 장비 통계를 보면 총 120문의 38식 야포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8식 야포는 1951년부터 소련제 76.2mm M1942 사단포(ZiS-3)로 점진적으로 교체되었으나 7월 휴전시 까지도 사용된다. 중국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중공군은 6·25전

쟁 기간 중 총 58문의 38식 야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中國人民解放軍 華北軍區, 『野戰砲兵操典草案』(1950. 1)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연도미상)

张明金·刘立勤, 『中国人民志愿军 历史上的27个军』(北京: 解放军出版社,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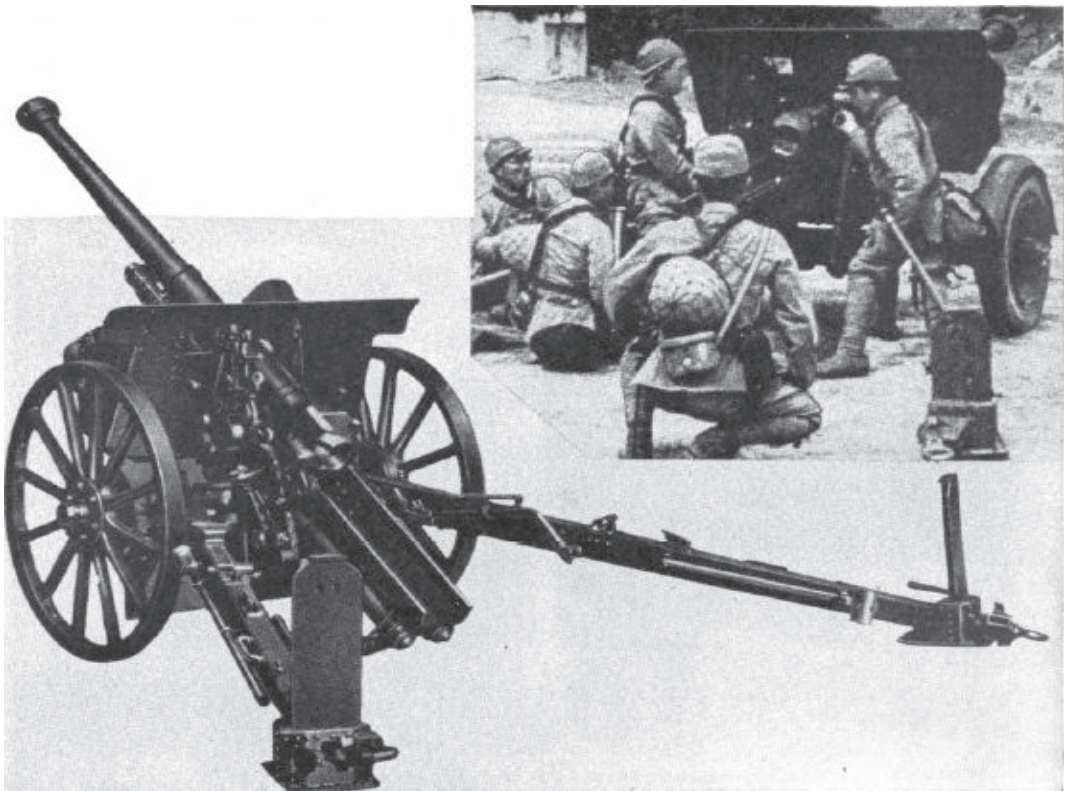


90식 야포

九〇式野砲

개요

90식 야포는 일본이 1930년대에 프랑스제 75mm 야포를 참고하여 생산한 75mm 구경의 야포이다. 38식 75mm 야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사용되었다. 일본이 패망한 뒤 중화민국 육군과 중국공산군이 국공내전에서 사용하였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군단급 포병부대에서 사용했다.



- 90식 야포와 이를 운용하는 일본군 포병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30-480, p.223.

연혁 및 제원

1927년 일본 육군은 프랑스 스나이더(Schneider)사가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한 75mm 야포와 105mm 야포를 시험하기로 결정했다. 스나이더의 75mm 야포는 1922년 프랑스 육군에 제안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이 야포는 최대 사거리가 12,000m에 달했고 방열시 무게는 1,635kg이었다. 한편 당시 오사카 포병공창에서도 독자적으로 38식 야포를 대체할 신형 75mm 야포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야포의 최대사거리는 13,000m에 달했고 방열시 무게는 1,450kg 이었다. 두 야포의 시험 평가는 1927년 4월에 있었다. 일본 육군은 스나이더의 75mm 야포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량이 무거운 점에 불만을 가졌다. 그 결과 스나이더사로부터 일부 부품에 대한 생산 면허를 얻어 오사카 포병공창이 개발한 75mm 야포에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이 야포는 90식 야포로 제식 채용되어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약 200문이 생산되었다. 일본 육군은 90식의 전투 중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1930년대 중반 95식 야포를 도입했으나 성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육군은 1940년부터 90식의 생산을 재개했다. 90식 야포는 1944년까지 생산되었다.

1931년에는 90식 야포를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가를 개량한 형식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 형식은 바퀴에 헨가장치를 추가하고 바퀴에 고무타이어를 사용했다. 1933년 6월 설계에 들어가 1935년 3월 23일 제식 채용되어 기동90식야포로 명명되었다. 기동90식야포는 1942년부터 일본 육군의 전차사단과 기동포병연대에 배치되었다. 총생산량은 일반 90식야포가 200여문, 기동90식야포가 600문으로 추정된다.

90식 야포는 일반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거리 1,000m에서 장갑 70mm를, 500m에서 장갑 80mm를 관통할 수 있었다. 텅스텐 탄자를 사용한 특수철갑탄을 사용하면 1,000m에서 85mm, 500m에서 100mm를 관통할 수 있었다.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화포 중에서 우수한 관통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전차포로 사용이 가능했다. 일본 육군은 이 포를 개량하여 전차포로 사용했다.

90식 야포 제원

구분	90식 야포
운용인원	7명
구경	75mm
포신길이	2.88m
포구초속	683m/s
최대사거리	13,890m
부양각	-8°~+43°
중량	1,400kg
발사속도	6~12발(분)
사용탄종	90식 유탄, 94식 유탄, 90식 철갑유탄, 38식 유산탄, 90식 유산탄, 90식 소이탄, 90식 조명탄, 90식 연막탄 등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12), 201~202쪽.

운 용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은 자신들의 점령 지역에 있던 일본군의 군수물자를 확보해서 활용했다. 일본군이 사용하던 90

식 야포도 대량으로 압류되어 국공내전에 사용되었다.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할 당시 사단 및 군급 야포의 대다수는 일본제 야포였다. 1951년 신정공세 당시 90식 야포의 배치 현황은 제39군이 8문, 제42군이 9문, 제1포병사단이 15문, 제9병단 직할대가 17문이었다. 이 중 상당수가 손실되어 중공군의 1951년 춘계공세인 제5차 전역 당시에는 병단 이하의 독립포병부대에 9문이 남아있었다. 1951년 9월 중공군의 장비 통계를 보면 총 49문의 90식 야포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90식 야포는 1951년 이후에도 중공군의 중요한 포병전력으로 활용되었다. 1952년의 소위 ‘상감령’ 전역 당시 중공군 제15군에 배속된 포병집단 중 1개 포병연대(36문)가 90식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측은 상감령 전역에서 90식 야포를 집중 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한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총 13문의 90식 야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12)
 聂济峰·聂昭华·李韧, 『上甘岭: 攻不破的东方壁垒』,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18)
 吴清丽·王计昌 主编, 『出奇制胜: 军事院校详解人民军队实战案例 抗美援朝卷』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7)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 (연도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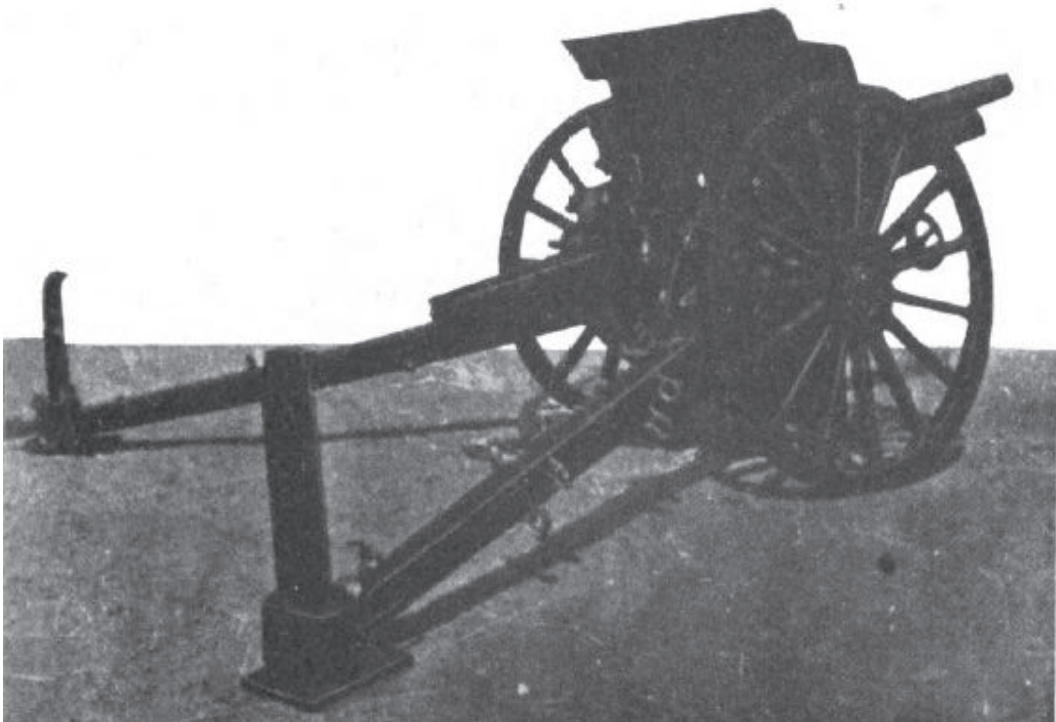


95식 야포

九五式野砲

개요

95식 야포는 일본이 1930년대에 개발하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사용한 75mm 구경의 야포이다. 38식 75mm 야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일본이 패망한 뒤 중화민국 육군과 중국공산군이 국공내전에서 사용하였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 군단 직할 포병연대들이 사용했다.



- 95식 야포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30-480, p.224.

연혁 및 제원

일본육군은 1930년에 프랑스 스나이더사의 75mm 야포의 기술을 채용한 90식 야포를 38식 야포의 대체 장비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 야포는 일본 육군이 사단 단위에서 운용하기에는 중량이 무겁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때문에 90식 야포는 1935년 생산이 중단되었다. 일본 육군은 38식 야포를 대체할 신형 75mm 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신형 75mm 야포의 요구조건 중 핵심은 90식 보다 가벼운 전투 중량을 확보하는 것 이었다. 신형 75mm 야포는 95식으로 제식채용되었다. 이 야포는 38식 야포와 동일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90식 야포에 비해 유효사정거리가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육군은 다시 90식 야포의 생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95식 야포는 총 320문이 생산된 뒤 단종되었다.

95식 야포 제원

구분	95식 야포
운용인원	7명
구경	75mm
포신길이	2.32m
포구초속	520m/s
최대사거리	10,700m
부양각	-8°~+43°
중량	1,108kg
발사속도	10~12(분)
사용탄종	94식 유탄, 95식 피갑유탄, 97식 강성총류탄, 38식 유산탄, 90식소이탄, 90식 조명탄, 90식 연막탄 등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254~255쪽.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은 자신들의 점령 지역에 있던 일본군의 군수물자를 확보해서 활용했다. 항복한 일본군으로부터 압류한 95식 야포 중 일부는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사용했다. 1951년 중공군의 신정공세 당시 제39군이 3문, 제42군이 1문, 제1포병사단이 3문의 95식 야포를 운용했다. 중공군의 장비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극소수였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총 4문의 95식 야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佐山 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
 (연도미상)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76.2mm 사단포 M1942(ZiS-3)

개요

76.2mm 사단포 M1942(ZiS-3)은 소련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개발해 배치한 사단포병연대의 주력 야포이다. 6·25전쟁 기간 중 북한군 사단 포병의 주력 장비였다. 1951년 하반기 이후 중공군 사단포병의 주력 장비가 되었다.



- 1950년 8월 포항 근교에서 국군이 노획한 76.2mm 사단포 M1942를 시찰하는 미해군 장교들.
- 출처 : RG80, National Archives

소련은 1940년부터 사단 포병연대의 주력 야포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76.2mm 구경의 야포에 대한 소요를 제기했다. 이 야포의 개발은 독일의 소련 침공 직전인 1941년 5월 설계자 그라빈(B. G. Grabin)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그라빈은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76.2mm F-22USB 사단포의 구조를 답습하고 포가는 57mm ZiS-2 대전차포의 것을 유용했다. F-22USB 사단포와 달리 포구에 제퇴기를 달아 반동을 억제했다. 전반적으로 F-22USB 사단포에 비해 구조가 간소화 되어 있어 대량생산에 용이했다. 이 포의 가격은 F-22USB 사단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독일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소련군이 막대한 인명 및 장비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야포의 대량 생산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그라빈과 92호 공장 운영진은 독자적으로 ZiS-3 사단포의 양산을 시작했다. 소련군은 처음에 92호 공장이 독자적으로 양산 결정을 내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ZiS-3의 인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전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련 국방위원회는 ZiS-3의 양산을 승인했다.

ZiS-3의 공식 사격 시험은 양산이 시작된 이후인 1942년 2월 초에 있었다. 이 때문에 양산은 1941년에 시작되었으나 제식명은 1942년형 76mm 사단포(76-mm Divizionnaia Pushka obr 1942g.)가 되었다. ZiS-3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48,000문이 생산되었다. 포병연대에서 곡사포로 운영되었지만 강한 관통력을 가져 대전차전 임무에도 사용되었다. 53-BR-354P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300m 거리에서 105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고 500m 거리에서 9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군의 주력 전차였던 3호전차와 4호전차를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위력이었다. 53-OF-350 고폭

탄을 사용할 경우 75cm 두께의 벽돌벽이나 2m 두께의 흙벽을 파괴할 수 있었다.

76.2mm 사단포 M1942 제원

구분	76.2mm 사단포 M1942
운용인원	7명
구경	76.2mm
포신길이	3.4m
포구초속	m/s
최대사거리	13,290m
부양각	-5°~ +37°
중량	1,116kg
발사속도	25발(분)

- 출처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15.

운 용

76.2mm 사단포 M1942(ZiS-3)는 북한군 보병사단 포병연대의 주력 장비였다.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의 보병사단 포병연대는 76.2mm 사단포 24문과 122mm M-30 곡사포 12문을 장비했다. 76.2mm 사단포는 편제상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보병사단 포병연대의 105mm 곡사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장비였다. 마찬가지로 122mm M-30 곡사포도 편제상 다른 국가의 155mm 곡사포에 대응하는 장비였다. 제2차세계대전 시기 소련군의 보병사단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보병사단 포병연대에 비해 한등급 낮은 야포를 장비했다. 북한군은 소련군

편제를 모방해 조직되어 동일한 포병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군 보병사단 포병연대 예하의 포병대대는 76.2mm 사단포 2개 중대와 122mm M-30 곡사포 1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6·25전쟁 발발 직전 북한군은 총 298문의 76.2mm 사단포를 보유했으며 이 중 234문이 야전부대에, 60문은 해군에, 4문은 예비물자로 있었다.

1950년 6월 개전 직전 북한군 보병사단 예하에는 3개 포병대대가 있었다. 3개 포병대대는 76.2mm 사단포 2개 중대와 122mm 곡사포 1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76.2mm 사단포 중대는 2개의 화력소대로 편성되었고 각 화력소대는 2문의 76.2mm 사단포를 장비했다. 1948년 간행된 북한군 『포병교범』은 76.2mm 사단포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6mm 대포들은 노출되었거나 강한 음폐부내에 있는 보병의 화력 기재와 유생역량을 소멸, 철갑차와 전차 소멸, 포병 압도, 곡사포와 박격포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철조망 파괴, 강한 종류의 음폐부와 토목급 영구화점의 포문들을 격파한다.”

개전 초기 북한군 포병은 숫적 우위와 전술적 기습 성공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을 투입한 포천-의정부 축선에서 한국군 제7사단의 방어 거점을 격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견인식 포를 운용하는 포병부대들은 전차와 보병부대의 진격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군 제4보병사단장은 포병연대의 ZiS-3 사단포를 차출해 보병 및 전차를 동행하며 직접 사격으로 화력을 지원하도록 했다. 북한군은 이러한 방식으로 ZiS-3 사단포를 운용해 서울 전투에서 국군의 방어거점을 직접 사격으로 격파했다. 북한군의 한강도하 작전시에도

ZiS-3 사단포 다수가 직접조준사격 임무에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4보병사단은 ZiS-3 사단포 12문을, 제3보병사단은 8문을 도하하는 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직접조준사격에 사용했다. 북한군은 이러한 포병 운용으로 도하작전을 성공시키고 한강 남안의 국군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

유엔군이 참전한 뒤 제공권이 장악당하자 북한군 포병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은 주간에 북한군의 포병진지를 타격하고 보급을 차단했다.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31문의 ZiS-3 사단포를 잃었는데 이 중 26문이 유엔군 항공기의 공격으로 파괴된 것이었다. 낙동강 방어전시 북한군 포병은 다수의 야포를 상실한 것은 물론 포탄 보급이 부족해 유효한 전력이 되지 못했다. 북한군은 1950년 9월부터 11월의 후퇴 시기에 야포를 비롯한 중장비를 대부분 상실하였다. 1951년 상반기 까지도 북한군 포병은 재건되지 못한 상태였다. 1951년 4월 1일 기준으로 민족보위성 산하 포병부대의 편제상 76.2mm 사단포 보유량은 360문이었으나 실제 보유량은 48문에 불과했다. 한편 이시기 북한군 포병 편제의 개편으로 보병사단 포병연대는 76.2mm 사단포를 장비한 1개 야포대대, 122mm 곡사포를 장비한 1개 곡사포대대, 산포를 장비한 1개 산악포대대로 개편되었다.

북한 해군의 해안포 부대도 76.2mm 사단포를 사용했다. 이 포는 직사 화기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안포로 운용하는데도 적합했다. 원산항 일대의 방어를 담당한 북한 해군 제2위수사령부 예하의 해안포병연대(통칭 제588부대)는 총 3개 대대로 편성됐다. 해안포병대대는 육군의 포병대대와 동일한 편제로 편성되었다. 해안포병중대는 4문의 76.2mm 사단포를 장비했다. 76.2mm 포는 구축함 이하의 소형 함정을 대상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3인치 이하의 함포를 장비한 함선은 76.2mm 사단포의 직

사 사거리 내에서 작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형함정에 비해 취약했다.

76.2mm 사단포는 1950년 참전한 중공군에서도 사용되었다. 중공군은 참전 초기 일본제 38식 야포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점차 소련에서 도입한 76.2mm 사단포로 교체해 나갔다. 1951년 중공군의 신정공세 당시 중국 제66군이 76.2mm 사단포를 처음 사용했다. 1951년 3월부터 소련에서 공급된 장비가 도착하면서 재정비를 위해 후방으로 이동한 사단들이 사단 포병대대의 야포를 76.2mm 사단포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예를들어 중공군 제38군 예하의 3개 보병사단은 1951년 4월 76.2mm 야포를 공급받았다. 1951년 6월 이후 공산군이 방어태세에 돌입하면서 재정비를 받은 사단이나 중국 본토에서 순환 투입된 사단들은 사단당 12문의 76.2mm 사단포를 장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군단 포병 부대 중에도 76.2mm 사단포를 장비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1952년의 소위 '상감령 전역' 당시 중공군 제60군 캐논포연대 예하의 2개 포병대대가 76.2mm 사단포를 장비하고 전투에 투입되었다.

중공군의 편제에서 소련제 야포의 도입이 증가하면서 76.2mm 사단포는 중공군의 주력 화포가 되어 갔다. 1951년 9월 중공군의 장비 통계를 보면 총 260문의 76.2mm 사단포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중공군이 보유한 구경 75mm 이상의 야포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였다. 중국 정부는 야포를 현대화 하고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 1951년부터 소련으로부터 1,452문의 야포를 도입했다. 1951년 12월에는 중공군이 사용한 야포의 59.7%가 소련제였으며, 휴전 직전인 1953년 7월에는 69.5%가 소련제였다. 1953년 7월 금성돌출부 전투 당시 중공군은 총 98문의 76.2mm 사단포를 투입했으며 전투기간 중 51,39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총 61문의 76.2mm 사단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 조선인민군총참모부 포병참모부, 『포병교범』(1948)
- 민족보위성 포병지휘국, 『포병전투규정』(1949)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 War Department, *Handbook on USSR Military Forces*(1946. 3)
-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연도미상)
- 张明金·刘立勤, 『中国人民志愿军 历史上的27个军』(北京: 解放军出版社, 2014)
- 박희성, 『6·26전쟁 초기 북한 해군의 해안방어 작전: 원산 제588군부대 작전을 중심으로』, 『史叢』 98(2019. 9)



14식 77mm 야포

개요

14식 77mm 야포는 중국 쉐양 조병창이 오스트리아 빌러(Böhler)사의 76.5mm M18 야포를 면허 생산하면서 개량한 것이다. 국공내전 당시 중화민국군과 공산군 양측이 사용했으며 6·25전쟁시 중공군이 소수 운용하였다.

연혁 및 제원

오스트리아의 빌러사는 191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육군의 신형 야포로 76.5mm 구경의 야포를 개발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육군은 이 포를 시험한 뒤 1918년 정식으로 채용하고 8cm 야포 M18(8cm Feldkanone M18)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빌러사는 이 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구경을 83.5mm로 확대한 포를 개발했으나 완성하지는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오스트리아 육군과 헝가리 육군이 이 야포를 계속 사용했다. 헝가리 육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포를 소수 사용했다.

봉천 군벌 장쥘린 소유의 중국 쉐양 조병창은 1922년 빌러사로부터 생산면허와 공작기계, 부품을 구입했다. 쉐양 조병창은 포의 구경을 77.7mm로 늘린 형식을 14식 77mm 야포라는 이름으로 생산했다. 쉐양 조병창은 약 300문의 14식 77mm 야포를 생산했다.

14식 77mm 야포 제원

구분	14식 77mm 야포
구경	77mm
포구초속	529m/s
최대사거리	11,000m
부양각	-8°~+45°
중량	1,350kg

운 용

셴양 조병창이 생산한 300문의 14식 77mm 야포는 1932년 일본의 만주 침공 당시 상당수가 상실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중국 관내로 철수해 중화민국 중앙군이 사용하였다. 중화민국 중앙군이 사용하던 14식 77mm 야포는 국공내전 중 대부분 중공군에 노획되었다. 중공군의 신정 공세 당시 중공군 제66군이 3문의 14식 77mm 야포를 운용했다.

참고문헌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M2A1 105mm 곡사포

105mm Howitzer, M2

개요

M2A1 105mm 곡사포는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보병사단 포병연대의 주력으로 사용한 곡사포이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렌드리스를 통해 중화민국 육군에 대량으로 지원되었다. 국공내전 기간 중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 양측이 운용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은 이 곡사포를 병단 직할 독립포병사단의 제식장비로 운용했다.



- 국공내전 당시 M2A1 105mm 곡사포를 사격하는 중공군 포병
- 출처 : 해방군화보사

연혁 및 제원

M2 곡사포는 미국에서 1932년에 개발되었으나 실제 양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인 1941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전쟁 중 8,500여문이 생산된 M2 곡사포는 미 육군이 가장 널리 사용한 화포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미군의 각 보병사단은 M2 곡사포를 장비한 3개 포병대대를 두어 예하 보병연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편제를 조직해, 전쟁 중 200여 개 포병대대가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활약했다.

M2 곡사포는 M1 고폭탄(HE)을 주로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M67 대전차예광고폭탄(HEAT-T), M84 연막탄, M60 백린연막탄(WP) 등을 사격할 수 있었다. 고폭탄을 사격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11.2km였다. 강력한 고폭탄 능력과 신속한 방열 등으로 야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에 제2차 세계대전 말에는 M7 자주곡사포나 M4 ‘셔먼’ 전차의 주포로도 탑재되어 자주화되었다. 1941년부터 1953년까지 총 10,200문이 생산되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까지 미 육군의 주력 화포로 운용되었으며, M119 곡사포의 도입으로 1989년에 퇴역했다. 1962년에 ‘M101 곡사포’로 재명명되었다.

M2 105mm 곡사포 제원

전장	600cm	전고	173cm
전폭	214cm	중량	2,260kg
발사각	-5 ~ 66°	사격속도	분당 2~4발
사거리	11,270m	조작인원	명

- 출처 : Steven J. Zaloga, *US Field Artillery of World War II*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7)

1942년 중화민국 정부는 육군의 30개 사단을 현대화 하기 위해 미국 으로부터 360문의 105mm 곡사포 M2A1을 지원받는다 는 계획을 세웠 다. 중국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국 정부는 1942년 하반기에 218문의 105mm 곡사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43년에 추가로 동형의 곡사 포 258문이 지원되었다. 1945년 2월 레도-버마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중공군에 대한 105mm 곡사포 지원이 가속화 되었다.

중공군은 국공내전 중 이 포를 대량으로 노획하여 사용했다. 6·25전 쟁에 투입된 중공군은 105mm 곡사포 M2A1을 병단 예하 독립포병부대 의 장비로 운용하였다. 1951년 중공군의 신정대공세에서 제2포병사단이 36문의 105mm 곡사포 M2A1을 운용했으며 제9병단도 동형의 곡사포 36문을 사용했다. 1951년 중공군의 신정대공세 당시 제9병단 예하 M2A1 곡사포 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되었다. 각 대대는 3개 포대로 편 성되었다. 각 포대는 4문의 M2A1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각 포대는 견인 및 탄약 수송을 위해 9대의 트럭을 보유하고 있다.

1951년 4월의 춘계대공세 당시에는 동형의 곡사포가 최소 117문이 사 용된 것이 확인된다. 5차 전역 이후 중공군의 장비 보유량을 보면 M2A1 곡사포를 총 230문 보유한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기존에 렌드 리스로 지원받은 수량에 전쟁 중 노획한 것을 합한 것이다. 소련 군사 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51년 상반기에 북한군과 중 공군은 곡사포를 비롯한 다수의 노획 중장비를 수리하여 일선 부대에 배치했다.

1951년 하순 이후 작전의 양상이 고지쟁탈전으로 변화하면서 소련제 76.2mm 사단포에 비해 고퍍탄 위력이 우수하고 사정거리가 긴 M2A1

곡사포의 활용이 많아졌다. 미 제1군단이 1951년 9월 공산군의 포격 양상을 분석한 결과 공산군이 가장 많이 발사한 화포는 105mm 구경의 곡사포였다. 1952년의 소위 '상감령' 전역 당시 중공군 제2포병사단 제28포병연대가 M2A1 곡사포를 장비하고 투입되었다. 중공군의 마지막 공세 작전인 1953년 7월 금성전역에는 중공군 제20병단이 총 84문의 M2A1 105mm곡사포를 투입했으며 총 6,682발의 105mm 포탄을 발사했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총 64문의 M2A1 곡사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 I U.S. Corps Command Report Sep 1951, G2 Section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 (연도미상)
聂济峰·聂昭华·李韧, 『上甘岭: 攻不破的东方壁垒』,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18)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14식 10cm 유탄포

개 요

14식 10cm 유탄포는 중화민국 육군이 채용한 곡사포이다. 국공내전 이후 중공군이 사용했으며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소수 운용하였다.

연혁 및 제원

봉천 군벌 장쥘린 소유의 중국 셴양 조병창은 1922년 체코슬로바키아 슈코다사의 100mm M14 곡사포의 포신을 수입했다. 셴양 조병창은 오스트리아 빌러사의 M18 야포의 포가와 슈코다 M14곡사포의 포신을 결합해 14식 10cm 유탄포를 생산했다. 일본 육군도 이 포를 노획하여 오사카 조병창에서 60문을 개조했다. 일본제 105mm 포탄과 장약을 사용했을 때 최대 사거리는 7,800m였다.

14식 10cm 유탄포 제원

구분	※개조 14식 10cm 유탄포
구경	105mm
최대사거리	7,800m
부양각	-8°~+44°
중량	1,350kg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269~270쪽.

※ 일본군이 노획해 개조한 포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군이 사용한 것과 제원에 일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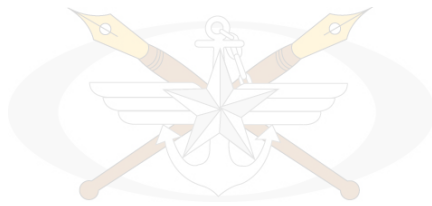
운 용

중공군의 신정공세 당시 중공 제66군이 3문의 14식 10cm 유탄포를 운용했다.

참고문헌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
(연도미상)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Solihull:
Helion, 2016)





91식 10cm 유탄포

九一式十糎榴彈砲

개요

91식 10cm 유탄포(九一式十糎榴彈砲)는 일본 육군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사용한 구경 105mm 곡사포이다. 국공내전 당시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 양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6·25전쟁에서도 중공군이 군 및 병단급 포병부대의 제식 장비로 사용했다.



- 91식 10cm 유탄포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p.225.

연혁 및 제원

일본 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각국의 육군의 야포가 대구경화되는 경향을 파악하고 105mm 구경의 곡사포를 개발해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927년 105mm 곡사포 개발이 시작되었다. 후보 대상은 프랑스 스나이더사가 개발한 105mm 곡사포와 일본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105mm 곡사포였다. 시험 평가 결과 일본에서 개발한 105mm 곡사포의 시제품은 스나이더의 105mm 곡사포에 비해 압도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육군은 스나이더의 105mm 곡사포를 채용하는 대신 전투중량을 200kg 줄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스나이더사가 일본 육군의 요구사항에 따라 경량화에 성공하자 이 곡사포는 1928년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제식 명칭을 부여받은 것은 3년 뒤인 1931년이였다. 일본 육군은 신형 곡사포를 91식 10cm 유탄포로 명명하고 양산을 시작했다.

91식 10cm 유탄포의 초기 생산분은 프랑스의 스나이더사에서 담당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90식 75mm 야포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91식 10센티 유탄포를 생산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육군은 1930년에 30문, 1931년에 24문, 1933년에 6문, 1934년에 13문을 주문했다. 스나이더사는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일본 육군에 제공할 91식 10cm 유탄포를 생산했다. 이후 91식 10cm 유탄포는 일본 내에서 생산되었다. 부대 배치는 1936년부터 시작되었다.

스나이더사가 이 포를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말로 견인할 것을 고려하고 개발했으나 일본 육군이 채용하면서 차량 견인도 가능하도록 개량되었다. 그러나 일본 육군의 차량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마필 견인용으로 만들어졌고 차량 견인용은 소수만 생산되었다. 이 점을 제외

하면 스나이더사가 처음 제시한 시제품과 거의 동일했다. 91식 10cm 유탄포는 일본군 보병사단 예하 포병연대의 주력 장비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고폭탄, 철갑고폭탄, 대전차고폭탄 등 다양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반기에 91식 10cm 유탄포용으로 개발한 대전차고폭탄을 사용할 경우 120m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었다.

91식 10cm 유탄포 제원

구분	91식 10cm 유탄포
구경	105mm
포신길이	2.09m
포구초속	454m/s
최대사거리	10,800m
부양각	-5°~+45°
중량	1,500kg
사용탄종	14년식 강성선류탄, 91식 강성선류탄, 14년식 유탄, 91식 유탄, 95식 유산탄, 95식 소이탄 등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299~300쪽.

운 용

1951년 공산군의 신정공세 당시 중공 제42군, 제1포병사단, 제26군, 제27군, 제66군이 91식 10cm 유탄포를 운용했다. 1951년 9월 중공군의 장비 보유 통계를 보면 총 58문의 일제 105mm 곡사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91식 10cm 유탄포는 소련제 122mm 곡사포가 대량으로 도입되면서 점차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중공군이 보유한 수량이 상

당했기 때문에 전쟁 말기까지도 군단급 이상의 독립포병부대에서 사용되었다. 1952년 소위 ‘상감령’ 전역 당시 투입된 중공군 포병 제2사단 28 연대의 1개 대대가 91식 10cm 유탄포를 장비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총 14문의 91식 유탄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 中國人民解放軍 華北軍區, 『野戰砲兵操典草案』(1950. 1)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砲 山砲: 日本の陸戰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연도미상)
- 黄毅, 『中国人民志愿军后勤史』, (北京: 金盾出版社, 1991)
-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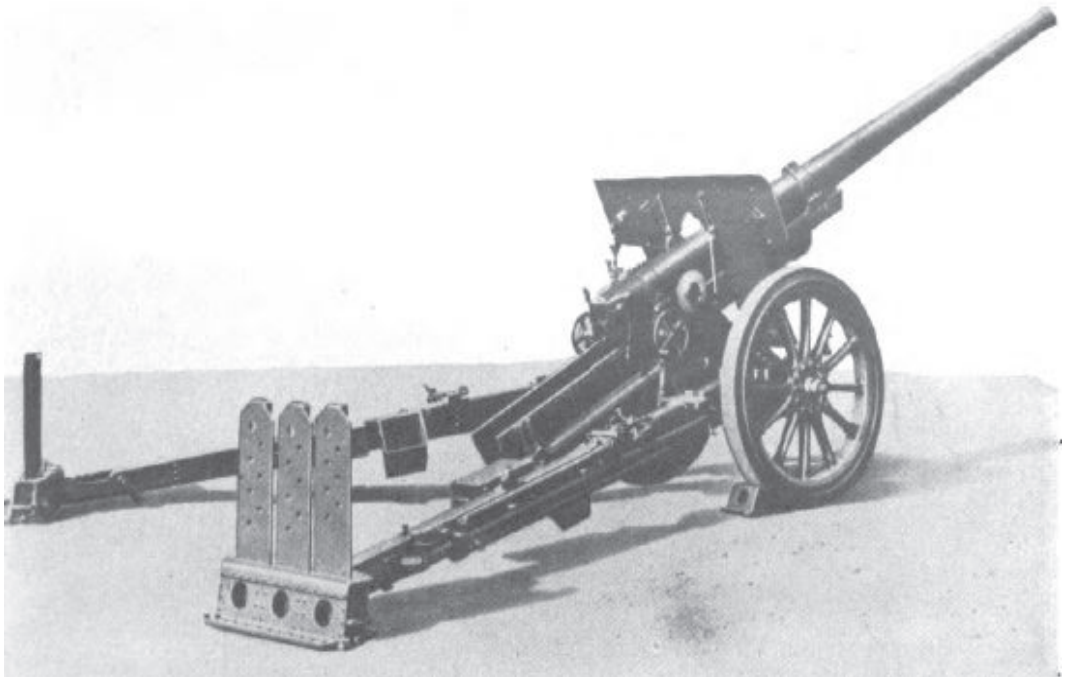


92식 10cm 캐논포

九二式十糶加農砲

개요

92식 10cm 캐논포(九二式十糶加農砲)는 일본 육군이 1930년대에 개발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사용한 105mm 구경의 야포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중국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이 사용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 제13병단 예하 제2포병사단이 이 포를 소량 사용했다.



- 92식 10cm 캐논포
- 출처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30-480, p.226.

연혁 및 제원

일본 육군은 14식 10cm 캐논포를 대체하기 위해 1924년 신형 캐논포의 소요제기를 했다. 일본육군은 1927년 프랑스의 스나이더사와 105mm 야포와 155mm 곡사포의 시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시제품은 1927년에 완성되었다. 일본 육군은 요구사항을 몇가지 변경했다. 이 중에는 최대 사거리를 15,000m에서 17,500m로 늘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결과 1932년에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1934년에는 포신 길이를 연장했다. 1935년 일본 육군은 신형 105mm 야포를 92식 10cm 캐논포라는 명칭으로 도입했다.

초기에 생산된 92식 캐논포들은 제퇴기구의 문제로 장약을 최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사거리가 13,000m로 제한되었다. 1939년에 있었던 노몬한 전투에서도 이로 인한 사거리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문제는 1940년 생산분부터 해결되었다.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100m 거리에서 175mm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었다. 일본 육군은 이 포를 군 직할의 독립중포병대대에 편제하여 운용했다.

92식 10cm 캐논포 제원

구분	92식 10cm 캐논포
운용인원	명
구경	105mm
포신길이	4.72m
포구초속	765m/s
최대사거리	18,200m
부양각	-5°~+45°
중량	3,742kg
발사속도	6~8(분)
사용탄종	92식 유탄, 95식 피갑유탄, 95식 소이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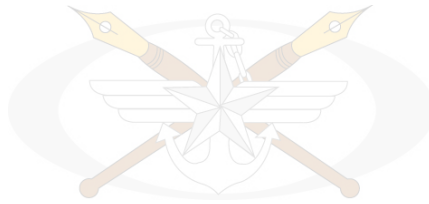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戦重砲・騎砲 他—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120~121쪽.

운 용

중공군은 6·25전쟁 참전 초기 일본제 야포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92식 10cm 캐논포를 일본 육군과 마찬가지로 독립 포병부대에서 운용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제13병단 직할 제2포병사단은 1951년 1월 6일 92식 10cm 캐논포 8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총 6문의 92식 캐논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戦重砲・騎砲 他—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12)
-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 (연도미상)
- 黄毅, 『中国人民志愿军后勤史』, (北京: 金盾出版社, 1991)





122mm 곡사포 M1938(M-30)

개요

122mm 곡사포 M1938(122-mm Gaubitsa obraztsa 1938.g)은 소련 육군이 독소전쟁 직전 채용한 사단 포병연대의 주력 곡사포이다. 1940년부터 1955년 까지 19,266문이 생산되었다.



- 육군박물관에 전시중인 122mm 곡사포. 1950년 9월 국군이 안강지구에서 반격작전을 전개하던 중 노획한 장비이다.
- 출처 : 저자

연혁 및 제원

소련군은 1920년대 말부터 제정 러시아 시기에 개발된 사단 포병용 곡사포를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독일 크루프(Krupp)가 설계한 122mm M1909와 프랑스 스나이더(Schneider)가 설계한 122mm M1910은 1920년대로 들어서면서 성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소련 육군은 1930년에 M1910의 현대화 개수를, 1937년에 M1909의 현대화 개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구식 곡사포의 최대 사정거리를 연장할 수 있었다.

소련 육군은 1929년 8월 11일 신형 곡사포를 개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소련의 중화기 개발 역량 부족으로 독일 기술자가 참여한 설계팀이 신형 122mm 곡사포를 설계했다. 이 포는 122mm 곡사포 M-1934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 포는 포가가 일체형인 구식 설계를 가지고 있었고 고무 타이어가 없는 철제 바퀴를 달고 있어 견인할 때 속도가 느렸다. 또한 당시 소련의 공업 수준으로 양산하기에는 복잡하고 부담이 가는 구조라는 점도 제기되었다. 이런 결점 때문에 1934년부터 1935년까지 소량 생산된 시제품을 시험한 뒤 양산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신 1930년에 현대화 개수를 실시한 M1910/1930을 추가로 생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련 육군은 1937년 재차 신형 122mm 곡사포 개발에 착수했다. 페트로프(F. F. Petrov)가 이끄는 설계팀은 M-30이라는 설계안을, 그라빈(V. G. Grabin)이 이끄는 설계팀은 F-25라는 설계안을, 우랄중공업은 U-2라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중 최종적으로 M-30이 채택됐다. M-30의 첫 시제품은 1938년 3월 31일 완성됐다. 이후 몇가지 개량을 반영한 시제품이 1938년 12월 22일 시험을 받았다. 이 시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뒤 1939년 8월 최종 시험이 실시되었다. 소련 육군은 1939년 9월 29일 M-30을 122mm 곡사포 M1938이라는 명칭으로 제식 채용했다.

122mm 곡사포 M1938의 양산은 1940년부터 92호 공장과 9호 공장에서 시작되었다. 이 곡사포는 1955년까지 생산되었다. 122mm 곡사포 M1938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소련군 보병사단 포병연대의 핵심 화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22mm 곡사포 M1938 제원

구분	122mm 사단포 M1938
운용인원	8명
구경	122mm
포신길이	2.8m
포구초속	515m/s(고폭탄+4단 장약 기준)
최대사거리	11,800m
부양각	-3°~+63.5°
중량	2,450kg
발사속도	5~6발(분)

- 출처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17.

운 용

소련군은 1949년 3월 말 북한 제1군관학교 포병부에 교육용으로 122mm 사단포를 제공했다. 1949년 4월 22일에는 김일성이 참석한 가운데 122mm 사단포의 사격 시범이 있었다. 이후 1949년 7월 25일 송악산 488고지 전투에서 38선 경비여단이 122mm 사단포의 지원을 받으

며 국군을 압도했다. 1950년까지 북한군 보병사단들은 1개 포병연대에 총 12문의 122mm 사단포를 장비했다.

1948년 간행된 북한군 『포병교범』은 122mm 사단포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22~152mm 곡사포들은 노출되었거나 음폐부내에있는 화력기재와 유생역량을 소멸, 토목 화점과 기타 야외 건물 파괴, 박격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철조망에 도로 관통 급 참호 파괴, 반전차지뢰구역에 도로 관통, 철갑차, 전차 급 포병과의 투쟁.”

북한군의 『포병교범』이 명시하고 있듯 122mm 사단포는 76mm 사단포가 사정거리 및 고폭탄 위력 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적이 구축한 장애물 지대와 지뢰 지대 돌파를 위해 포격으로 돌파구를 여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은 총 108문의 122mm 사단포를 투입했다. 개전 당시 북한군 사단은 대부분 122mm 사단포를 편제대로 12문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12사단은 포병연대에 122mm 사단포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개전 초기 북한군은 122mm 사단포의 사정거리와 화력을 살려 국군의 포병을 압도했다. 북한군은 국군의 요새화된 거점이나 화기 진지를 격파하기 위해 122mm 사단포의 직접사격을 실시하는 등 이 포를 과감하게 운용하였다. 북한군 제4보병사단과 제3보병사단의 한강 도하 작전시에는 122mm 사단포 12문이 직접조준사격에 투입되어 한강 남안의 국군 거점을 제압했다.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21문의 122mm 사단포를 상실했다. 이 중 19문이 유엔군 항공기의 공격으로 상실한 것이었다.

북한군은 1950년 9월부터 1950년 11월의 퇴각 시기에 중화기를 대부분 상실했다. 소련은 1950년 말부터 북한군을 재건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했으나 1951년 상반기 까지도 북한군 포병을 비롯한 각급 부대는 편제를 완료하지 못했다. 1951년 4월 1일 기준으로 민족보위성 산하 포병부대의 편제상 122mm 곡사포 보유량은 288문이었으나 실제 보유량은 119문에 불과했다. 한편 이시기 북한군 포병 편제의 개편으로 보병사단 포병연대는 76.2mm 사단포를 장비한 1개 야포대대, 122mm 곡사포를 장비한 1개 곡사포대대, 산포를 장비한 1개 산악포대대로 개편되었다.

중공군도 소련에서 야포를 도입하면서 122mm 곡사포 보유량을 늘려나갔다. 1951년 9월 기준으로 중공군은 94문의 122mm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모두 군단급 이상의 독립 포병대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소련의 군사원조가 증가하면서 122mm 곡사포는 중공군의 병단 예하 독립 포병사단의 주력 화포가 되었다. 122mm 곡사포를 장비한 포병사단은 총 3개 포병연대로 구성되었다. 각 연대는 다시 3개 포병대대로 구성되었고 각 대대는 3개 포대로 이루어졌다. 각 포대는 2개의 화력소대로 구성되었다. 화력소대는 각각 2문의 122mm 곡사포를 장비했다. 중공군의 독립포병사단은 108문의 122mm 곡사포를 장비했다. 또한 1952년 하반기 이후 부터 중공군 보병사단에 사12문으로 편성된 122mm 곡사포 1개 대대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6·25전쟁 휴전시까지 모든 사단이 122mm 곡사포를 지급받지는 못했다.

1952년 이후 122mm 곡사포는 중공군 독립포병사단의 주력 화포가 되었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총 33문의 122mm 곡사포를 상실했다. 6·25전쟁 당시 국군이 노획한 122mm 곡사포 M1938 1문이 서울시 육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 민족보위성총참모부, 『1938년식 122mm 곡사포 사격일람표』(1949)
- 민족보위성 포병지휘국, 『포병전투규정』(1949)
- 조선인민군총참모부 포병참모부, 『포병교범』(1948)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 War Department, Handbook on USSR Military Forces(1946. 3)
-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연도미상)
- 聂济峰·聂昭华·李韧, 『上甘岭: 攻不破的东方壁垒』,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18)
- Li Chen, 'From Civil War Victor to Cold War Guard: Positional Warfare in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1951-1953'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8-1&2, 2015



122mm 군단포 M1931/1937(A-19)

개요

122mm 군단포 M1931/1937(122-mm Korpysnaia Pushka obr. 1931/1937 gg.(A-19))은 소련 육군이 1930년대에 개발한 직사포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군단급 독립포병연대에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연혁 및 제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군은 120mm 해안포를 지상용으로 사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소련 육군은 이 당시의 전훈을 바탕으로 지상전에 사용할수 있는 동급의 직사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련 육군은 1927년 122mm 직사포에 대한 소요를 제기했다. 선행 연구를 거쳐 1929년 6월 17일 페름 조병창이 122mm 직사포 시제품 개발 임무를 맡았다. 첫 번째 시제품은 1931년 10월 육군의 시험을 받았다. 육군은 추가로 설계 변경을 요구했으며 38호 공장 설계국이 시제품의 개량 임무를 맡았다. 1933년 시제품은 A-19로 명명되었다. 1933년 스탈린그라드에 위치한 바리카디 공장이 3문의 시제품을 생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소련 육군은 1935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추가로 시험을 실시한 뒤 122mm 군단포 M1931을 정식 채용해도 괜찮다는 평가를 내렸다. 1935년 겨울에 혹한기 시험을 실시한 뒤 1936년 3월 16일 소련군의 정식 장비로 채용했다.

122mm 군단포 M1931/1937(A-19) 제원

구분	122mm 군단포 M1931/1937(A-19)
운용인원	9명
구경	122mm
포신길이	5.6m
포구초속	806m/s
최대사거리	20,400m
부양각	-2°~+65°
중량	7,117kg
발사속도	3~4발(분)

- 출처 : Ivanov, A., Artiller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23.

운 용

6·25전쟁 발발당시 북한군 제17포병연대가 24문의 122mm A-19 군단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군단포는 1개 포병중대 당 4문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제17포병연대에는 총 6개의 군단포 중대가 있었다. 1950년 6월 개전 당시 북한군 제17포병연대는 3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었다. 각 대대는 3개 중대로 구성되었는데 1중대와 2중대는 122mm A-19 군단포 중대였고, 3중대는 122mm 곡사포 M1938 중대였다. 각 중대는 2개의 화력소대로 편성되었으며 각 화력소대는 2문의 122mm A-19 군단포를 장비하고 있었다.

제17포병연대의 122mm A-19 군단포는 사단 포병화력으로 제압이 어려운 목표와 대포병사격을 전담했다. 전쟁 초기에는 국군의 포병 화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포병 운용능력 부족으로 대포병사격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미국 육군이 투입된 이후에는 미군의 강력한 항공력과 포병에 압도당해 122mm A-19 군단포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북한군 제17포병연대는 1950년 8월까지 보유한 군단포와 견인 차량인 S-65트랙터를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민족보위성 포병지휘국, 『포병전투규정』 (1949)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ATIS Interrogation Reports, Issue #3: North Korean Forces*(1950. 9. 6)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사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4식 15cm 유탄포

四年式十五糎榴彈砲

개요

4식 15cm 유탄포(四年式十五糎榴彈砲)는 일본 육군이 1915년 채용한 곡사포이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사용되었다.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도 이 포를 사용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 제1포병사단을 비롯한 독립포병사단 포병대대들이 4식 15cm 유탄포를 운용하였다.



- 1951년 3월 미군이 노획한 중공군의 4식 15cm 유탄포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일본 육군은 1908년 신형 150mm 곡사포 개발에 착수했다. 시제품은 1911년 완성되었다. 일본 육군은 시제품을 1914년 칭타오의 독일군 요새를 공격할 때 사용했다. 시험 결과 성능이 육군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존에 사용하던 38식 유탄포에 비해 더 많은 장약을 사용해 사거리가 연장되었다. 또한 38식 유탄포를 견인하는데는 말 8필이 필요했으나 이 포를 견인하는데는 말 6필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38식 유탄포에 비해 운용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1915년 3월 4식 15cm 유탄포라는 명칭으로 제식 채용했다. 오사카 포병공창에서 280문이 생산되었다. 1918년 일본 육군이 야전중포병연대를 편성할 때 주력 장비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야포가 급속히 발전하자 4식 15cm 유탄포는 채용된 직후부터 급속히 구식화 되었다. 특히 최대 장약을 사용해도 사정거리가 8,900m에 불과한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본 육군은 1925년부터 4식 15cm 유탄포의 사정거리 연장을 위한 개량에 착수했다. 포신, 포가, 약실 등을 개량한 시제품은 1930년 완성되었다. 그러나 당초 일본 육군이 요구한 사정거리 연장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 포는 1932년 상하이 사변 당시 실전 투입되었다. 구식 무기였으나 일본 육군의 중화기 부족으로 1945년까지 일선급 장비로 운용되었다.

4식 15cm 유탄포 제원

구분	4식 15cm 유탄포
운용인원	10명
구경	149.1mm
포신길이	2.19m
포구초속	398m/s
최대사거리	8,800m
부양각	-5°~+65°
중량	2,800kg
발사속도	3~4(분)
사용탄종	92식 유탄, 92식 유탄改, 11년식 유탄, 13년식 연막탄 등

-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戦重砲・騎砲 他—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243~244쪽

운 용

중공군의 참전 초기 제13병단 예하 제1포병사단이 4식 15cm 유탄포를 소수 운용하였다. 6·25전쟁 참전 당시 중국은 일본제 장비에 필요한 소모품의 상당수를 국산화하고 있었다. 1951년 9월 기준으로 중공군은 총 23문의 일본제 150mm 곡사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공군은 150mm 이상의 대구경 화포가 부족했기 때문에 4식 15cm 유탄포는 구식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전력이었다. 중국은 본토의 부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4식 15cm 유탄포를 한국 전선에 배치하여 부족한 화력을 보강하였다. 1952년의 소위 '상감령' 전역 당시 중공군은 유엔군의 포병 공세에 맞서 여러개의 포병군을 편성하여 통합 운용했다. 이 중에서 제28포병연대가 4식 15cm 유탄포를 장비하고 참전했다. 4식

15cm 유탄포는 중공군 최후의 공세인 금성돌출부 공세에서도 중공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포병화기로 운용되었다.

6·25전쟁 기간 중 중공군은 85,763발의 일본제 150mm 곡사포용 포탄을 보급 받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었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총 1문의 4식 유탄포를 상실했다.

참고문헌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戦重砲・騎砲 他,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12)
-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 (연도미상)
- 聂济峰·聂昭华·李韧, 『上甘岭: 攻不破的东方堡垒』,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18)
-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 Li Chen, 'From Civil War Victor to Cold War Guard: Positional Warfare in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1951-1953'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8-1&2, 2015



15cm 중곡사포18

15cm schwere Feldhaubitze18(sFH18)

개요

15cm sFH18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사용한 곡사포이다.

연혁 및 제원

15cm sFH18은 보병사단 포병연대에서 사단일반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sFH은 중곡사포(schwere Feldhaubitze)의 약자이다. 제2차세계대전 중 독일군 보병사단의 포병연대는 이 곡사포를 1개 대대 보유하고 있었다.

15cm sFH18 제원

구분	15cm sFH18
구경	150mm
포신길이	4.49m
포구초속	m/s
최대사거리	13,250m
부양각	-3°~+45°
중량	5,512kg

- 출처 : Hogg, Ian V., *German Artillery of World War Two* (London: Grennhill Books, 1997), p.65.

중화민국 정부는 1930년대 독일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독일제 군사장비를 도입했다. 독일 크루프(Krupp)사가 중국에 공급한 sFH18은 두 종류이다. 첫 번째는 중화민국만 도입한 32구경 sFH18/L32이다. sFH18/L32은 24문이 수출되어 중화민국 국군 독립포병 제10연대에 배치되었다. 1937년에는 30구경 15cm sFH18/L30을 24문을 도입했다. 중화민국 국군은 이 곡사포를 독립포병 제14연대에 배치해 운용했다. sFH18/L30은 독일육군 제식장비였다. 중화민국 국군 독립포병 제10연대와 제14연대는 독일제 견인차량을 장비했다.

중공군은 국공내전 당시 15cm sFH18을 다수 노획했다. 6·25전쟁시 중공군 제7포병사단 예하 제19포병연대가 15cm sFH18을 장비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15cm sFH18 일부를 북한에 기증하였다. 평양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 15cm sFH18 1문이 전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Hogg, Ian V., *German Artillery of World War Two* (London: Grennhill Books, 1997)



152mm 곡사포 M1937(ML-20)

개요

152mm 곡사포 M1937(152-mm Gaubitsa-pushka obr.1937g.)은 소련 육군이 제2차세계대전 중 사용한 중곡사포이다. 1937년부터 1947년까지총 6,884문이 생산되었다. 군단급 이상 독립포병 부대의 장비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시기 중공군이 소련에서 도입하여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소련 육군은 제정 러시아 시기에 개발된 152mm 곡사포 M1910이 구식화 되어 감에 따라 이 포를 대체할 새로운 야포의 소요를 제기했다. 152mm 곡사포 M1910은 프랑스의 스나이더사가 러시아 정부의 요구에 따라 개발한 장비였다. 소련 육군은 1930년과 1934년에 이 포에 대한 개량을 실시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개발된 장비인 만큼 1930년대 소련 육군의 기술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소련 포병총국은 M1910을 더 개량하는 대신 신형 152mm 곡사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172호 공장 설계국은 ML-15와 ML-20이라는 두가지 곡사포를 설계했다. 이 포는 근본적으로 M1910 곡사포의 1934년 개량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포신 및 제퇴기구 등이었다. 또한 바퀴와 현가장치가 호환되었다. ML-20의 시제품은 1936년 12월 25일 첫 시험에 들어갔다. 이후 몇가지 개량을 거친 뒤 1937년 9월 22일 152mm 곡사포 M1937이

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받았다.

152mm 곡사포 M1937은 페름의 172호 공장에서 1937년부터 1946년까지 총 6,884문이 생산되었다. 1956년부터 152mm 곡사포 M1955가 생산되면서 일선에서 물러났다.

152mm 곡사포 M1937(ML-20)

구분	152mm 곡사포 M1937(ML-20)
운용인원	9명
구경	152.4mm
포신길이	4.41m
포구초속	655m/s(OF-540 고폭탄 사용시)
최대사거리	17,230m
부양각	-2°~+65°
중량	7,130kg
발사속도	3~4(분)

- 출처 : Ivanov, A., *Artiller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25.

운 용

중공군은 1951년 하반기부터 이 포를 병단 이하의 독립포병부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1951년 9월 중공군의 장비 통계를 보면 36문의 152mm 곡사포를 보유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이미 대량으로 배치된 미국제 M1 155mm 곡사포와 일본제 4식 15cm 유탄포를 대체하지 못했다. 중공군 최후의 공세인 금성돌출부 전투 당시 152mm 곡사포는 1개 중대 3문이 투입된 반면 미국제 M1 155mm 곡사포와 일

본제 4식 15cm 유탄포는 모두 32문이 투입되었다.

참고문헌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 (연도미상)
-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 Li Chen, 'From Civil War Victor to Cold War Guard: Positional Warfare in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1951-1953'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8-1&2, 2015





M1 155mm 곡사포

개 요

M1 155mm 곡사포는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독립포병사단 예하의 일부 포병대대에서 운용한 곡사포이다. 중공군이 운용한 물량은 중화민국 정부가 렌드 리스 프로그램으로 원조받은 분량과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으로부터 노획하여 확보한 것이다.

연혁 및 제원

M1 155mm 곡사포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직전인 1941년 5월, 미 육군이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사용하던 슈나이더(Schneider)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화포이다. 당시 미군의 각 보병사단은 105mm 곡사포를 장비한 3개 포병대대를 두어 예하 보병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사거리가 긴 155mm 곡사포 1개 포병대대를 함께 두어 사단 전체에 대한 일반지원을 제공하도록 편제되어 있었다.

M1 곡사포는 M102 고폭탄(HE)을 주로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M105·M110 연막탄, M110 화학탄, M118 조명탄 등을 사격할 수 있었다. 고폭탄을 사격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14.6km였다. 1941년부터 1953년까지 총 10,300문이 생산되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까지 미 육군의 주력 화포로 운용되었으며, 1968년 M198 곡사포의 도입으로 점차 퇴역했다. 1962년에 'M114 곡사포'로 재명명되었다.

M1 155mm 곡사포 제원

전장	730cm	전고	180cm
전폭	240cm	중량	5,427kg
발사각	-2 ~ 63°	사격속도	분당 2발
사거리	14,600m	조작인원	11명

- 출처 : Steven J. Zaloga, *US Field Artillery of World War II*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7)

운 용

중공군은 국공내전 기간 중 중화민국 육군이 보유한 M1 155mm 곡사포를 대량으로 노획해 정식 장비로 편입시켰다. M1 155mm 곡사포는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사용한 곡사포 중 가장 강력한 장비였다. 소련이 중국에 지원한 장비 중 구경 152mm 이상의 화포는 한반도에 투입되지 않았다. 중공군은 이 포를 구경이 비슷한 일본제 4식 15cm 유탄포와 함께 운용했다. 소련으로부터 충분한 숫자의 152mm 곡사포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3년 7월 까지도 M1 155mm 곡사포는 공산군이 보유한 구경 150mm 이상의 화포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참고문헌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 (연도미상)



BM13 132mm 방사포

개요

BM13 132mm 방사포는 6·25전쟁 중 북한군과 중공군이 운용한 다연장로켓포이다. 군단급 이상의 독립포병부대에서 운용되었다. ‘카츄샤’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공산군은 이 방사포를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집중 투입하였다.

연혁 및 제원

소련군은 1938년 6월 항공기용 RS-132로켓탄을 사용하는 다연장로켓포의 개발에 착수했다. RS-132로켓탄을 지상용으로 한 M-132로켓탄 발사대를 ZIS-5 트럭에 설치해서 시험한 결과 트럭의 화물칸에 레일식 로켓탄 발사대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939년 8월 ZiS-6 트럭에 레일식 로켓탄 발사대를 설치한 방사포가 BM13이라는 명칭으로 채용됐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렌드리스 원조를 통해 대량의 트럭이 지원되면서 미제 트럭에 M-13로켓탄 발사대를 탑재한 방사포가 등장했다. 미제 트럭에 발사대를 탑재한 형식은 BM-13-16으로 명명되었다.

BM13 방사포 1개 포대는 보통 트럭에 탑재된 4문의 BM13 방사포와 2대의 탄약보급 트럭으로 구성되었다.

BM13 132mm 방사포 제원

구분	M13 132mm 방사포
운용인원	6명(차량 운전병 포함)
구경	132mm
발사대 숫자	24(레일식)
최대사거리	11,800m(M-13DD 로켓탄 기준)
탄두중량	4.9kg(M-13DD 로켓탄 기준)
사용탄종	M-13 로켓탄, M-13DD 로켓탄, M-13UK 로켓탄 등

- 출처 : Prenatt, Jamie., Katyusha: Russian Multiple Rocket Launchers 1941-Present (Oxford: Osprey, 2016)

운 용

중공군은 1951년부터 소련으로부터 BM13 132mm 방사포를 도입하여 군단급 포병부대에 배치하였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사용한 BM13 132mm 방사포는 ZIS-151 트럭에 탑재되어 운용되었다. 6·25전쟁 당시 공산군은 BM13 방사포 체계에 1944년부터 생산된 M-13DD 로켓탄을 주로 운용했다.

1952년 가을의 이른바 ‘상감령 전역’ 당시 중공군은 BM13 방사포로 구성된 포병집단을 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포는 견인식 곡사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제한된 영역에서 전개되는 고지전에서는 기동전을 실시할 때에 비해 정확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공군은 사전에 산출한 사격제원에 따라 일제사격을 감행할 경우 BM13 방사포가 단시간 내에 대량의 화력투사가 가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중공군은 1953년 7월 금성돌출부 공세 당시에도 59대 BM-13 방사포를 투입했다. 금성돌출부 공세에서 중공군 방사포 부대는

3,675발의 로켓탄을 사용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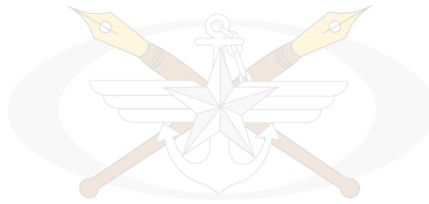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聂济峰·聂昭华·李韧, 『上甘岭: 攻不破的东方堡垒』,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18)

Hogg, Ian V., *Allied Artillery of World War Two*(Ramsbury: Crowood Press, 1998)

Prenatt, Jamie., *Katyusha: Russian Multiple Rocket Launchers 1941–Present*
(Oxford: Osprey, 2016)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SU-76M 자주포

개요

SU-76M 자주포는 제2차세계대전 중 소련이 생산한 자주포이다. T-70경전차의 차대를 활용해 제작되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전차여단 및 보병사단에 대대 단위로 배속되어 화력 지원, 대전차 전투 등을 담당했다. 북한군은 SU-76M 자주포를 '자동포'라고 명명했다.



- 북한군의 SU-76M 자주포
- 출처 : RG242, National Archives

소련군은 독일의 침공이 시작되자 전차를 지원하여 직접 화력 지원 및 대전차전 임무를 수행할 자주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42년 1월 T-60 경전차의 차대를 활용한 자주포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형 경전차인 T-70 생산이 시작되면서 자주포 개발도 T-70 경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T-70 차체를 기반으로 한 자주포 개발은 고리키 자동차공장과 키로프에 소재한 제38호 공장이 담당했다. 고리키 자동차공장이 개발한 76.2mm 자주포의 시제품은 GAZ-71, 제38공장이 개발한 시제품은 SU-12였다. 두 공장의 시제품 자주포들은 1942년 12월 고로호베츠 포병시험장에서 시험을 받았다.

시험 결과 SU-12가 채택되었다. SU-12는 트럭용 엔진 2개를 병렬로 연결한 구조 때문에 동력계통의 신뢰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1942년 12월부터 SU-12의 생산이 시작됐다. SU-12는 1943년 2월 실전에 투입되었다. 실전 운용 결과를 반영해 개량된 SU-12은 1943년 5월 SU-76이라는 명칭을 받고 소련 육군의 제식장비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동력계통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 국방위원회는 1943년 6월 7일 SU-76의 생산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생산 중지 명령이 내려질 때 까지 총 609대의 SU-76이 생산됐다.

제38호 공장이 SU-76의 개량을 담당하게 되었다. 제38호 공장은 엔진 배치를 병렬식에서 직렬식으로 변경하고 전투실의 장갑을 정면 25mm, 측면 15mm로 감소시켰다. 이로써 차량의 무게가 감소해 동력계통에 주는 부담이 감소했다. 동력 계통을 개량하고 장갑을 경량화한 SU-15는 SU-15M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1943년 7월 8일 소련 국방위원회는 SU-15M의 양산 결정을 내렸다. SU-15M은 양산에 들어가면서

SU-76M의 명칭을 부여받았다. SU-76M의 첫 양산분 47대는 1943년 8월 완성되어 부대에 배치되었다. SU-76M이 양산에 들어간 직후인 1943년 8월 21일 소련 국방위원회는 T-70 경전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해당 차량의 차대를 모두 SU-76M에 돌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SU-76M은 1943년에 1,956대, 1944년에 7,155대, 1945년에 3,562대, 1946년에 1,034대가 생산되었다.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량된 SU-76M은 1945년 4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SU-76M의 개량형은 전투실의 구조를 변경하고 차량의 통신 장비와 동력 계통을 일부 개선했다. 1945년 4월부터 생산된 개량형은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지 않았다. 북한군에 공급된 SU-76M은 대부분 1945년 4월 이후에 생산된 개량형들이다.

SU-76M 제원

구분	SU-76M	
승무원	4명	
전장/너비	4.9m/2.7m	
전고	2.1m	
엔진출력	140마력(GAZ-203 디젤엔진)	
중량	10.5톤	
최고속도	44km/h	
항속거리	포장도로	320km
	야지	150km
등판능력		
참호 돌파능력	2m	

방어력	차체정면	25mm
	차체측면	25mm
	차체후면	15mm
무장	76.2mm ZiS-3 M-1942 사단포 1문(포탄 탑재량 60발)	
	7.62mm DT 기관총 1정	

■ 출처 : Zaloga, Steven J., *SU-76 Assault Gun*, (Oxford: Osprey, 2019)

운 용

소련군은 1947년 9월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제10기계화사단에 전차 및 자주포 운용요원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인원을 핵심으로 1947년 12월에 제203교육전차연대가 조직되었다. 제203교육전차연대는 전차병 뿐만 아니라 6개의 보병사단에 배속될 자주포 대대 병력을 교육시켰다. 북한군 보병사단 예하의 자주포 대대는 SU-76M 자주포 16대를 보유했다.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까지 제1·2·3·4·5·6·12·13·15보병사단 등 총 9개 보병사단에 자주포 대대가 완편되었다.

보병사단의 자주포대대는 총 3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각 중대는 2개 화력소대로 편성되었다. 각 화력소대는 다시 2대의 SU-76M 자주포를 장비했다. 보병사단의 자주포대대는 대대장 차량과 중대장 차량을 포함해 총 16대의 SU-76M 자주포를 보유했다. 대대본부는 참모부, 기술보장소대, 경리분대로 편성되었다.

북한군은 SU-76M 자주포를 전차 부대나 보병 부대의 공격시 지원을 위한 직사화력으로 운용했다. 1949년에 간행된 북한 민족보위성의 『장갑땅크 및 기계화부대 전투규정』은 전차부대의 돌격 이전에 포병이 적의

대전차포를 격파 또는 압도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전차부대가 적의 방어정면과 방어중심에 돌입할 때 남아있는 적의 화기를 격파하거나 압도하도록 했다. 전차부대와 보병부대에 배속된 SU-76M 자주포는 이를 위해 전차부대를 근거리에서 동반하며 엄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1949년 민족보위성총참모부가 간행한 『자동포병의 조직과 전투사용에 관한 교시』는 자주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포병들은 음폐진지에서 사격을 진행하며 집적적인 화력으로서 보병의 공격을 성과롭게 보장하면서 보병의 근접전투에 있어서 그의 행동을 방해하는 세밀하게 음폐되었거나 혹은 이동하고 있는 개별적 화점들과 투쟁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보병을 지원하는 탱크도 혹시 이 임무를 완전히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다. 전차들은 화점을 소멸하면서 그들 자신이 적의 반전차화기(대전차화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직 포병이 보병과 탱크들의 전투서열에 직접 진출함으로써만이 보병 및 탱크들의 이동 전진을 방해하는 적의 화점들을 직접 조준사격으로써 신속하고도 확신있게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군은 이 임무를 위해 SU-76M 자주포들이 보병의 산병선에서 200~300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SU-76M 자주포는 방어력이 약했기 때문에 200~300m 이내에서는 국군이 보유한 대전차화기에 취약했다. 북한군 지휘관들은 국군의 대전차 화력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SU-76M 자주포를 전차처럼 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춘천 전투 당시 북한군 제2보병사단 자주포대대는 소양교 돌파를 보병의 지원 없이 자주포들을 돌격시켰다가 국군 57mm 대전차포의 공격에 3대의 자주포를 잃고 패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 초기에는 국군 및 미군의 대전차 전력이 취약했기 때문에 SU-76M 자주포들이 돌격 부대들을 근거리에서 후속하며 직접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북한군은 한강 도하작전시 도하하는 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SU-76M 자주포 33대를 직접조준사격 임무에 투입했다. 북한군은 자주포의 직접조준사격으로 한강 남안에서 저항하는 국군의 화기진지 등을 제압하고 도하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1950년 7월 8일 천안 전투에서는 북한군의 SU-76M 자주포 1개 대대가 제107전차연대와 함께 시가지로 돌입해 시가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전쟁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SU-76M 자주포를 최전선에서 직접 화력지원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많은 피해를 동반했다. 1950년 7월 19일 북한군이 보유한 SU-76M 자주포는 58대로 감소했다. 유엔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항공기 공격에 의한 피해도 급증했다.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23대의 SU-76M 자주포를 상실했다. 이 중 18대가 항공기의 공격으로 격파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작전 후반에는 북한군의 기갑 전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쟁 초반과 같은 과감한 운용이 줄어들었다. 미군은 다부동 전투 초기 북한군이 SU-76M 자주포를 전방에 추진시켜 과감하게 보병을 지원했으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전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은 1950년 9월 중순 이후 개시된 유엔군의 반격으로 SU-76M 자주포를 대부분 상실하고 38선 이북으로 후퇴했다. 소련은 1951년부터 북한군 기갑부대 재건을 위해 대량의 기갑장비를 원조했으며 여기에는 대량의 SU-76M 자주포가 포함되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1951년 초 12개 대대 규모의 SU-76M 자주포 대대를 편성하기로 했으나 차량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편성이 지연되었다.

1951년 하반기 이후 공산군의 주력을 중공군이 차지하게 되고 북한군은 동부 전선의 극히 제한된 전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전쟁 초기와 같이 SU-76M 자주포를 공세적으로 운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졌다.

중공군은 1951년부터 소련의 원조를 받아 SU-76M 자주포를 보유하게 되었다. 중국은 1951년 9월부터 1954년 1월까지 소련으로부터 912대의 SU-76M 자주포를 도입했다. 1953년에는 전선에 배치된 중공군 보병사단의 상당수가 1개 대대의 SU-76M 자주포를 보유하게 되었다. 중공군 보병사단의 자주포 대대는 북한군 보병사단의 자주포 대대와 동일하게 대대장 차량을 포함해 총 16대의 SU-76M 자주포를 보유했다. 자주포대대는 총 3개 중대로 편성됐으며 각 중대는 다시 2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1개 소대는 2대의 SU-76M 자주포를 보유했다.



참고문헌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자동포병의 조직과 전투사용에 관한 교시』, (평양: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장갑땅크 및 기계화부대 전투규정』, (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장갑땅크 및 기계화부대에 있어서 땅크와 자동포 관리교범』, (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자동포교범』, (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50)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R-1(FEC)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ume I*(1951. 4. 8)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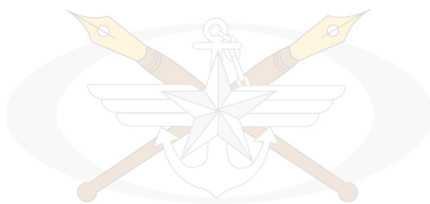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Zaloga, Steven J., *SU-76 Assault Gun*, (Oxford: Ospery, 2019)

田越英, 『中国军兵种』 (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13)





ISU-122 자주포

개요

ISU-122 자주포는 소련군이 기계화부대의 화력 지원과 대전차 임무를 위해 IS-2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한 자주포이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전차연대 예하 자주포 중대에 배치되어 운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ISU-122 자주포는 소련군이 기계화부대의 화력 지원과 대전차 임무를 위해 IS-2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한 자주포이다. 152mm 곡사포를 탑재한 ISU-152의 개발 당시 파생형으로 개발되었다. ISU-152 개발진은 1943년 12월 A-19S 평사포를 탑재한 실험차량 Object242를 제작했다. 소련 육군은 당초 152mm 곡사포를 탑재한 ISU-152 생산에 주력하려 했으나 ISU-152 생산에 필요한 ML-20S 곡사포의 생산량이 ISU-152 자주포의 차체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해 주포가 없는 ISU-152 차체가 남아도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소련 정부는 생산량이 충분한 A-19S 평사포를 탑재한 ISU-122 생산을 결정했다. 이미 ISU-152 개발단계에서 A-19S 평사포를 탑재한 실험 차량을 생산했기 때문에 ISU-152용으로 생산된 차체를 ISU-122 생산에 전용하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ISU-122 생산은 1944년 4월 부터 진행되었다. 또한 IS-2 중전차에 탑재된 D-25T 전차포를 탑재한 ISU-122S도 생산되었다. 1945년까지 ISU-122 1,735대, ISU-122S 675대가 생산되었다.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을 결정하자 소련정부는 중공군이 전차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T-34/85 전차, IS-2 중전차, ISU-122 자주포를 지원하였다.

ISU-122 제원

구분	ISU-122	
승무원	4명	
전장/너비	9.85m/3.07m	
전고	2.48m	
엔진출력	520마력(V-2-IS 디젤엔진)	
중량	45.5톤	
최고속도	37km/h	
항속거리	포장도로	220km
등판능력	36°	
참호 돌파능력	2.5m	
방어력	차체정면	90mm
	차체측면	90mm
	포방패	65mm
무장	A-19S 122mm 평사포 1문(포탄 탑재량 30발)	
	12.7mm DShK 기관총 1정	

- 출처 : A. G. Soliankin M. B. Pavlov, *Sovetskie Tiazhelye Samokhodnye Artilleriiskie Ustanovki 1941-1945* (Moskva: Eksprint, 2005), p.39.

은 용

중공군은 1951년 소련으로부터 ISU-122 자주포 40대를 지원받았다.

ISU-122 자주포는 중공군의 전차사단 예하 전차연대에 1개 중대씩 배치되었다. 1차로 지원된 차량은 제1, 2, 3전차사단(총 6개 중대), 독립전차 제1, 2, 3연대(총 3개 중대)에 배치되었다. 중공군 전차연대 예하 자주포 중대는 2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각 소대는 2대의 ISU-122 자주포로 편성됐다. 자주포 중대의 지휘차량으로는 IS-2 중전차가 사용됐기 때문에 자주포 중대는 총 4대의 ISU-122 자주포와 1대의 IS-2 중전차를 보유했다.

1951년 3월 중공군은 제1전차사단의 제1, 2전차연대와 제2전차사단의 제3전차연대를 '중국중공군'에 배속시켰다. 각 연대에 배속된 3개 중대 규모의 ISU-122 자주포는 1951년 6월부터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때 중공군은 유엔군의 하계 반격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고 전략적으로 방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ISU-122 자주포 부대는 보병의 방어를 지원하는데 투입되었다. 그러나 전황이 고착화 되면서 중공군은 기갑전력을 제한된 공세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중공군은 1951년 가을부터 국지적인 공세 작전을 전개하면서 보병 지원을 위해 중대 규모의 기갑전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ISU-122 자주포는 소대 단위(2대)로 T-34/85로 편성된 전차 중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중국이 T-34/85 전차와 IS-2 중전차를 지속적으로 도입한 것과 달리 ISU-122는 1951년 1차분 도입 이후 추가 도입이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은 1953년부터 SU-100 자주포를 도입했으나 중공군의 SU-100 자주포가 6·25전쟁 기간 중 실전에 투입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田越英, 『中国军兵种』(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13)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37mm 대공포 M1939(61-K)

개요

37mm 자동대공포 M1939(37-mm avtomaticheskaja zenitnaia pushka obr.1939.g(61-k))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개발해 배치하기 시작한 대공포이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20,000문이 생산되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주력 대공화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 6·25전쟁 초기 37mm 대공포를 운용하고 있는 북한군.
- 출처 : RG242,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소련 육군은 1938년 1월 스베르들로스크(Sverdlosk)의 8호공장에 해군용 45mm 대공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37mm 대공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제품은 단기간내에 제작되어 1938년 10월에는 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다. 1940년 스웨덴 보포스사의 40mm 대공포와 시험 평가를 거친 뒤 37mm 자동대공포 M1939라는 명칭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37mm 대공포 M1939 제원

구분	37mm 대공포 M1939	
운용인원	5명	
구경	37mm	
포신길이	2.7m	
포구초속	880m/s	
최대사거리	지상목표	8,500m
	대공사격	6,500m
부양각	+87°	
중량	2,100kg	
발사속도	160발(분)	

출처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42.

북한군의 고사포 대대는 37mm 대공포 M1939 8문과 12.7mm 중기관총 18정을 장비했다. 북한군은 37mm 대공포를 일반적으로 1,500m 이내의 고도에 있는 목표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습 효과를 노리기 위해 유엔군 항공기가 대공포진지 상공을 지나간 뒤 후방에서 사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또한 대공포 1문당 2개의 사격진지를 만들어 수시로 진지 변환을 하면서 유엔군 항공기의 공격을 피했다.

이외에 야전부대의 방공 임무에도 37mm 대공포가 주력으로 운용되었다. 전쟁 중반기 이후 북한군의 보병사단은 보통 1개 중대 규모의 37mm 대공포를 배속받아 사단 주요 시설의 방어에 투입하였다. 1951년 4월 1일 북한군의 장비 보유통계를 보면 편제상 421문의 37mm 대공포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보유량은 197문으로 나타난다. 소련군 사고문단은 1950년부터 1951년 초에 걸쳐 북한 육군이 격추한 유엔군 항공기의 70%가 37mm 대공포에 격추됐다고 평가했다.

중공군도 이 대공포를 대량으로 운용했다. 중공군은 제공권이 없어 유엔군의 공군력에 취약했기 때문에 항공엄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대공포 전력을 강화하려 했다. 저우언라이는 1951년 3월 15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 한반도의 중공군을 무장하기 위해 37mm 대공포 140문과 포탄 14만발, 85mm 대공포 120문과 포탄 9만발, 12.7mm DShK 대공기관총 500정과 총탄 5백만발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탈린이 저우언라이의 원조 요청을 승인하여 소련제 대공화기가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1951년 9월 중공군의 장비 통계를 보면 총 643문의 소련제 37mm 대공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6·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배치된 중공군의 대공포대대 중 53개 대대가 소련제

37mm 대공포를 장비했다.

1951년 9월 한반도에 배치된 중공군의 대공포부대는 4개의 야전대공포사단(제61, 62, 63, 64)와 3개의 도시방공연대(제505, 513, 524), 50개의 독립대공포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제62, 63, 64사단과 제524대공포연대는 비행장 건설을 엄호하는 임무를 담당했고 제61사단은 주요 교통로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독립대대들은 전선에 배치되어 전술방공 임무를 수행했다.

중공군의 대공포연대(高砲團)는 경대공포대대(小高砲營) 2개와 중대공포대대(中高砲營, 76.2mm 혹은 85mm 대공포) 1개로 혼성 편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야전대공포사단(野戰高砲師) 소속의 대공포연대는 1개 연대가 단일 장비로 편제되었다. 제64야전대공포사단 예하의 제608, 609대공포연대는 1개 연대 전체가 37mm 대공포로 편성되었다. 중공군은 거점을 방어할 시 보통 37mm 대공포 2~3개 대대와 76.2mm 또는 85mm 대공포 1개 대대를 하나의 대공화력군으로 묶어 운용했다. 37mm 대공포는 중저고도에서 공산군의 시설물을 노리는 폭격기와 전폭기를 상대로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37mm 대공포는 주요 교통망과 최전선의 전술 방공을 담당했다. 유엔군은 기동성이 좋은 중형폭격기와 전폭기를 철도공격에 투입했기 때문에 중공군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37mm 대공포를 장비한 대대들을 철도망 방어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중국은 대공포부대의 실전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1952년 4월부터 중국 본토에 있던 제511, 502, 509, 522연대를 한반도로 이동시켰다. 중국측은 방공부대들을 순환 배치함으로써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대공포부대들의 전술적 역량을 균등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참고문헌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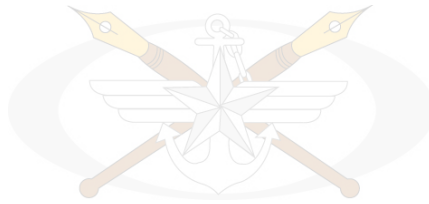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陈辉亭·陈雷, 『抗美援朝防空作战实录』, (北京: 解放军文艺出版社, 2010)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3.7cm Flak18

개요

37mm Flak18은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사가 1930년대 초반에 개발해 독일 육군과 공군이 1935년에 채택한 대공포이다. 1930년대 중반 독일이 중화민국에 수출하여 중일전쟁 당시 중화민국군이 사용하였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고사포 부대가 이 대공포를 소량 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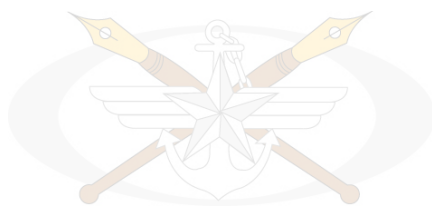
연혁 및 제원

독일 라인메탈사는 자사가 개발한 20mm 대공포의 구조를 답습하여 구경을 확대한 37mm 대공포를 개발했다. 이 대공포는 1935년 독일군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구경에 비해 중량이 무겁고 운용이 불편하다는 야전 부대의 평가 때문에 1936년 단종되고 이 포를 대체할 37mm Flak36이 도입되었다.

3.7cm Flak18 제원

구분	3.7cm Flak18
운용인원	6명
구경	37mm
포신길이	2.11m
포구초속	820m/s
최대사거리	6,585m
부양각	-8°~+85°
중량	1,748kg
발사속도	80발(분)

출처 : Hoog, Ian V., *German Artillery of World War Two*, (London: Greenhill, 1997), p..



운 용

37mm Flak18은 독일군에서 빠르게 퇴출되었으나 중화민국군에서는 장기간 운용되었다. 라인메탈사는 1936년 3월 중화민국 정부에 60문의 37mm Flak18과 180,000발의 포탄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화민국군은 1942년 까지도 50문의 37mm Flak18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소수는 국공내전 당시 중공군에 노획되었다. 1951년 9월 한국 전선의 중공군이 보유한 장비 통계를 보면 3문의 37mm Flak18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Hoog, Ian V., *German Artillery of World War Two*, (London: Greenhill, 1997)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88식 7cm 야전고사포

八八式七糎野戰高射砲

개요

88식 7cm 야전고사포는 일본 육군이 1928년 제식채용한 대공포이다. 약 2,000문이 생산되어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사용되었다. 국공내전 당시 중화민국 육군과 중공군 양측에서 사용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고사포 부대가 이 포를 일부 운용하였다.

연혁 및 제원

일본 육군은 1925년 신형 대공포 개발을 결정하고 오사카 포병공창에 개발을 지시했다. 1926년 4월 시제품이 완성되어 시험에 들어갔다. 1927년에는 육군 야전포병학교에서 야전 시험을 실시했다. 이듬해인 1928년 88식 7cm 야전고사포로 제식 채용되었다. 실제 구경은 75mm이나 제식명칭은 7cm로 표기했다.

운용 편의성을 위해 경량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 사격시 내구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행장과 요새에 고정 배치한 88식 야전고사포의 경우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후반에는 레이더와 연계하여 방공작전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500m 거리에서 100mm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군이 노획한 포를 가지고 시험했을 때 500야드 거리에서 3.6인치(약 91mm)의 장갑을 관통했다.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당시 일본군의 대전차화기로 제압하기 어려웠던 미군의 M4 중형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다.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이 포를

대전차포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된다.

88식 7cm 야전고사포 제원

구분	88식 7cm 야전고사포	
운용인원	12명	
구경	75mm	
포신길이	3.31m	
포구초속	720m/s	
최대사거리	지상목표	13,800m
	대공사격	9,100m
부양각	0°~+85°	
중량	2,450kg	
발사속도	15~20발(분)	
사용탄종	90식 유탄, 94식 유탄, 95식 철갑유탄 등	

출처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炮 高射砲—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0), 221~223쪽.

운 용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대공세인 제5차 전역당시 중공군의 고사포 부대에서 이 포를 최소 12문 운용한 것이 확인된다. 중공군은 이 대공포를 중고사포대대(中高砲營)에 배치하여 운용했다. 소련제 대공포가 도입된 뒤에도 소수가 운용됐다. 중공군 제541고사포연대는 1953년 6월까지도 2문의 88식 야전고사포를 소련제 76mm 대공포와 함께 운용했다.

참고문헌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76mm 대공포 M1931(3-K)

개요

76mm 대공포 M1931(76-mm zenitnaia pushka obr.1931.g(3-k))는 소련이 1930년대 초반에 도입한 대공포이다. 1938년에 개량형인 M1938이 등장했다. 1951년 소련이 소수를 중공군에 공급했다.

연혁 및 제원

소련은 1930년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사에서 공급받은 75mm 대공포를 바탕으로 신형 대구경 대공포 개발에 착수했다. 포의 구경은 소련군에서 널리 사용되는 76.2mm로 변경했다. 구경을 늘린 시제품이 1931년 정식으로 채택되어 1932년부터 생산되었다. 1938년 개량형인 M1938이 등장했지만 비슷한 시기 개발된 85mm 대공포에 밀려 대량생산되지 못했다.

76mm 대공포 M1931 제원

구분	76mm 대공포 M1931	
운용인원	7명	
구경	76.2mm	
포신길이	4.1m	
포구초속	813m/s	
최대사거리	지상목표	14,600m
	대공사격	9,250m

부양각	+82°
중량	3,750kg
발사속도	15~20발(분)

출처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45.

은 용

1951년 3월 15일 중공 외무부장 저우언라이는 소련 정부에 85mm 대공포 120문(포탄 90,000발), 37mm 대공포 140문(포탄 140,000발), DShK 대공기관총 500정(탄약 5,000,000발)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련정부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85mm 대공포를 단기간내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족분을 도태장비인 76mm 대공포로 대신할 것을 제안했다.

중공군은 76mm 대공포를 제506고사포연대 1대대, 제511고사포연대 예하의 2개 대대, 제541고사포연대 등에 배치해 운용했다. 중공측은 85mm 대공포에 비해 성능이 부족한 76mm 대공포를 일본제와 독일제 대공포를 교체하는데 사용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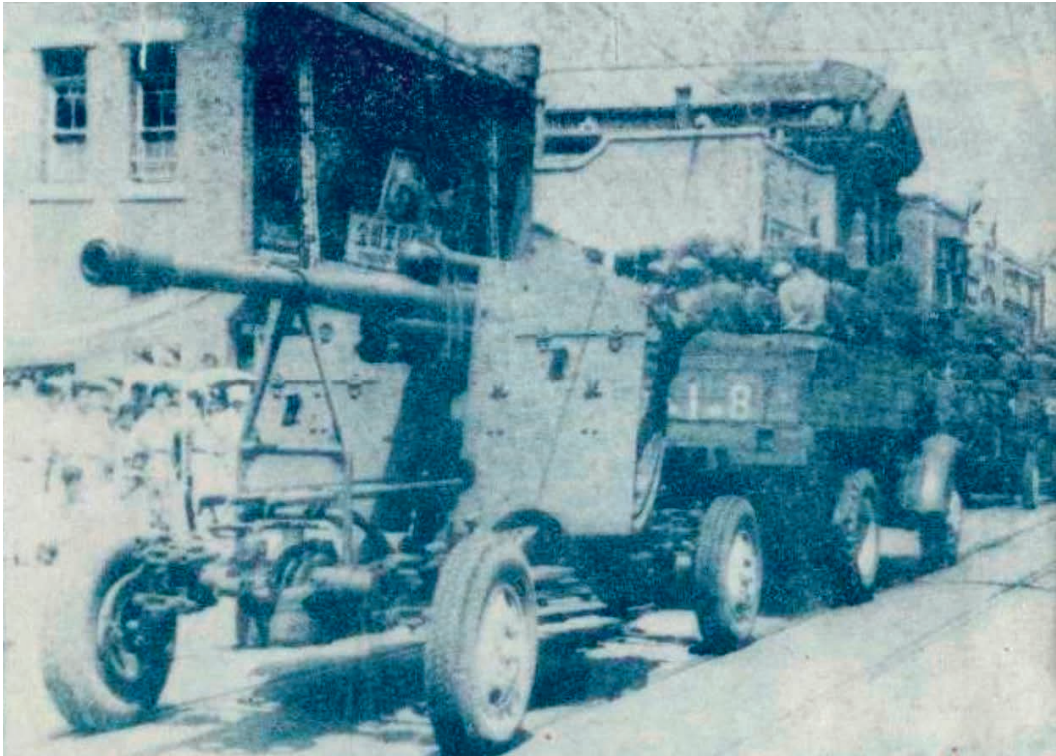
陈辉亭·陈雷, 『抗美援朝防空作战实录』, (北京: 解放军文艺出版社, 2010)



85mm 대공포 M1939(52-K)

개요

85mm 대공포 M1939(85-mm zenitnaia pushka obr. 1939g.(52-K))는 소련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대공포이다. 6·25전쟁 시기 북한군과 중공군이 중구경 대공포로 운용하면서 유엔군 항공기에 큰 피해를 입혔다.



- 1949년 1월 평양시내의 퍼레이드에서 행진 중인 북한군의 85mm 대공포
- 출처 : 『조선화보』 1949년 2월호

연혁 및 제원

칼리닌그라드의 8호공장 설계국이 76mm 대공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했다. 개발 기한이 촉박하여 주요 부품은 76mm 대공포의 것을 사용했다. 1939년 시제품을 완성해 사격시험을 실시한 뒤 약간의 개량을 거쳐 같은해 85mm 대공포 M1939라는 명칭으로 제식채용되었다.

85mm 대공포 M1939(52-K) 제원

구분	85mm 대공포 M1939(52-K)	
운용인원	7명	
구경	85mm	
포신길이	4.7m	
포구초속	880m/s	
최대사거리	지상목표	15,500m
	대공사격	10,500m
부양각	+82°	
중량	4,900kg	
발사속도	15발(분)	

출처 :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p.45.

운 용

6·25전쟁 기간 중 북한군과 중공군의 고사포 대대가 운용했다. 소련은 유엔군의 제공권 장악에 맞서 공산군의 대공화력을 증강하려 했다. 1951년 4월 1일 북한군의 장비 보유 통계를 보면 편제상 73문의 85mm

대공포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보유량은 45문으로 확인된다. 1951년 이후로는 중공군 소속의 대공포부대가 숫적 주력이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미 1951년 9월 중공군의 장비 통계에 따르면 총 72문의 85mm 대공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공군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85mm 대공포로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일제와 미제 대공포를 교체해 나갔다.

참고문헌

-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사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陈辉亭·陈雷, 『抗美援朝防空作战实录』, (北京: 解放军文艺出版社, 2010)
-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공산군의 기갑차량

6·25전쟁 초기 북한군은 전차를 대량으로 운용해 국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전쟁 시기 공산군이 주력으로 사용한 전차는 T-34-85 중형 전차와 IS-2 중전차 등 2종이다. 장갑차로는 BA-64 경장갑차가 정찰 및 연락용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 미국제 M26, M46과 영국제 크롬웰 순항전차등이 노획되어 사용되었다. 미군은 전쟁 초기 IS-3 중전차가 투입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기도 했으나 잘못된 정보로 판명되었다.

6·25전쟁기 공산군의 전차 운용 방식의 변화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까지로 북한군이 전략적인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감행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북한군 전차 부대는 공격적으로 운용되었으며 국군 및 유엔군의 대전차 전력 부족으로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50년 9월 하순부터 1950년 11월 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전략적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취했다. 북한군은 전략적 주도권을 상실하고 전차를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용했다. 1950년 9월 이후에도 북한군은 소련에서 공급된 전차로 기존의 부대를 재건하고 신규부대를 창설할 수 있었으나 전쟁 초반과 같은 공세적 운용은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50년 말부터 6·25전쟁 휴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북한군은 기갑 전력을 재건하고 중공군도 기갑 전력을 꾸준히 증강했으나 공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 시기 공산군 기갑전력은 전략 예비의 성격을 띠었다. 중공군이 1951년 하순 이후 고지 쟁탈전에서 제한적인 공세를 위해 소규모의 전차를 운용하거나 해안포로 사용되는 수준에 그쳤다.

T-34-85는 공산군이 개전부터 휴전시까지 주력으로 운용한 중형전차다. 북한은 1947년 12월 제203독립교육전차연대를 편성하면서 소련으로부터 T-34-85 전차를 도입했다. 1949년 5월 제105전차여단이 창설되면서 T-34-85 전차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1950년 제16, 17기계화여단이 추가로 창설되었다. 개전 초기 북한군 전차부대의 특징은 제105전차여단이 뒤에 편성된 제16, 17기계화여단과 편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개전 당시 투입된 제105전차여단의 전차소대는 전차 1대로 구성되었으나 1950년 6월 편성에 들어간 제16, 17기계화여단의 전차소대는 전차 2대로 구성되었다.

〈표〉 1950년 북한군 전차부대의 편제

제105전차여단		제16, 17기계화여단	
여단(3개 연대)	전차 120대	여단(2개 대대)	전차 43대
전차연대(3개 대대)	전차 40대		
전차대대(3개 중대)	전차 13대		
전차중대(3개 소대)	전차 4대	전차대대(4개 중대)	전차 21대
전차소대	전차 1대	전차중대(2개 소대)	전차 5대
		전차소대	전차 2대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27~30쪽.; *ATIS Research Supplement, Enemy Forces, Issue No.4(1950. 12. 15), p.28.*

제105전차여단은 개전 초기 서울을 점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뒤 제105전차사단으로 개칭되었다. 북한군은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유엔군의 반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전쟁 수행의 주도권을 중공군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개전 초기 공세작전의 주역이었던 제105전차사단은 제105기계화사단으로 개편되었다. 북한군은 1951년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점진적으로 전차부대를 증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통일되어 있지 않던 전차부대의 편제 통일이 이루어졌다.

한편 1951년에는 북한군에 노획전차 부대가 편성되었다. 북한군은 미국제 M26, M46전차 26대로 제103독립전차대대, 제104독립전차대대, 진남포 독립전차중대 등을 편성해 해안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영국군으로부터 노획한 크롬웰전차도 해안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에 배치했다가 국군 해병대에 1대를 노획당했다.

1951년 이후 공산군 전차부대의 주력은 중공군이 차지했다. 중공군은 6·25전쟁 발발 당시 일본제 97식 중형전차, 94식 경전차, 미제 M3A3 경전차, M4 중형전차를 비롯해 4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한반도에 투입하지 않았다. 중공군이 참전한 직후인 1950년 11월 소련은 중공군이 10개의 전차연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T-34 전차 300대, IS-2 중전차 60대, ISU-122 자주포 40대를 제공하고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투입될 전차연대는 소련제 전차와 자주포로 무장하게 되었다. 한반도에 투입된 중공군의 전차사단은 2개 전차연대와 1개 기계화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1개 고사포대대, 1개 수색대대, 1개 공병대대, 1개 의무대대, 1개 정비대대, 1개 수송대대, 1개 통신중대, 1개 경비중대, 1개 화생방중대로 편성되었다. 1개 전차연대는 T-34-85전차 30대와 IS-2 중전차 6대(1대는 자주포대대의 지휘차량), ISU-122 자주포 4대로 편성되었다.

중공중앙군사위원회는 1951년 2월 제1전차사단을 한반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951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제1전차사단과 제2전차사단 3전차연대, 독립 제6전차연대가 한반도에 투입되었다.

1951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독립 제1전차연대가 투입되어 독립 제6전차연대와 교대하였다. 중공군은 1951년 추계전역에서 중공군 전차부대가 충분한 전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1952년 초 2차로 제3전차사단(5, 6전차연대), 제2전차사단 4전차연대를 파견했다. 1952년 10월에는 독립 제1전차연대가 중국으로 돌아가고 독립 제2전차연대가 투입되었다. 1952년 12월에는 중국에서 재편성을 마친 제1전차사단과 독립 제3전차연대가 한반도에 투입되어 공산군의 예비대가 되었다. 중공군은 1953년 5월부터 제2전차사단 4전차연대, 제3전차사단 6전차연대 독립 제2전차연대 등 3개연대를 투입해 마지막 공세를 지원했다.

중공군은 전차부대를 중대 단위로 보병사단에 배속하여 화력지원 임무를 담당하게 했다. 중공군은 북한군과 달리 전차의 역할을 보병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한정했다.



참고문헌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R-1(FEC)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ume I(1951. 4. 8)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권주혁, 『기갑전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지식산업사, 2008)
-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王亚志, 『彭德怀军事参谋的回忆: 1950年代中苏军事关系见证』 (复旦大学出版社, 2009)
- 张明金·刘立勤, 『中国人民志愿军历史上的27个军』 (解放军出版社, 2014)
- Zaloga, Steven J., *T-34-85 vs M26 Pershing: Korea 1950* (Oxford: Osprey, 2011)
- 노양규, 『6·25전쟁시 전차운용의 특징과 영향』, 『군사』 80 (2011. 9)



T-34 전차

개요

제2차세계대전 직전 소련에서 개발한 중형전차이다. 1940년부터 야전 부대에 배치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 대량생산되어 소련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기여를 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주력 전차로 사용되었다.



- 서울 시내를 달리는 북한군의 T-34-85전차
- 출처 : RG242,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1937년 8월 소련 육군 차량화-기갑병과감실(Avtobronetankoviye Voyska)는 신형 고속전차 개발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BT-20이라는 명칭으로 전차 개발이 시작되었고 설계 변경에 따라 A-20, A-32등의 시험용 차량이 제작되었다. A-20은 45mm 주포를, A-32는 76.2mm 주포를 탑재한 형식이었다. 1939년 9월 15일 소련 국방인민위원회는 차체 전면장갑을 45mm로 강화한 A-32 시험용 차량 10대를 추가로 생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방인민위원회는 1939년 12월 19일 A-32를 강화한 A-34의 명칭을 T-34로 바꾸고 1940년 6월 7일 양산 결정을 내렸다.

1940년 소련군은 기계화부대의 편제를 개편하면서 새롭게 전차사단과 기계화사단 편제를 만들었다. T-34는 전차사단에 배치될 중형전차로 채택되었다.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 당시 T-34는 독일이 보유한 어떤 전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전에서는 낮은 기계적 신뢰성, 승무원의 훈련 부족, 전차부대 지휘관들의 역량 부족으로 큰 활약을 하지 못하고 대규모로 상실되었다. 그러나 대량생산으로 손실을 만회하며 독일군에게 소모를 강요할 수 있었다. 독일군이 1942년부터 위력이 강화된 75mm 전차포와 대전차포를 대량으로 투입하고 6호전차 티거와 같은 신형 전차를 투입하자 76.2mm 주포를 탑재한 T-34-76의 전투력은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1943년부터 독일군의 신형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T-34의 화력을 강화하는 개량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43년 말 85mm 전차포를 탑재한 T-34-85가 등장했다. T-34-85는 주포와 조준경 교체에 따른 공격력 향상, 동력계통의 신뢰성 향상, 대량 생산에 힘입어 1944년 이후 소련군의 대반격 작전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었다. 또한 T-34-76과 비교했을 때 동력계통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T-34-85는 균형잡힌 성능, 향상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소련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T-34-85 제원

구분	T-34-85	
승무원	5명	
전장/너비	6.1m/3m	
전고	2.7m	
엔진출력	500마력(V-2-34 디젤엔진)	
중량	32톤	
최고속도	55km/h	
항속거리	포장도로	350km
	비포장도로	260km
등판능력	+30°	
참호 돌파능력	2.5m	
방어력	차체정면	45mm/60°
	차체측면	45mm/40°
	포탑정면	90mm
무장	85mm ZIS-S-53 전차포 1문(포탄 탑재량 55발)	
	7.62mm DT 기관총 2정	

■ 출처 : Michulec, Robert. T-34 Mythical Weapon (Mississauga: Air Connection, 2007), p.351.

운 용

6·25전쟁 시기 북한군은 T-34-85를 주력 전차로 운용했다. 북한군은 1945년부터 1946년 사이에 생산된 T-34-85와 극소수의 T-34-76

을 공급받았다. 북한군의 전차부대 창설은 단독정부 수립 이전에 시작되었다. 평양에 주둔하던 소련 제10기계화사단에서 파견 교육을 받은 기간 요원을 핵심으로 1947년 12월 제203독립교육전차연대가 창설되었다. 제203독립교육전차연대는 1948년 5월 제1기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실제 작전을 담당할 전차부대 창설이 진행되었다.

북한군은 소련의 군사이론을 받아들여 보전협동을 중요시 했으며 교범상 전차가 보병과 200~400m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보병이 적의 화력으로 인해 전차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에는 전차가 화점을 제압하여 보병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한 뒤 실제 전투에서는 국군 및 유엔군의 포격 및 폭격으로 인해 전차와 보병이 분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개전 초기 북한 전차부대의 핵심은 제105전차여단이었다. 제105전차여단은 제203독립교육전차연대 교육수료생을 기간으로 편성되었다. 1949년 5월 16일에는 제105전차연대가 제105전차여단으로 개편되었다. 제105전차여단장에는 유경수(柳京洙)가 임명되었다. 여단 예하에는 각각 T-34-85 전차 40대를 보유한 제107·109·203연대 등 3개 전차연대와 SU-76 자주포 64대를 보유한 자주포대대, 제603차량화연대, 모터찌크(모터사이클)대대, 통신대대, 공병대대, 운수대대(수송대대), 전차수리소와 군의소가 배속되었다. 각 전차연대는 3개 전차대대로, 각 전차대대는 3개 전차중대로 편성되었다. 1개 전차중대는 T-34-85전차 4대로 편성되었다.

1949년 이후 소련으로부터 전차 및 자주포 도입이 증가하면서 북한군의 전차부대도 증편되었다. 제203독립교육전차연대를 대신할 교육부대로 신규 편성된 제208교도연대가 30대의 T-34-85전차를 보유했다. 1950년 6월 6일에는 철원에서 제16기계화여단이 창설되었다. 전차는 6월 16일에 지급되었다. 제16기계화여단은 2개 전차대대로 구성되었으며

T-34-85전차를 총 44대 보유했다. 여단 예하의 각 전차대대는 T-34-85전차를 21대씩 보유했다. 이어 1950년 7월 6일 평양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인포리(仁浦里)에서 제17기계화여단이 편성되었다. 전차는 7월 16일에 지급되었다. 이 여단은 제16기계화여단과 동일한 편제로 T-34-85전차 44대를 보유했다. 전차를 지급받은 뒤 제33, 34보병연대를 배속받아 제17기계화사단으로 개칭되었다.

개전 초기 투입된 전차부대는 제105전차여단 예하의 3개 전차연대였다. 이중 제107전차연대와 제109전차연대, 그리고 제203전차연대 제3대대 등 총 7개 전차대대는 북한군의 주공인 철원-서울 축선에 투입되었고 제203전차연대(-1개 대대)는 개성 축선에 투입되었다. 개전 초기 전투에서 전차연대들은 보병사단의 공격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서울 북방에서 전개된 초기 전투는 북한군 전차부대의 전술적 문제를 드러내었다. 제109전차연대는 6월 25일 오후 늦게 소흘리(蘇屹里)에 도착했으나 전차가 기동할 수 있는 도로를 찾지 못해 이곳에서 곧바로 남진하지 못하고 신읍리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제109전차연대는 6월 26일 오후 늦게서야 의정부 지역에 진출할 수 있었다. 북한군 제1보병사단을 지원한 제203전차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충분한 공병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진강 교량이 파괴되자 진격이 중단되었다. 이후 도하 과정에서도 일부 전차를 강에 빠트리는 등 비전투 손실을 입었다.

북한군은 6월 27일 의정부 방면에 제107전차연대와 제109전차연대를 집중시켜 한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도로를 따라 행군대형을 취한채 공격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대전차 방어수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차부대 집중 운용의 강점을 살릴 수 없었다. 소련의 군사교범을 번역한 『장갑땅크 및 기계화부대 전투규정』은 전차여단이 공격대형으로 전개하기 전 소개대형 상태에서 정면 800~1,200m, 전차

대대는 소개대형 상태에서 정면 400~600m로 전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차대대의 공격시 정면은 600~1,000m였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전투대형을 갖추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지형이 드물고 기동로가 한정되어 행군대형 상태에서 전투를 치르는 경우가 잦았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북한군이 전차를 보병 지원에 맞춰 운용하고 전차부대의 기동 속도를 보병의 진격 속도에 맞추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전협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병이 전차를 엄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이는 북한군 전차부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방 공격에 피해를 입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군의 전차 운용 경험 부족은 이어진 미군과의 교전에서도 드러났다. 북한군은 보병을 수송할 수 있는 장갑차가 없고 차량도 부족했다. 이 때문에 전차 엄호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군과 같이 T-34-85의 차체에 분대 규모의 보병을 탑승시켰다. 또한 유엔군 공군의 지상 차단 작전이 활발해지면서 전차 부대의 주간 기동이 불가능해졌다. 북한군은 1950년 7월 중순 이후 부대 기동을 야간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동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전차부대의 기동 속도가 저하되었다.

북한군 전차병의 낮은 숙련도는 미군이 전차 부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하면서 명확히 드러났다. 미군이 1950년 여름~가을 전역의 전차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엔군 전차가 북한군 전차에 의해 격파된 경우는 전체 전투손실의 10.1% 가량으로 지뢰에 의한 손실(38.1%)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전차간 교전시 미국 전차병들은 350m 이하의 단거리 교전에서 첫 번째 포탄을 명중시킬 확률이 84%에 달했으나 북한 전차병들은 50%에 불과했다. 351~750m 거리에서는 미군 전차병의 초탄 명중률이 63%였으나 북한군 전차병은 23%에 불과했다. 미군 전차병들은 1,150m 이상의 거리에서도 16%의 초탄 명중률을 기록했으나 북한군 전

차병은 같은 거리에서 초탄 명중을 기록한 사례가 없다. 일반적으로 미군 전차병이 북한 전차에 먼저 포탄을 명중시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미군이 M4A3E8 전차와 M26, M46 등의 중형전차를 전장에 투입하자 북한군의 T-34-85전차는 전차전에서 일방적인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38선 이북으로 후퇴한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에 대비하기 위해 급거 재편성을 실시했다. 가장 먼저 재편성에 들어간 전차부대는 제17기계화사단이었다. 제17기계화사단은 38선 이남에서 모든 전차와 중장비를 잃고 북한으로 퇴각한 후 41대의 T-34-85 전차를 보충받아 외형상 전투력을 회복했다. 또한 제41, 45, 46전차연대가 급히 편성되어 각각 T-34-85 전차 10대씩을 보급받았다. 1950년 9월 서울 전투에서 괴멸된 제43전차연대는 13대의 T-34-85 전차를 보급받았다. 그러나 전차병을 교육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차병의 수준은 낙동강 공방전 시기 보다 저하된 상태였다. 제17기계화사단은 1950년 10월~11월의 방어작전 시기에 미 제1군단을 상대로 지연전을 시도하다가 대부분의 전차를 상실하고 괴멸되었다. 한편 북한군 수뇌부는 제17기계화사단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면서 제105전차사단의 잔여 병력은 만주로 철수시켜 재편성을 실시했다. 제105전차사단은 재편성 되면서 사단 예하에 1개 전차연대와 2개 기계화연대를 두는 편제로 개편되었다. 이 사단은 재건된 이후 공격작전에 투입되지 않고 후방 지역에 예비대로 배치되었다. 1953년 휴전 당시 북한군의 기갑전력은 8개 연대(제104·105·106·107·109·206·156·485)로 증강된 것으로 추정된다.

6·25전쟁 후반기에 전차를 공격작전에 투입한 것은 중공군이었다. 중국은 1951년 소련에서 330대의 T-34전차와 60대의 IS-2 중전차, 40대의 ISU-122 자주포를 도입했다. 이때 도입된 전차의 대다수가 한국 전선에 투입되었다. 중공중앙군사위원회는 1951년 2월 전차부대를 한

반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중공군은 한국 전선의 전차부대들을 지휘하기 위해 장갑병지휘소를 편성하고 1951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제1전차사단과 제2전차사단 3전차연대, 독립 제6전차연대를 한반도에 투입했다. 중공군의 전차부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됐다.

1951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독립 제1전차연대가 투입되어 독립 제6전차연대와 교대하였다. 중공군은 1951년 추계전역에서 중공군 전차부대가 충분한 전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1952년 초 2차로 제3전차사단(5·6전차연대), 제2전차사단 4전차연대를 파견했다. 1952년 10월에는 독립 제1전차연대가 중국으로 돌아가고 독립 제2전차연대가 투입되었다. 독립 제2전차연대는 제24군에 배속되었다. 1952년 12월에는 중국에서 재편성을 마친 제1전차사단과 독립 제3전차연대가 한반도에 투입되어 공산군의 예비대가 되었다. 중공군은 1953년 5월부터 제2전차사단 4전차연대, 제3전차사단 6전차연대 독립 제2전차연대 등 3개연대를 투입해 마지막 공세를 지원했다.

중공군은 주공 축선의 군단에는 통상 1개 전차연대를 배속하고 부차적인 축선의 군단에는 1~2개 전차중대를 배속했다. 중공군은 1951년 하반기 이후 서부전선의 고지 쟁탈전에서 보병의 공격을 엄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보병 1개 연대가 공격할 때 중대 규모 이하의 전차를 지원했다. 미군은 중공군이 전차를 돌파의 선봉에 세우는 대신 돌격하는 보병의 후방에서 화력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중공군이 전차를 최대 규모로 운용한 것은 1953년 7월 금성돌출부 공세였다. 중공군은 금성돌출부 전투 당시 약 20대의 T-34-85 전차를 투입해 보병의 공격을 엄호했다.

중공군의 전차 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았다.

중공군은 전쟁 기간 중 총 14대의 T-34-85 전차를 잃었다. 이중 1대는 영연방군이 1951년 11월 중공군 제1전차연대로 부터 노획하여 현재 보빙턴(Bovington) 전차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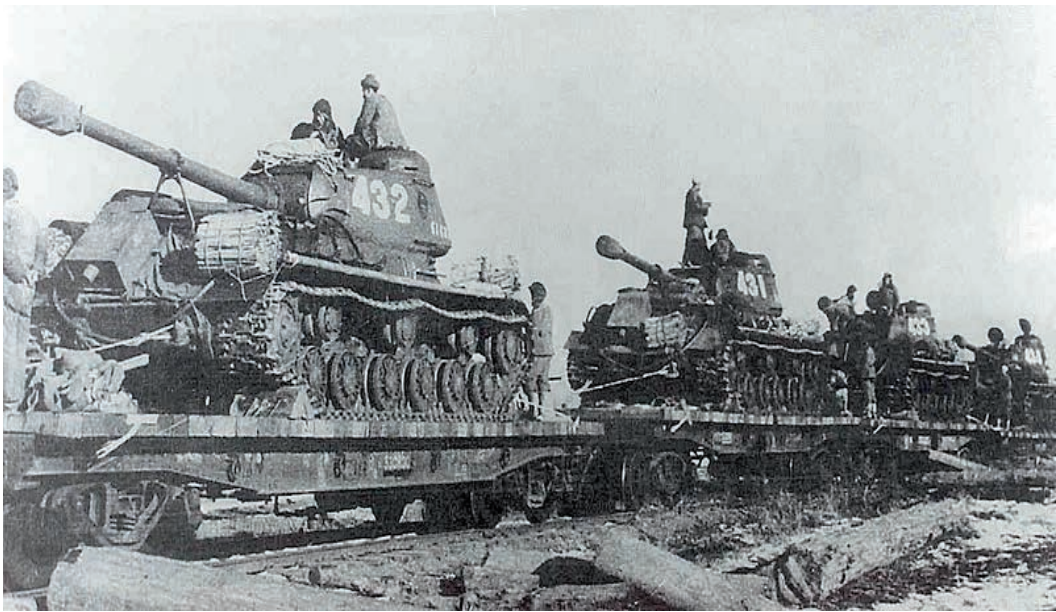
- 민족보위성, 『T-34 탱크 운전수의 간단한 주의사항』, (간행연도 미상)
-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장갑탱크 및 기계화부대 전투규정』, (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
-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장갑탱크 및 기계화부대에있어서 탱크와 자동포 관리교범』, (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
- CIA, Information Report 00-T-00061 Engineering Analysis of the Russian T34/85 Tank(1951. 9)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R-1(FEC)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ume I(1951. 4. 8)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사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 台运真, 『万箭齐发: 志愿军发起全线战术反击作战』, (吉林: 吉林出版事业有限公司, 2014)
- 田越英, 『中国军兵种』(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13)
- 张明金·刘立勤, 『中国人民志愿军 历史上的27个军』(北京: 解放军出版社, 2014)
- Michulec, Robert. *T-34 Mythical Weapon* (Mississauga: Air Connection, 2007)
- War Department, *Handbook on USSR Military Forces*(1946. 3)
-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 , *T-34-85 vs M26 Pershing: Korea 1950* (Oxford: Osprey, 2011)
- 김재복, 「선두척후로서의 독립적 탱크 중대에 대하여」 『군사지식』8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



IS-2 중전차

개요

IS-2 중전차는 제2차세계대전 후반 소련이 개발한 중전차이다. KV중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소련의 군사원조로 도입하여 전차연대 예하 중전차 중대에 배치해 운용했다.



- 열차에 실려 이동하고 있는 중공군의 IS-2 중전차
- 출처 : <<抗美援朝战争后勤经验总结>>编委会, 『抗美援朝战争后勤经验总结 图片选集』, (北京: 长城出版社, 1989) 48쪽.

연혁 및 제원

IS-2 중전차는 제2차세계대전 초기 소련군이 사용하던 KV-1 중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중전차이다. 독일군이 1942년부터 신형

75mm 대전차포와 티거 중전차와 같은 신무기를 투입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다. 소련 국방인민위원회는 1943년 2월 24일 제 185호 공장과 제100호 공장에 독일군의 신형 중전차에 대항할 신형 중전차를 개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형 중전차는 KV-13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KV-13의 차체를 개량하고 85mm D-5T 전차포를 탑재한 차량은 IS-1, KV-1S 중전차에 85mm D-5T 전차포를 탑재한 차량을 KV-85라는 명칭을 받고 1943년 10월부터 1944년 1월까지 소량이 생산되어 실전 시험을 받았다. 그 결과 85mm D-5T 전차포는 독일군 신형 전차를 상대로 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대안으로 122mm U-11 곡사포를 탑재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IS중전차 개발팀은 122mm U-11 곡사포의 제퇴기구와 122mm A-19포의 포신, 122mm M-30 곡사포의 포가를 결합해 D-25T 전차포를 만들었다. 122mm D-25T 전차포를 탑재한 시제품 Object240은 1943년 10월 31일 IS-2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양산이 결정됐다. IS-2 중전차는 우수한 방어력과 공격력으로 제2차세계대전 말기 소련군의 공세 작전에서 큰 활약을 했다.

IS-2 제원

구분	IS-2	
승무원	4명	
전장/너비	6.77m/3.07m	
전고	2.73m	
엔진출력	600마력(V-2-IS 디젤엔진)	
중량	46.08톤	
최고속도	37km/h	
항속거리	포장도로	150km(외부연료탱크 사용시 230km)
	야지	120km(외부연료탱크 사용시 185km)

등판능력	+36°	
참호 돌파능력	2.5m	
방어력	차체정면	120mm/60°
	차체측면	90mm/15°
	포탑정면(포방패)	100mm
무장	122mm D-25T 전차포 1문(포탄 탑재량 28발)	
	7.62mm DT 기관총 3정	

- 출처 : Higgins, David R., *King Tiger vs IS-2: Operation Solstice 1945*, (Oxford: Osprey, 2011)

운 용

중국은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에서 330대의 T-34전차와 60대의 IS-2 중전차, 40대의 122mm 자주포(ISU-122)를 도입했다. 이때 도입된 전차의 다수가 한국 전선에 투입되었다. 소련 정부는 신형 IS-3 중전차를 배치하면서 2선급 장비가 된 IS-2 중전차를 중공군에 공급했다.

IS-2 중전차 중 일부는 한국전선의 전차연대에 배치되었다. 1951년 여름 중공군은 총 30대의 IS-2 중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전차연대는 T-34-85와 IS-2 중전차가 혼성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IS-2 중전차는 전차연대 예하의 중전차중대와 자주포중대에 배치되었다. 중전차중대는 각 연대의 제4중대로서 2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중전차소대는 중형전차소대와 달리 1개 소대가 2대로 편성되었다. 중공군 전차연대의 중전차중대는 지휘관 전차 1대를 포함해 총 5대로 편성되었다. 자주포중대에 배치된 IS-2 중전차는 지휘차량으로 사용되었다.

1951년 이후 고지쟁탈전의 특성상 IS-2 중전차는 보병의 공격을 지원하면서 화력을 지원하거나 T-34-85 전차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방식으

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122mm 주포의 강력한 고풍탄은 유엔군의 방어 진지를 격파하는데 위력을 발휘했다. 1951년 11월 4일 중공군 제1전차연대는 제191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T-34-85 전차 8대와 IS-2 중전차 2대를 투입했다. 중국측은 이날 전투에서 제1전차연대 4중대 소속의 IS-2 중전차 한 대(402호차)가 영연방군의 벙커 6개와 다수의 화기진지를 격파해 보병의 돌파구를 열고 제191사단의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52년 10월 2일 경기도 장단군 서장리의 67고지 전투에 중공군 제5전차연대 4중대의 IS-2 중전차 4대가 투입되어 보병과 T-34-85 전차들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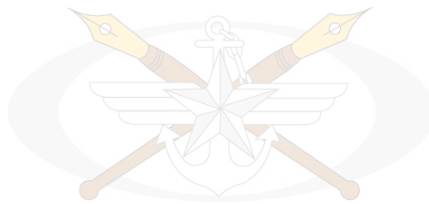
IS-2 중전차는 유엔군과 국군의 전차처럼 고지에 배치되어 자주포처럼 운용되기도 하였다. 122mm D-25T 전차포는 122mm 곡사포와 평사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곡사로 화력을 지원하는데 유용했다.

중공군이 전차를 대규모로 투입한 사례가 드물고 IS-2 중전차는 숫적으로 소수였기 때문에 6·25전쟁기 IS-2 전차의 실전 운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IS-2 중전차 4대를 상실했다. IS-2 중전차는 중공군이 처음으로 보유한 중전차로서 이후 중국이 자국산 전차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이 IS-2 중전차 또는 IS-3 중전차를 보유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으나 이는 북한군 포로들이 장비 식별을 하지 못해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있었던 착오이다. 북한군은 6·25전쟁 시기에 공식적으로 IS계열 중전차를 운용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 田越英, 『中国军兵种』 (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13)
- 台运真, 『万箭齐发: 志愿军发起全线战术反击作战』, (吉林: 吉林出版事业有限公司, 2014)
- Higgins, David R., *King Tiger vs IS-2: Operation Solstice 1945*, (Oxford: Osprey, 2011)
- Zaloga, Steven J., *IS-2 Heavy Tank 1944-73*, (Oxford: Osprey, 2011)
- Li Chen, 'From Civil War Victor to Cold War Guard: Positional Warfare in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1951-1953'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8-1&2, 2015





BA-64B 경장갑차

개요

BA-64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개발해 배치한 경장갑차이다.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총 9,063대가 생산되었다. 북한군에도 도입되어 6·25전쟁 당시 정찰, 추격 임무에 사용되었다.



- 1950년 7월 초 아군이 노획한 BA-64B 경장갑차.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소련군은 1941년 BA-20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 차종의 소요를 제기했다. 신형 장갑차는 소련군이 운용하던 경차량 GAZ-64의 차대를 바탕으로 개발에 들어갔다. 시제품의 조립은 1941년 12월 5일 시작되어 1942년 1월 9일 주행 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다. 1월 9일의 주행 시험은 성공적이었다. 1942년 2월 17일에는 BA-64라는 제식명을 부여받았다. 3월 3일에는 스탈린을 비롯한 당지도부의 시찰을 받고 3월 14일에는 소련 국방위원회의 최종 양산 승인을 받았다. 양산은 1942년 4월 고리키 자동차공장에서 시작됐다.

1942년 5월 BA-64의 야전 부대에 배치가 진행되면서 몇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작은 차체 때문에 발생하는 열기가 문제였다.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아 운행시 차내 온도가 55~60도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진실 위에 환기구를 추가했다. 기계적 신뢰성이 낮은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설계 당시 10,000km 이상 주행 후 창정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야전 부대 운용결과 그 절반도 안 되는 4,000km 주행이 한계였고 일부 부대에서는 1,000km 주행 만으로 기계적 한계에 도달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전방 차축에 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단 기어를 놓으면 증가한 토크가 후방 차축에 집중되는데 있었다. 설계진은 1942년 11월 3일 임시적인 조치로 구동 방식을 상시형 4륜구동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1943년 2월부터 차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같은 시기에 현가장치를 강화하는 개량도 행해졌다.

1942년 6월 5일부터 14일 사이에 고리키 자동차공장은 독일 공군의 폭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6월 7일부터 BA-64 장갑차의 생산이 일시

중단되었다. BA-64의 생산 라인을 복구하는 동안 이 차량의 개량이 진행되었다. 개량된 BA-64의 시제품은 1942년 10월 조립되어 같은 달 말부터 주행 시험에 들어갔다. 개량형은 BA-64B 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받았다. BA-64B는 1943년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BA-64B는 1946년에 생산이 중단됐으나 수리용 예비부품의 생산은 1953년까지 계속되었다.

BA-64B 제원

구분	BA-64B	
승무원	2명	
전장/너비	3.67m/1.69m	
전고	1.85m	
엔진출력	54마력(GAZ-MM 디젤엔진)	
연료탑재량	90리터	
중량	2.425톤(전투중량)	
최고속도	포장도로	85km/h
	야지	22km/h
항속거리	포장도로	560km
	야지	335-450km
방어력	차체정면	12mm
	차체측면	12mm
	차체후면	6-11mm
무장	7.62mm DT 기관총 1정	

- 출처 : Kinnear, James., *Russian Armored Cars 1930-2000* (Darlington: Darlington Productions, 2000), p.72.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BA-64B 장갑차를 도입하여 제105전차여단 및 제603모터싸이크 연대(이하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에서 사이드카와 함께 정찰용으로 운용하였다.

북한 제105전차여단 예하에는 제303기동정찰대대가 정찰 임무를 담당했다. 기동정찰대대는 BA-64B 장갑차와 M-72 모터사이클을 보유했다. 제105전차여단은 다수의 정찰장갑차를 보유했음에도 정찰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첫날인 6월 25일 제107전차연대와 함께 의정부 방면 공격 임무를 담당한 북한군의 제109전차연대는 정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동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제107전차연대와 함께 공격을 수행하지 못하고 제107전차연대의 후미에서 진격로를 따라 이동하여 전투에 참가할 수 없었다. 북한군 정찰부대가 정찰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면 북한군 제109전차연대는 개전 초기에 원래의 계획대로 공격에 참여해 전과를 확대하고 국군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

미군과 북한군이 최초로 교전한 오산 전투 당시에도 북한군 전차부대는 사전 정찰 없이 전차를 미군의 방어진지에 돌입시켰다. 북한군 전차부대가 공격 전에 정찰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점은 유엔군과 국군의 대전차 화력이 강화되면서 점차 전술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부동 전투 당시 미 제27연대 방어정면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북한군은 8월 18일과 21일에 충분한 정찰 없이 미군이 매복한 지역으로 전차와 자주포 부대를 투입했다. 특히 21일 전투에서는 북한군이 T-34/85 전차 9대와 SU-76M 자주포 4문을 상실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BA-64B 장갑차를 대량으로 운용한 또 다른 부대는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였다. 북한은 1950년 5월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를 창설했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BA-64B 장갑차 54대와 사이드카, 45mm 견인식 대전차포, 120mm 박격포를 장비했다. BA-64B 장갑차는 장갑차 대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북한군 제12보병사단이 국군의 방어선에 돌파구를 뚫은 뒤 투입되어 홍천-원주를 거쳐 수원을 점령하고 서울에 배치된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춘천~홍천 방향의 국군 제6사단이 성공적으로 방어전투를 수행하면서 지연전을 전개했고 홍천-원주-이천-수원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차량의 운행에 부적합 했기 때문에 북한군은 BA-64B 장갑차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소련군사고문단은 차량화부대의 활동역량을 고려하지 않은채 산악 지형을 진격로로 설정한 점을 과오라고 인정했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의 추격 작전은 1950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도로가 불량해 신속한 기동이 어려웠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의 선두 병력은 7월 3일 새벽에야 여주군 이포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고속으로 추격전을 전개하지 못하고 보병 부대와 함께 이동해 기동력을 살리지 못했다.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에 실패한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던 북한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 대전전투 이후 제6보병사단과 함께 호남지역으로 진입했다. 호남 방면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의 저항이 미약했기 때문에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신속한 기동으로 호남의 주요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1950년 8월 13일 진주를 점령한 뒤 이곳에 10일간 머무르면서 휴식 및 차후 작전을 준비했다. 이후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의 주력은 제6보병사단을 지원하여 마산 방면 공격에 투입되었고 일부 전력은 통영 공격 지원에 투입되었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마산

공방전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BA-64B 장갑차를 대부분 상실했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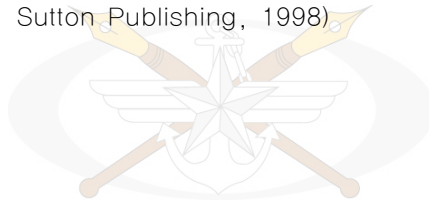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Kinnear, James., *Russian Armored Cars 1930-2000* (Darlington: Darlington Productions, 2000)

Ness, Leland, *World War II tanks and fighting vehicles : the complete guid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2)

War Department, *Handbook on USSR Military Forces*(1946. 3)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공산군의 차량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의 차량화 수준은 높지 않았다. 북한군이 운용한 주력 차량은 ZIS-151, GAZ-51, GAZ-63, ZIS-5 등의 소련제 트럭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제 차량도 징발하여 사용했다. 북한군은 차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전 초기에 노획한 국군과 미군의 미국제 차량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독립연대급 이상의 부대 중에서는 제105전차여단, 제603모터사이클연대, 제17포병연대만이 부대 전체가 차량화 되어 있었다. 일반 보병사단은 포병연대 같이 중장비를 운용하는 전투부대만이 차량을 보유했으며 위생대대(의무대대)와 같은 비전투 직할부대는 부분적으로 차량화 되어 있었다. 개전 직전 북한군 보병사단은 편제상 228대의 트럭을 보유했다. 보병연대 이하의 부대에서는 중장비 견인을 위해 우마차를 사용했다. 실제로는 편제에 맞춰서 차량을 보급받지 못한 사단들이 있었다. 북한군 제13사단 포병연대는 편제상 145대의 트럭을 보유해야 했으나 개전시 보유한 트럭은 37대에 불과했다.

북한군이 개전 초기에 보유했던 차량은 1950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대부분 소모되었다. 북한군은 차량화 수준이 악화되면서 원래 차량을 보유했던 부대들에 우마차를 도입했다. 북한군 제15사단 포병연대의 경우 창설 당시에는 편제대로 트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50년 9월 초에는 모든 트럭을 상실하고 말을 동원해 야포를 견인했다. 1951년 4월 1일 북한 민족보위성 직할부대의 차량 보유량은 편제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했다. 1951년 이후 북한군 일선 사단의 차량 보유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지만 1950년 수준을 상회하지는 못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표〉 1951년 4월 1일 북한 민족보위성 직할부대의 차량 보유 현황

부대	편제수량				실제수량				부족분			
	소형차	수송차	특장차	합계	소형차	수송차	특장차	합계	소형차	수송차	특장차	합계
차량화연대	15	445	30	490	3	76	11	90	12	369	19	400
제3차량화대대		165	11	176	3	50	6	59		115	5	120
제4차량화대대		165	11	176	1	74	7	82		91	4	95
제6차량화대대		165	11	176	2	57	10	69		108	1	109
제1차량화대대		165	11	176	1	114		115		51	11	62
제2차량화대대		165	11	176	2	130		132		35	11	46
자동차학교		42	2	44	2	47		49			2	
제1정비대대		8	12	20		6		6		2	12	14
제2정비대대		8		21	2	4		8		4	10	14
예비대대		12		13	1	4		5		8		
통제소		5		7	1	4		6		1		
제5차량화대대		135	135	135		100		100		35		
중앙직속창고						1						
계	20	1,480	234	1,610	18	667	34	721	12	819	75	860

■ 출처 :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비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73쪽.

※ 원문의 통계를 그대로 옮겨 일부 수치가 맞지 않는다.

북한군은 일반 차량 외에 S-65 트랙터와 같은 특수목적 차량을 소수 도입하여 운용했다. S-65 트랙터는 제17포병연대에서만 사용했다. S-65 트랙터의 도입 규모는 최소 24대로 추산된다.

중공군 또한 차량화 수준이 매우 뒤떨어졌으며 전차사단을 비롯한 일부 기계화부대, 독립포병부대, 수송을 담당하는 독립자동차 부대 정도가 차량화 되어 있었다. 중공군은 국공내전 후반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송을 담당할 자동차부대를 편성하기 시작했다. 1948년 부터 각 군구 및 야전군 직할 부대로 수송을 담당할 연대급의 자동차부대를 편성하기 시작했다. 국공내전 기간 중 중화민국 군대가 대규모로 항복하면서 중공군은 다수의 운전병과 미국제 및 일본제 차량을 획득했다. 1949년 말 까지 편성된 각 야전군 직할 자동차연대는 다음과 같다.

〈표〉 국공내전 시기 중공군 군구·야전군직할 자동차부대 편성 상황

	부대	편성시기	편제	비고
화북군구	제1연대	1948. 11.	차량 334대	
	제2연대	1948. 12.		
	제3연대	1949. 5.	차량 177대	1950. 4. 제1연대에 통합
	제4연대	1949년 초		1950. 2. 제1연대에 통합
	제5연대	1949년 초		1950. 2. 제2연대에 통합
	화북군구독립자동차대대	1948. 5	자동차중대 3 정비소대 1	1949. 3. 제3연대에 통합
	기중(冀中)자동차대대			

화동군구 제3야전 군	제1연대	1949. 2.	자동차대대 3 정비중대 1 차량 259대	
	제2연대	1949. 3. 5.	자동차대대 2 정비중대 1 차량 150대	
	제3연대	1949. 6. 1.	차량 313대	
	제4연대	1949. 5. 23.	차량 251대	
	제5연대	1949. 6.	차량 318대	1949. 10. 해체
동북군구 제4야전 군	제1연대	1947. 9.	차량 130대 (ZIS-5, 포드)	
	제2연대	1948. 2.		
	제3연대	1948. 5.	차량 230대	
	제4연대	1948. 9.	차량 200대	1948. 12. 해체
	제5연대	1948. 9.	차량 213대	
	기찰열료(冀察热辽)연대	1948. 10.		

- 출처 : 郭兆东·王跃波, 「战争年代我军组建的汽车部队(三)」, 『汽车运用』 2004年 6期, 49~50 쪽.; 郭兆东·王跃波, 「战争年代我军组建的汽车部队(四)」, 『汽车运用』 2004年 7期, 44~46쪽.

국공내전 후반기에 편성된 자동차부대들은 6·25전쟁 시기 중공군 자동차부대의 근간이 되었다.

중공군은 6·25전쟁에 참전하면서 이른바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지원군)을 조직했다. 중공군은 지원군 직할부대로 보급수송을 담당하는 임시

자동차연대(暫編汽車團)를 편성했다.

〈표〉 6 · 25전쟁시기 중공군 임시자동차연대 편성 상황

부대	편성시기	편제	비고
제1연대	1950. 10.		편성시 동북군구 후근부 운수부 제2분부 소속
제2연대	1951. 1.	자동차중대 6 정비중대 1	편성시 명칭은 제45자동차연대 1951. 10. 임시 제2자동차연대로 개칭
제3연대	1951. 3.	자동차중대 7(차량 356대) 정비중대 1	
제4연대	1950. 10.	자동차중대 7(차량 309대) 정비중대 1	편성시 동북군구 후근부 운수부 제3분부 소속 1951. 4. 임시 제4자동차연대로 개칭
제5연대	1950. 10.	자동차중대 7 정비중대 1	편성시 동북군구 후근부 운수부 제1분부 소속 1951. 4. 임시 제5자동차연대로 개칭
제6연대	1951. 1.	자동차중대 4 정비중대 1	편성시 명칭은 제46자동차연대 1951. 5. 임시 제6자동차연대로 개칭
제7연대	1951. 2.	자동차중대 7 정비중대 1	편성시 명칭은 제47자동차연대 1951. 6. 임시 제7자동차연대로 개칭
제8연대	1951. 1.	자동차중대 3 6개 중대로 증편(1951. 3.) 정비중대 1	편성시 명칭은 제13병단 후근자동차연대 1951. 5. 제41자동차연대로 개칭 1951. 10. 임시 제8자동차연대로 개칭
제9연대	1950. 12.	자동차중대 6 정비중대 1	편성시 명칭은 제42자동차연대 1951. 4. 임시 제9자동차연대로 개칭
제10연대	1951. 1.	자동차중대 9 정비중대 1	편성시 명칭은 제44자동차연대 1951. 10. 임시 제10자동차연대로 개칭

제11연대	1950. 11.	자동차중대 6 정비중대 1	편성시 백산(白山)자동차연대 1951. 10. 임시 제11자동차연대로 개칭
제12연대	1951. 8.	자동차중대 3 7개중대로 증편(1953. 4.) 정비중대 1	편성시 명칭은 제45자동차연대 1951. 10. 임시 제12자동차연대로 개칭
제13연대	1950. 12.	자동차중대 7 정비중대 1	편성시 동북군구 후근부 운수부 제1분부 소속 1951. 10. 임시 제13자동차연대로 개칭
제14연대	1953. 2.	자동차중대 6 정비중대 1	
제15연대	1953. 2.		
제16연대	1953. 1.	자동차중대 6 정비중대 1	
제17연대	1953. 1.	자동차중대 6 정비중대 1	
제18연대	1953. 1.	자동차중대 6 정비중대 1	
제19연대	1953. 1.	자동차중대 4 정비중대 1	

■ 출처 : 郭兆东·王跃波, 「战争年代我军组建的汽车部队(五)」, 『汽车运用』 2004年 8期, 47~48쪽.

중공군의 임시자동차연대는 일반적으로 6~7개 자동차중대로 편성되었다. 1개 자동차중대는 편제표상 45대의 트럭을 보유했다. 또한 병단 이하의 각 군은 평균 100대의 수송용 차량을 보유했다.

중공군은 참전 초기에 미국제와 소련제 차량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용했으나 점진적으로 소련제 차량을 도입해 장비를 통일해 나갔다. 그러나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 사이에 대량의 미국제 차량을 노획했기

때문에 전쟁 말기까지도 미국제 차량은 상당수가 남아있었다. 중공군은 휴전시까지 21,728대의 차량을 투입했고 이 중 7,729대를 상실했다.

중공군의 임시자동차연대는 물자 수송에 필요했기 때문에 6·25전쟁 휴전 이후에도 상당수가 북한에 잔류하면서 전후복구사업을 지원했다. 1955년 중국인민지원군 후방사령부 예하에는 10개(1, 2, 3, 4, 5, 6, 7, 9, 10, 12)의 임시자동차연대가 남아있었다. 1956년에는 이 중에서 3개(3, 4, 6) 연대가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7개 연대는 1958년 중공군의 마지막 철수 당시 귀환했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王亚志, 『彭德怀军事参谋的回忆：1950年代中苏军事关系见证』 (复旦大学出版社, 2009)

郭兆东·王跃波, 「战争年代我军组建的汽车部队(四)」, 『汽车运用』 2004年 7期

郭兆东·王跃波, 「战争年代我军组建的汽车部队(五)」, 『汽车运用』 2004年 8期



ZIS-151 트럭

개요

ZIS-151 트럭은 제2차세계대전 직후 소련군이 도입한 대형 트럭이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의 수송부대와 포병부대에서 운용했다. BM-13 방사포 탑재 차량 등으로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ZIS-151 트럭은 제2차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도입된 트럭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948년 4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생산된 초기형은 ZIS-120엔진을 탑재했으며 1950년부터 ZIS-121엔진을 탑재하게 되었다. 소련군은 ZIS-151 트럭을 병력 및 화물 수송, 대형 화포의 견인, BM-13 방사포 탑재차량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ZIS-151 트럭의 차대를 기반으로 BTR-152 병력수송 장갑차를 개발했다. ZIS-151 트럭은 군용으로 개발되었지만 화물적재량이 많아 대규모 협동농장 등 민간 부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ZIS-151 트럭 제원

구분	ZIS-151
승무원	1명
전장/너비	6.93m/2.32m
전고	2.74m
엔진출력	92마력(ZIS-121 디젤엔진)
중량	5.54톤
최고속도	60km/h
화물 적재량	4.5톤

- 출처 : 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Appendix I*,(1952), p.42.

운 용

북한군은 ZIS-151 트럭을 대형화포 견인, 물자수송용으로 운용했다. 북한군 포병연대는 122mm 곡사포 견인용으로 ZIS-151 트럭을 사용했다. 또한 민족보위성 직할의 운수대대가 숫자 미상의 ZIS-151 트럭을 수송용으로 사용했다. 북한군 포로들의 진술에 따르면 민족보위성 직할의 운수대대는 약 150대의 ZIS-151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군단 직할로 운수대대를 편성한 것이 확인된다. 군단직할의 운수대대는 ZIS-151 트럭을 포함해 약 30대의 트럭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보병사단은 직할대로 1개 운수대대를 두었는데 사단 직할의 운수대대는 완전히 차량화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제10사단의 경우 1950년 8월 말~9월 초 사단 직할 수송부대가 3개 소대로 편성된 1개 중대에 불과했다. 제10사단 운수중대는 총 6대의 ZIS-151 트럭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1951년부터 ZIS-151을 도입하여 병력 및 화물 수송, 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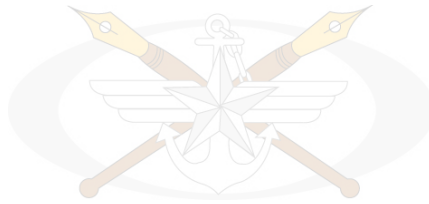
화포 견인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중공군이 전쟁 기간 중 운용한 BM-13 방사포는 ZIS-151 트럭에 로켓발사대를 탑재한 형식이었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Siegelbaum, Lewis H., *Cars for Comrades: The Life of the Soviet Automobil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GAZ-51/GAZ-63 트럭

개요

GAZ-51 트럭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운용한 트럭이다. 공산군이 운용한 트럭 중 숫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병력 및 물자 수송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 중공군의 GAZ-51 트럭
- 출처 : <<抗美援朝战争后勤经验总结>>编委会, 『抗美援朝战争后勤经验总结 图片选集』, (北京: 长城出版社, 1989) 57쪽.

연혁 및 제원

GAZ-51 트럭은 1937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 시제품은 1939년 1월 완료되어 도로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소련 정부는 GAZ-51 트럭을 1941년부터 양산하려 했으나 독일의 침공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취소되었다. 한편 전쟁 중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트럭이 원조되면서 소련 기술자들은 미제 트럭의 장점을 반영하여 GAZ-51의 시제품을 개선했다. 엔진 등을 개선한 시제품이 1944년 5월 완성되었다. 소련 정부는 1945년 6월 19일 개선된 GAZ-51의 양산을 허가했다.

GAZ-51 트럭의 생산은 1946년부터 시작됐다. 이 트럭은 기존에 소련에서 생산했던 트럭들에 비해 주행성과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되어 호평을 받았다. 초기형 GAZ-51 트럭의 생산은 1955년까지 계속되었다.

GAZ-63은 GAZ-51을 기반으로 개발된 4륜 구동트럭이다. 구성품의 80%를 GAZ-51과 공유했다. 194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GAZ-51/GAZ-63 트럭 제원

구분	GAZ-51	GAZ-63
승무원	1명	1명
전장/너비	5.71m/2.28m	5.52m/2.2m
전고	2.13m	2.25m
엔진출력	70마력(GAZ-51 디젤엔진)	70마력(GAZ-51 디젤엔진)
중량	2.7톤	3.2톤
최고속도	70km/h	65km/h
화물 적재량	2.5톤	2톤
항속거리	416km(포장도로)	456km(포장도로)

- 출처 : 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Appendix I*, (1952) pp.39~39.

북한은 소련을 통해 GAZ-51 트럭과 GAZ-63 트럭을 도입했다. 이 트럭들은 병력 및 물자 수송, 야포 견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GAZ-51 트럭은 비교적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북한군 보병사단의 포병 연대는 76.2mm 사단포 견인을 위해 24대의 GAZ-51 트럭을 운용했다. 120mm 중박격포 중대 같은 보병연대 직할부대까지 GAZ-51 트럭이 배치된 것이 확인된다. 보병연대 직할 중박격포 중대는 120mm 박격포 견인을 위해 4대의 GAZ-51 트럭을 보유했다. 북한군 보병사단직할 위생대대(의무)의 경우 구급차로 GAZ-51 트럭을 사용했으나 구급차 용도로 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형이 배치되었다.

북한군은 개전 초기 유엔군 공군에 의해 제공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간에 트럭을 포함한 차량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방어력이 전무한 GAZ-51 트럭은 기총사격으로도 쉽게 무력화 되었다. 북한군은 미군의 참전 이후 공습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야간에 운행했으나 이러한 운용 방식은 사고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높였다. 중공군도 1951년 부터 GAZ-51과 GAZ-63을 대량으로 도입했다.

북한은 6·25전쟁 기간 중 사용한 GAZ-51 트럭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해 1958년부터 승리58이라는 명칭으로 면허생산하였다. 중국 또한 GAZ-51 트럭을 NJ-130이라는 이름으로 면허생산하였다.

참고문헌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 Siegelbaum, Lewis H., *Cars for Comrades: The Life of the Soviet Automobil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ZIS-5 트럭

개 요

ZIS-5 트럭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운용한 트럭이다. GAZ-51 트럭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다.



- 6·25전쟁 이전 북한 노동당 행사에 등장한 ZIS-5 트럭. DShK 중기관총을 탑재한 대공차량이다.
- 출처 : RG242

연혁 및 제원

ZIS-5트럭은 소련의 자동차 엔지니어 바진스키(Evgenii I. Vazhinskii, 1889-1938)의 주도하에 개발된 3톤급 트럭이다. 1934년부터 생산되었다. 이 트럭은 1930년대 초중반 소련에서 개발된 트럭 중에서 우수한 신뢰성을 자랑했다. 또한 도로 사정이 열악한 소련의 환경에서 운용하는데 편리했다. 비슷한 시기 GAZ에서 생산한 GAZ-AA 보다 기계적 성능과 신뢰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1942년 6월부터 소련군용으로 개량형인 ZIS-5B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ZIS-5B는 전시 대량생산에 적합하도록 전조등 숫자를 한 개로 줄이고 일부 마감을 생략한 형식이였다.

ZIS-5 트럭 제원

구분	ZIS-5
승무원	1명
전장/너비	6.05m/2.23m
전고	2.15m
중량	3.4톤
최고속도	60km/h
화물 적재량	4.4톤
항속거리	176km(포장도로)

- 출처 : 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Appendix I*,(1952), p.40.

ZIS-5 트럭은 신형 GAZ-51 트럭을 보급받지 못한 부대에서 GAZ-51 트럭을 대신하여 운용했다. 1947년 인민집단군 편성시 소련제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구식화된 ZIS-5 트럭이 배치되었다. 76.2mm 사단포 견인, 대공기관총 탑재 차량, 병력 및 화물 수송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북한군 제15사단 포병연대 등 76.2mm 사단포 견인용으로 GAZ-51을 지급받지 못한 부대는 대신 ZIS-5 트럭 24대를 운용했다.

중공군은 1945년 국공내전 당시 소련으로부터 소량의 ZIS-5 트럭을 도입해 운용했다. 이중 일부가 6·25전쟁 당시에도 사용되었다. 중국이 1951년부터 소련으로부터 신형 장비를 대거 도입하면서 GAZ-51, GAZ-63 등의 신형차량에 밀려 점진적으로 도태되었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Siegelbaum, Lewis H., *Cars for Comrades: The Life of the Soviet Automobil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GAZ-67B 승용차

개요

GAZ-67B는 제2차세계대전 중 소련에서 개발한 4륜구동 소형 승용차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서 지휘, 정찰, 연락, 견인 등의 임무에 사용되었다.



- 1950년 8월경 국군 수도사단이 노획하여 사용한 GAZ-67B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GAZ-67은 GAZ-64의 후속 차량으로 1943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 1943년 봄 시제품이 만들어졌다. 시제품은 1943년 9월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은 뒤 양산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GAZ-67의 양산은 1943년 9월 말부터 시작되어 일선부대에 배치되었다. GAZ-67은 1943년에 718대가 생산되었다. 개량형인 GAZ-67B는 194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GAZ-67B는 1944년에 2,419대, 1945년에 6,068대가 생산되었다.

GAZ-67B 제원

구분	GAZ-67B
승무원	1명
전장/너비	3.35m/1.69m
전고	1.7m
엔진출력	54마력(GAZ-67 디젤엔진)
중량	1.32톤
최고속도	90km/h
화물 적재량	0.45톤

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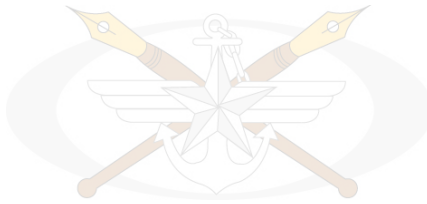
북한군은 이 차량을 지휘관용 승용차, 경찰, 수송, 중기관총 및 82mm~120mm 박격포 견인 등의 임무에 사용했다.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PM M1910/1930 중기관총, 82mm 박격포, 120mm 박격포 등을 GAZ-67B 지프로 견인했다. 지휘관용 차량은 무전기를 탑재하고 운용되었다.

1950년 9~10월 사이에 대량으로 노획되어 국군에서도 운용했다. 예비부품 조달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획된 차량들은 장기간 운용됐다. 국군 제1보병사단은 1952년 4월 초에도 GAZ-67B를 3대 보유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모터사이클(M-72)

개요

M-72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기계화부대가 정찰 및 연락용으로 운용한 2륜 차량이다. 사이드카 형식이 주로 운용되었다. 북한군은 모터사이클(M-72)를 ‘모또찌끌’이라고 명명하였다.



- 1950년 7월 초 아군이 노획하여 이송중인 M-72 사이드카
- 출처 : RG111,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소련군은 1940년 핀란드와의 전쟁 직후 신형 오토바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세르듀코프(N. P. Serdyukov)가 이끄는 설계진은 독일 BMW R71 오토바이를 기반으로 신형 오토바이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BMW R71을 복제생산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M-72의 양산은 1941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M-72 제원

구분	M-72
승무원	1명
전장/너비	2.13m/0.81m
전고	0.96m
엔진출력	22마력
중량	350kg(사이드카)
최고속도	110km/h

운 용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M-72의 사이드카 형식을 도입하여 기계화부대의 정찰용으로 운용하였다.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 제105전차여단의 모터사이클 대대는 218대의 M-7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대대는 정찰 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기계화보병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M-72 사이드카를 대량으로 장비한 또 다른 부대는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였다.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6·25전쟁 발발 초기 춘천 방면에서 원주를 거쳐 수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투입된 지역은 산악

지형으로 도로가 불량했기 때문에 M-72를 고속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라주바예프 보고서』는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기동 계획이 부대의 기동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채 수립되어 기동력을 살릴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이 금강 방어선을 돌파한 뒤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호남 방면으로 투입되었다. 호남 지역에서는 부대의 기동력을 살려 신속한 기동이 가능했다. 이 연대는 이후 낙동강 전선에서 대부분의 사이드카를 상실했다.

중공군도 소련에서 M-72 사이드카를 도입해 운용했다. 중공군의 독립포병사단의 경우 편제상 44대의 사이드카를 정찰 및 연락용으로 보유했다.

참고문헌

-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1952. 7. 31)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S-65 트랙터

개요

S-65 트랙터는 소련에서 개발한 농업용 트랙터이다. 북한군은 전쟁 초기 S-65 트랙터를 122mm 평사포 견인용으로 제17포병연대에서 운용하였다.

연혁 및 제원

S-65 트랙터는 S-60 트랙터의 후속 차량이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 37,626대가 생산됐다. S-65 트랙터의 엔진인 M-17 디젤엔진은 출력이 높고 연비가 우수해 S-60 트랙터 보다 호평을 받았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전차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 S-65 트랙터 생산은 중단되었다. 소련군은 전쟁 이전에 사용된 S-65 트랙터를 중장비 견인을 위해 운용했다. 소련군은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 약 1만대의 S-65 트랙터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1946년부터 개량형인 S-80이 생산되었다.

S-65 트랙터 제원

구분	S-65 트랙터
승무원	1명
전장/너비	4.08m/2.41m
전고	2.15m
엔진출력	65마력
중량	11,120kg
최고속도	6.95km/h
항속거리	75km
최대견인중량	4,100kg

- 출처 : Volkert, Jochen., *Tyagatshi: Soviet Full-Trackted Artillery Tractors of World War 2 in Red Army and Wehrmacht Service* (Erlangen: Tankograd Publishing, 2006)

운 용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최소 36대의 S-65 트랙터를 도입해 운용했다. 이 트랙터는 제17포병연대에서만 운용했다. S-65 트랙터는 122mm 군단포 견인용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17포병연대의 1개 대대가 122mm 군단포 부족으로 122mm 곡사포 M1938을 장비했다. 122mm 곡사포 M1938을 장비한 대대도 견인 차량으로 S-65를 사용했다.

S-65 트랙터는 견인능력이 높았으나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반 트럭보다 느려서 신속한 이동이 어려운 S-65 트랙터는 유엔군 항공기의 공습에 특히 취약했다. 또한 트랙터가 느려서 부대 전체의 행군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작전상 신속한 기동이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중량이 무거운 점도 운용시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제17포병연대가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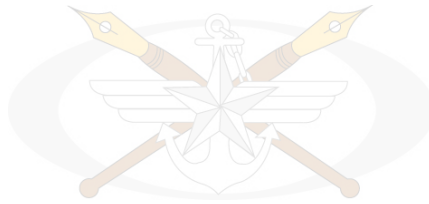
년 7월 3일 한강을 도하할 때 122mm 군단포와 S-65 트랙터를 개별적으로 운반해야 했다. 제17포병연대는 1950년 8월 초 까지 대부분의 트랙터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ATIS Interrogation Reports, Issue #3: North Korean Forces*(1950. 9. 6)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Volkert, Jochen., *Tyagatshi: Soviet Full-Track Artillery Tractors of World War 2 in Red Army and Wehrmacht Service* (Erlangen: Tankograd Publishing, 2006)





The Korean War

Ⅱ 해상 무기

- 01. 소해함정
- 02. 구잠정
- 03. 어뢰정



푸가스급 소해함

개요

푸가스(Fugas)급 소해함은 소련 해군이 1930년대 초반 도입한 소해함이다.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해군이 보유한 최대의 전투함이었다.



- 6·25전쟁 발발직전에 촬영된 북한해군 제3정대 소속의 푸가스급 소해함. 원래는 소련 태평양함대 소속의 T3 포드세카텔이었다.
- 출처 : RG242,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소련 해군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훈을 반영해 기뢰전을 수행할 대형 함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련 해군은 신형 소해함의 성능 요구조건으로 주력 함대를 동반해 작전을 할 수 있는 속력과 항속거리를 제시했다. 또한 대량 생산에 용이하도록 생산 가격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다. 1930년 10월 신형 고속소해함에 대한 기초연구가 완료되었다. 신형 소해함의 건조 명령은 1931년 11월 내려졌다. 그러나 건조에 필요한 물자 부족등으로 1933년 말이 되어서야 첫 번째함의 건조가 시작됐다.

푸가스급 소해함은 기뢰전 뿐만 아니라 상륙전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됐다.

푸가스급 소해함 제원

구분	푸가스급 초계함 (T.406)
승무원	60~66명
전장	62m
배수량	494톤(만재)
최고속도	34.16km/h
항속거리	6,108km(30km로 운항시)
무장	100mm B-24 함포 1문 45mm 21-K 1문 37mm 대공포 3문 12.7mm 기관총 3정 M-1 폭뢰 20발

북한은 1950년 소련 태평양함대 소속의 푸가스급 소해함 포드세카벨을 인도받았다. 북한은 이 함선을 31호함으로 명명했다. 1950년 7월 중순 미공군의 공습으로 격침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 같은 급의 T.2 트로스(Tros)와 T.8 체카(Cheka) 등 2척을 북한 해군에 인도했다. 북한 해군은 이 두척을 장기간 사용했으며 최소한 1척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개량을 받으며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건조한 사리원급의 설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Jordan, John., Conway Warship 2016 (London: Bloomsbury, 2016)





YMS-1급 소해정

개요

YMS-1급 소해정은 미국이 한국해군에 공여한 소해정이다. 이중 2척이 6·25 발발 이전 월북해 북한 해군에 편입되었다.

연혁 및 제원

YMS급 소해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 해군이 자국의 항만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소형의 목선 소해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소해정의 작전범위는 항만 방어를 넘어 연안 방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미 해군은 1943년부터 YMS(Auxiliary Motor Minesweeper)급 보조소해정을 다량 건조했다. YMS급 소해정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총 561척이 건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에 미 해군은 YMS급 소해정 중 자성(磁性)이 비교적 약한 58척을 AMS(Motor Minesweeper)급으로 재분류했다. 따라서 AMS급은 YMS급 소해정과 형태와 성능에서 거의 동일했다.

YMS-1급 소해정 제원

구 분	YMS/AMS
기준배수량	251톤
만재배수량	278톤
전장	41.45m
전폭	7.47m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너럴모터스 8-268A 디젤엔진 2기 800마력
최고속도	14.1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인치(76.2mm) 50구경장 2연장포 1기(2문) 40mm 보포스 대공포 1문 20mm 오리콘 기관포 2문 어뢰발사관 2기 폭뢰발사대 2기
승조원	6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54 ; 국방일보 무기백과

운 용

미해군의 YMS-473과 YMS-245 2척은 각각 1947년과 1948년 한국에 인도되었다. YMS-473은 한국 해군의 YMS-517이 되었고 YMS-245는 한국해군의 YMS-508이 되었다. 이 두척은 월북하여 북한해군 원산 3정대 1호정과 2호정이 되었다. 북한해군은 YMS의 미국제 무장을 철거하고 운용했다. 이 두척은 6·25전쟁 당시 원산한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참고문헌

Chesneau, Robert&Gardiner, Robert,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SC497급 구잠정

개요

SC497급 구잠정은 미해군의 구잠정이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해군에 다수가 공여됐으며 이중 일부가 6·25전쟁 당시 북한 해군에 인도되었다.

연혁 및 제원

미해군은 1938년 신형 구잠정 도입을 시작했다. 공개입찰을 통해 1940년 PC449와 PC450 등 2척의 시제품이 건조되었다. 미해군은 2척의 시제품이 모두 성능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GM 16-184 디젤엔진을 탑재한 신형 구잠정이 개발되었다. 이 신형 구잠정이 SC497급이다. SC497급 구잠정 중 최초로 완성된 것은 SC507이다. SC507은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인 1942년 1월 19일 완성됐다. SC497급은 목재로 건조되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78척의 SC497급 구잠정이 소련 해군에 인도됐다.

SC497급 구잠정 제원

구분	SC676
기준배수량	95톤
전장	33.98m
전폭	5.69m
추진	GM 16-184 디젤엔진
최고속도	40.74km/h
무장	76.2mm 34-K 대공포 1문 37mm 70-K 대공포 2문 12.7mm DShK 중기관총 3정

출처 : 선박 제원은 SC676이 기준이다. John Lambert & Al Ross, *Allied Coastal Forces of World War II Vol.1, Fairmile Designs & US Submarine Chasers*, (Barnsley: Seaforth Publishing, 2018), p.147.; 선박 무장은 Pliatonov, A. V., *Entsiklopeiia sovetskikh nadvodnykh koriabltii* (Sankt-Peterburg: Poligon, 2002) p.288.

은 용

소련군사고문단의 보고에 따르면 1951년 4월 초 북한 해군 소속의 SC497 구잠정 1척이 소련 항구에 기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소련 태평양함대 소속의 함정을 북한 해군이 인도한 것이다.

참고문헌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Lambert, John., & Ross, Al., *Allied Coastal Forces of World War II volume 1: Fairmile Designs & US Submarine Chasers* (Barnsley: Seaforth Publishing, 2018)



OD-200 구잠정

개 요

OD-200 구잠정은 소련 해군이 운용한 소형 구잠정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해군이 이 선박을 소수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소련 해군은 1944년 소형 구잠정 OD-200급의 건조를 시작했다. OD200급은 배수량 45t에 시속 28노트(51km/h)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무장은 DShK 중기관총 1정이었고 일부 함선에는 렌드 리스로 도입한 20mm 기관포를 탑재했다. 이 구잠정은 1945년까지 건조되어 발트 함대, 흑해 함대,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개량형인 OD200bis 63척이 건조되었다.

운 용

소련 군사고문단의 보고에 따르면 1951년 4월 북한해군 소속의 OD-200 구잠정 1척이 소련 항구에 기항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태평양함대 소속으로 북한에 인도된 선박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비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Rohwer, Juergen and Monakov, Mikhail S., *Stalin's Ocean-going Fleet: Soviet Naval Strategy and Shipbuilding Programmes 1935-1953* (London: Routledge, 2001)

G-5급 어뢰정

개요

G-5급 어뢰정은 소련 해군이 1934년 도입한 어뢰정이다. 북한 해군도 이 어뢰정을 도입하여 6·25전쟁 초기에 운용하였다. 유엔군 해군이 재해권을 장악하여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



- 북한 해군의 G-5급 어뢰정
- 출처 : RG242,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G-5급 어뢰정은 Sh-4급 어뢰정을 대체하여 1934년부터 건조되었다. 1941년까지 약 300척이 건조되었다. 초기에 건조된 G-5급은 엔진 출력 부족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83km였으나 1937년부터 건조된 후기형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98km까지 증가했다. 후기형은 고정무장으로 1~2정의 DShK 중기관총을 장비했다.

G-5급 어뢰정 제원

구분	G-5급 어뢰정
전장	19.1m
배수량	16.26톤
최고속도	98km
무장	12.7mm 중기관총 1~2정 533mm 어뢰 2발

운 용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 해군 제2위수사령부(원산) 예하에는 4개의 정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이중에서 제2정대가 G-5급 어뢰정을 장비하고 있었다. 소련군사고문단은 북한해군의 4개 정대중에서 G-5급을 장비한 제2정대의 훈련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북한해군의 어뢰정대에 소속된 G-5급 어뢰정 4척은 1950년 7월 2일 미해군 순양함 주노(Juno)가 지휘하는 기동함대의 공격을 받아 2척이 격침되고 23호 정장 최정수가 생포되는 패배를 당했다. 이후 북한해군의 어뢰정대는 적극적인 공세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 1950년 9월 8일 북한 어뢰정대의 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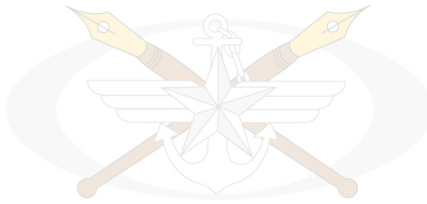
정과 28호정은 기사문항을 출발해 속초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로를 이탈해 두척 모두 좌초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박희성, 「북한 해군의 6·25전쟁 준비와 초기 전투: 제599군부대 창설과 전사 기록」, 『군사연구』 제 147집(2019. 6)





The Korean War



Ⅲ 항공 무기

- 01. 전투기
- 02. 폭격기
- 03. 훈련기



미그15 전투기

MiG-15

개요

미그15(MiG-15)는 미코얀-구레비치 설계국이 제장한 1인승 제트전투기이다. 1950년말 부터 1953년 까지 공산군의 주력 전투기로 유엔군 공군의 주간 공습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1953년 오키나와의 미공군 기지에서 시험 중인 MiG-15 전투기
- 출처 : RG342, National Archives

미코얀-구레비치 설계국이 개발한 독일의 BMW003 엔진을 역설계한 제트엔진을 탑재하는 미그9는 미코얀-구레비치 설계국의 첫 제트전투기였다. 냉전 초기 소련은 제트엔진을 독자 개발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일제 엔진을 역설계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소련 기술진은 제트 엔진 기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노동당 정부가 롤스로이스 닌(Nene) 엔진의 기술과 생산 면허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소련은 롤스로이스의 엔진을 바탕으로 RD-45 엔진을 개발했다. 소련 정부는 미코얀-구레비치 설계국에 RD-45 엔진을 탑재하는 신형 고고도 요격기를 개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새 전투기의 성능 요구 조건은 최고 속도 1,000km/h에 항속거리 1,200km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미코얀-구레비치 설계국은 기존의 미그9를 바탕으로 주익의 후퇴각을 높이고 RD-45 엔진을 채택한 시제품 I-130을 제작했다. I-130은 1947년 12월 30일 첫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소련 공군은 I-130의 비행 성능이 우수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고 평가하여 양산을 결정하고 미그15로 명명했다. 미그15는 1949년 소련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1950년에는 신형 제트 엔진인 VK-1를 탑재한 미그15bis가 도입되었다.

MiG-15 제원

구분	MiG-15bis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0.1m/10.08m
전고/익면	3.7m/20.6m ²
전투중량	5,044kg
최대이륙중량	6,106kg
엔진출력	클리모프 BK-1
최고속도	1,076km/h
항속거리	2,520km
상승한도	15,500m
상승속도	51.2m/s
무장	23mm NR-23 기관포 2정 37mm N-37 기관포 1정

운 용

중국 공군이 1950년 6월 난징에 창설한 항공사단은 총 38대의 미그 15 전투기와 39대의 라보츠킨11 전투기, 39대의 투폴레프2 폭격기, 35대의 일류신10 지상공격기, 14대의 훈련기로 편성되어 있었다. 한편 유엔군이 북진을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6·25전쟁 참전을 결심하고 스탈린에게 항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극동의 소련 공군 전력 중 일부가 만주에 전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만주에 투입된 소련 공군 부

대는 제151근위전투기사단이었다. 제151근위전투기사단은 제28, 139전투기연대와 제72근위전투기 연대 등 3개 연대로 편성되었다. 이후 제28전투기 사단이 편성되면서 제151근위전투기사단의 139전투기연대를 배속 받았다. 소련 공군이 만주에 파견한 2개 전투기 사단은 각각 62대의 미그15 전투기를 보유하고 중국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을 담당했다. 이 부대들은 훈련 부대였으나 압록강 인근에 출현하는 유엔군 항공기에 대한 요격 임무도 수행했다. 1950년 11월 15일 스탈린은 제151근위전투기 사단과 제28전투기사단으로 제64전투기군단을 편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64전투기군단을 증원하기 위해 미그15 전투기를 장비한 소련 제50전투기사단이 만주로 이동했다. 이 사단은 제29근위전투기연대와 제177전투기연대로 편성되었다. 제50전투기사단은 중국 공군 조종사 교육이 아닌 전투 임무만을 위해 투입된 부대였다.

1950년부터 소련공군이 제64전투기군단 지휘하에 한국전선에 투입한 미그15를 장비한 전투기부대는 다음과 같다.

항공사단	예하 항공연대	작전 기간	전투기 손실	조종사 손실
28전투기사단	67전투기연대	1950.10~1951.2	?	?
	139근위전투기연대	1950.11~1951.2	1	1
50전투기사단	29근위전투기연대	1950.12~1951.2	5	4
	177근위전투기연대	1950.11~1951.2	2	1
151근위전투기사단	28근위전투기연대	1950.11~1951.3	?	?
	72근위전투기연대	1950.11~1951.3	3	3
324전투기사단	176근위전투기연대	1951.4~1952.2	?	5
	196전투기연대	1951.4~1952.2	24	5
303전투기사단	17전투기연대	1951.8~1951.12	?	4

	18근위전투기연대	1951.8~1951.12	18	8
	523전투기연대	1951.8~1951.12	17	5
32전투기사단	224전투기연대	1952.9~1953.7	22	6
	535전투기연대	1952.9~1953.7	16	5
	913전투기연대	1952.9~1953.7	20	5
97전투기사단	16전투기연대	1952.1~1952.8	12	4
	148근위전투기연대	1952.1~1952.8	2	2
133전투기사단	147근위전투기연대	1952.7~1953.8	4	4
	415전투기연대	1952.7~1953.8	12	4
	578전투기연대	1952.8~1953.4	10	4
	726전투기연대	1952.7~1953.8	11	7
190전투기사단	256전투기연대	1952.1~1952.8	16	5
	494전투기연대	1952.1~1952.8	20	6
	821전투기연대	1952.1~1952.8	?	?
216전투기사단	676전투기연대	1952.7~1953.8	14	4
	781전투기연대	1952.1~1953.7	9	3
	878전투기연대	1953.7~1953.8	17	6
282전투기사단	518전투기연대	1952.3~1953.7	19	6

출처 :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1950년 10월에는 중국공군의 제4항공사단이 만주에 배치되었다. 중국 공군의 미그15 전투기는 1950년 12월 28일 최초의 전투 출격을 시작했다. 이후 만주에 배치된 중국 공군의 전투기 부대는 꾸준히 증강되었다.

중국 공군은 1950년 12월 말 까지 제6, 7, 9전투기사단을 신규 편성했으며 1951년 6월 말 까지 제12, 14, 15, 16, 17, 18전투기사단을 편성했다. 중국 공군의 미그15 전투기 부대들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9월 이후였다. 전투 경험이 부족한 중국 공군은 소련 제64전투기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전투 경험을 쌓았다. 중국 공군은 전투기사단들을 꾸준히 교대해 가면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 중국 공군은 1951년 11월 이후 만주지역에 평균 4개 전투기사단, 150~200대의 미그15를 배치하고 작전을 수행했다. 한편 소련 공군도 만주의 전투기 전력을 증강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을 가진 정예 조종사들로 편성된 제324전투기사단과 제303전투기사단을 투입했다. 전자는 1951년 4월에, 후자는 같은 해 5월에 만주에 배치되었다.

소련 공군은 1952년 초부터 과거에 비해 전투경험이 부족한 조종사들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이로 인해 소련 공군의 미그15 전투기 손실이 증가하고 미국 공군의 손실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공군은 숫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전투 경험이 부족해 큰 손실을 입었다. 중국공군은 1951년부터 1953년까지 224대의 미그15 전투기를 잃었다.

중공 공군이 1950년 12월부터 1953년 7월 까지 한국 전선에 투입한 미그15 전투기부대는 다음과 같다.

항공사단	작전기간	전투기 손실
2전투기사단	1951.12~1952.2	?
3전투기사단	1951.10~1952.1 1952.5~1953.1	43
4전투기사단	1950.12~1951.7 1952.1~1952.5 1952.12~1953.7	55
6전투기사단	1951.11~1952.3 1952.12~1953.7	?
12전투기사단	1952.3~1953.3	?
14전투기사단	1951.11~1952.2 1953.4~1953.7	?
15전투기사단	1952.1~1952.5 1952.10~1953.7	41
16전투기사단	1953.1~1953.7	?
17전투기사단	1952.3~1953.7	?
18전투기사단	1952.5~1952.12	?

출처 :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참고문헌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예브게니 게오르기예비치 페펠라예프 저; 정성택 역, 『세이버에 맞선 미그기: 6·25참전 소련공군조종사 회고록』 (서울: 공군대학, 2011)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USGPO, 1983, Third Printing)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야크9 전투기

Yak-9

개요

야크9(Yak-9)는 소련 공군이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투기이다. 1942년부터 1948년까지 생산되었다. 6·25전쟁 초기 북한 공군의 주력 항공기였다. 북한 공군은 전투기를 ‘추격기’로 불렀다.



- 1950년 김포비행장에서 노획되어 미국으로 옮겨진 야크9P 전투기
- 출처 : Robert F. Dorr Collection

야크9는 야크1과 야크7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단발 전투기이다. 야크9는 모스크바의 82호공장, 노보시비르스크의 153호 공장, 옴스크의 166호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1942년 10에 생산된 최초의 양산형은 M-105PF엔진을 탑재한 기종으로 야크7DI을 경량화 한 형식이었다. 야크7DI와 비교했을 때 연료탱크를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기체 외부의 무장 장착대를 줄여서 경량화를 꾀한 점이 특징이었다. 생산 직후 스탈린 그라드 전투에 투입되어 독일 공군의 수송작전을 분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은 야크9가 기동성이 좋고 조종성이 좋아 호평을 했다. 1942년부터 1943년 까지 생산된 형식은 제작 공정상의 미비로 전투 중 날개의 외피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44년에 들어 제작 공정이 향상되면서 사라졌다.

1943년 3월에는 연료탱크를 다시 네 개로 증설한 야크9D가 생산되었다. 야크9D는 1943년 3월부터 1944년 5월 까지 3,068대가 생산되었다. 또한 같은 달에는 야크9T가 생산되었다. 이 기종은 엔진축에 37mm 기관포를 설치한 기종으로 1943년 3월부터 1945년 6월 까지 2,748대가 생산되었다. 야크9T는 강력한 무장으로 독일 공군의 폭격기를 요격하는데 활약했다. 야크9T에 장착된 37mm 기관포는 폭격기의 방어용 기관총 유효사거리 밖에서 폭격기 부대의 대형을 분쇄하는데 유용했다. 또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데도 위력을 발휘했다. 1944년에는 야크9T에 연료탱크를 늘려서 항속거리를 늘린 야크9TD가 생산되었다. 야크9M은 야크9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형식이다. 저고도와 중고도에서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VK-105PF-2엔진을 장착하여 저~중고도에서 기동시 기동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총 4,239대가 생산되었다. 1943년 12월에는

M-107A 엔진을 장착한 야크9U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M-107A 엔진을 장착한 야크9U는 총 1,134대가 생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에는 야크9의 최종 양산형이라 할 수 있는 야크9P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 기종은 북한을 비롯한 소련의 위성국에 제공되었다.

Yak-9 제원

구분	Yak-9P
승무원	1명
전장/너비	6.5m/9.74m
전고/익면	3m/17.15m ²
전투중량	2,870kg
엔진출력	1,180마력(M-105PF)
최고속도	600km/h
항속거리	910km
상승한도	11,000m
상승속도	16.3m/s
무장	ShVAK 20mm 기관포 1정 12,7mm 베레진 UBS 기관총 1정

운 용

북한 공군은 3종류의 야크9를 도입했다. 전투기형인 야크9P와 야크9M, 훈련기형인 야크9B였다. 북한공군의 추격기연대는 1950년 6월 기준으로 84대의 야크9를 도입했다. 이 중 21대는 소련 제9항공군단이 사용하던 야크9M으로 기체 상태가 불량하고 잦은 고장에 시달렸다. 1946년 이후에 생산된 야크9P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야크9 기종의

예비부품은 15~20% 정도만 확보되어 있어 전시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공군이 보유한 야크9의 노후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았고 가동율도 낮았다. 1950년 5월 초부터 1950년 6월 중순까지 북한공군 비행사단이 보유한 야크9 전투기는 여덟차례의 고장을 일으켰는데 11, 64, 100호기등 3대는 두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 69호기는 세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

조종사 부족도 심각한 문제였다. 북한공군의 2개 전투기연대는 편제상 82명의 조종사가 있어야 했으나 1950년 1월 28일까지 제1연대에 34명의 조종사가 있었고 제2연대는 조종사가 없었다. 북한 공군은 개전 직전까지 84대의 야크9를 도입했으나 조종사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북한공군의 야크9 전투기들은 개전 초반 서울을 공습했다. 6월 25일 오후 5시경 6대의 야크9 전투기가 김포비행장과 여의도비행장을 공습했다. 북한 공군은 김포비행장의 미국 공군 C-54 수송기 1대를 파괴하고 여의도 비행장의 국군 공군 L-4 연락기와 T-6 훈련기 7대에 손상을 입혔다. 북한 공군은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 6월 26일에는 야크9 전투기 4대가 주한 미국인 철수작전을 엄호하기 위해 도착한 미공군의 F-82 전투기와 교전해 야크9 1대가 격추됐다. 북한 공군은 서울이 함락되자 주 공격 목표를 수원 비행장으로 변경하고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했다. 북한 공군은 국군에 대한 군사원조 물자를 수송하는 미국 공군 수송기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 북한공군은 1950년 7월 8일 후방인 대구를 폭격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1950년 7월 12일에는 야크9 전투기들이 서울 인근 상공에서 미공군 제19폭격비행단 28대대 소속의 B-29 1대를 격추시켰다. 그리고 북한공군의 야크9 전투기들은 같은날 대전 상공에서 관제임무를 수행하던 미육군의 L-4 연락기 1대를, 다음날인 13일에는 L-5 연락기 1대를 격추시켰다. 북한공군은 7월 중순까지

적극적으로 공세를 전개했다. 북한공군의 야크9 전투기에 의한 아군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북한공군 야크9 전투기에 의한 아군 피해

날짜	기종	숫자	피해	소속	장소
6월 25일	L-4, T-6	7	손상	국군 공군	여의도비행장
6월 25일	C-54D	1	손상	미공군	수원비행장
6월 28일	B-26B	1	손상	미공군 제3폭격비행단	수원비행장
6월 28일	F-82G	1	손상	미공군 제68전투비행대대	수원비행장
6월 28일	C-54D	1	손상	미공군 제374병력수송비행단	수원비행장
7월 12일	B-29	1	격추	미공군 제19폭격비행단	서울 인근
7월 12일	L-4	1	격추	미육군	대전 인근
7월 13일	L-5	1	격추	미육군	대전 인근
7월 14일	B-26B	1	대파	미공군 제3폭격비행단	대전 인근
7월 19일	F-80C	1	손상	미공군 제8전투폭격비행단	대전 인근

출처 : Dildy, Douglas C., "The Korean People's Air Force in the Fatherland Liberation War: Pt II", *Air Power History Vol. 59, No.4*(2012), p.7.

그러나 미국 공군이 참전한 뒤 일주일 만에 36대의 항공기를 상실하는 큰 피해를 입으면서 북한 공군의 작전 능력이 저하되었다. 8월 24일에는 북한공군의 항공기가 전투기와 지상공격기를 합쳐 36대만 남았고 이 중 21대만이 비행 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북한 공군은 레이더 관제에 의존하여 낙동강 전선까지 출격해 작전을 했다. 북한 공군 전투기들은

주로 속도가 느린 관측기나 연락기를 노렸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인 공세마저도 1950년 9월 이후로는 중단되었다.

1951년부터 소련이 북한 공군 재건과정에서 전투기 기종을 라보츠킨9와 미그15로 교체하면서 야크9는 Il-10과함께 혼성비행사단으로 편성되었다. 1951년 4월 기준으로 북한공군의 혼성비행사단은 30대의 야크9와 30대의 일류신10으로 편성되었다.

참고문헌

-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Gordon, Yefim, *OKB Yakovlev: A History of the Design Bureau and its Aircraft* (Midland, 2005)
-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USGPO, 1983, Third Printing)
-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 과정을 통해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현대북한연구』 15-2(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 김선호, 「6·25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중심으로」, 『군사』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이신재, 「625전쟁기 북한공군의 성장과정 고찰」, 『군사』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이신재, 「6·25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지원 고찰 1945~1950」, 『현대북한연구』 19-1(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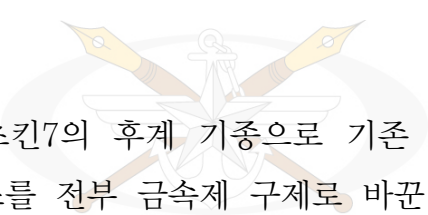
라보츠킨9 전투기/라보츠킨11 전투기

La-9/La-11

개요

라보츠킨9(La-9)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라보츠킨7의 후계기종으로 1946년부터 1949년 까지 생산되었다. 라보츠킨11(La-11)은 소련 공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한 피스톤엔진 전투기이다. 1947년부터 1951년 까지 1,232대가 생산되었다. 1951년부터 북한 공군과 중국 공군이 사용하였다.

연혁 및 제원



라보츠킨9는 라보츠킨7의 후계 기종으로 기존 라보츠킨5, 7 기종의 단점이었던 목재 구조를 전부 금속제 구조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라보츠킨7은 제2차 세계대전 기준으로 우수한 기종이었으나 전시 생산을 위해 목재 가공을 간략화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건조 및 가공이 충분하지 않은 목재 부품이 습기로 인해 부서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보츠킨9는 1946년 8월부터 1949년 12월 까지 고리키에 위치한 21호 공장과 올란 우데에 위치한 99호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총 73대의 라보츠킨9와 250대의 라보츠킨9UTi가 생산되었다.

La-11는 La-9의 파생형 중 하나인 실험기 La-130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La-134는 La-9에 장거리 순항능력을 부여한 기종으로 1947년 5월 시험 비행에 나섰다. 시험기는 La-134D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 기종은 1947년 La-11이라는 명칭으로 양산에 들어갔다.

La-9/La-11 제원

구분	La-9	La-11
승무원	1명	1명
전장/너비	8.63m/9.8m	8.62m/9.8m
전고/익면	3.56m/17.6m ²	3.47m/17.6m ²
전투중량	3,425kg	3,730kg
최대이륙중량	3,676kg	3,996kg
엔진출력	1,850마력(ASh-82FN엔진)	1,850마력(ASh-82FN엔진)
최고속도	690km/h	674km/h
항속거리	1,735km	2,235km
상승한도	10,800m	10,250m
상승속도	17.7m/s	12.63m/s
무장	23mm NS-23 기관포 4정	23mm NS-23 기관포 3정

출처 : Moore, Jason Nicholas, *Lavochkin Fighters of the Second World War* (Fonthill Media, 2016) p.221.

운 용

소련은 1951년 북한 공군을 재건하면서 1개 전투기사단을 라보츠킨9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훈춘에서 La-9 30대로 편성된 추격기사단이 편성되었다. 중국 공군도 La-9를 도입하여 운용했다.

중국 공군은 1950년부터 소련으로부터 La-9와 La-11을 도입했다. MiG-15 전투기가 주간 방공 임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La-11 전투기는 주로 야간 전투기로 운용되면서 유엔군의 야간 폭격기를 저지하는데 사

용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공세적인 임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 공군은 1951년 11월 30일 대화도의 유엔군 전진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9대의 Tu-2 폭격기와 16대의 La-11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미국 공군은 이를 요격하기 위해 30대의 F-86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La-11 전투기는 F-86 전투기보다 속도가 느리고 중공군 조종사들의 기량도 뒤떨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격추당했다. 4대의 Tu-2 폭격기와 3대의 La-11 전투기가 교전 중에 격추됐다. 살아남은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기지로 도주했다. 이 공격은 중공군 공군이 유엔군이 장악한 지역에 주간 폭격을 시도한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중공 공군은 La-11 전투기를 상하이 인근에 배치해 중화민국 공군의 중국 본토 공습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참고문헌

-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USGPO, 1983, Third Printing)
- Moore, Jason Nicholas, *Lavochkin Fighters of the Second World War* (Fonthill Media, 2016)
-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일류신10 지상공격기

Il-10

개요

Il-10은 제2차세계대전 말기 소련이 Il-2 지상공격기를 개량한 기종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공군과 중국공군의 주력 지상공격기로 사용되었다. 북한공군은 지상공격기를 ‘습격기’로 불렀다.



- 1950년 9월 김포비행장에서 미군이 노획한 Il-10 지상공격기
- 출처 : RG342, National Archives

1941년부터 실전에 투입된 II-2 지상공격기는 강력한 방어력과 무장을 갖춰 지상 목표를 타격하는데 탁월한 전과를 거두었으나 독일 공군의 대응 전술이 발전하면서 손실이 급증하고 있었다. 일류신 설계국의 기술자들은 II-2의 속력과 저고도 기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량을 추진했다. 일류신은 II-2을 개량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는 II-2을 개량한 동체에 AM-42엔진을 탑재한 시제품 II-10과 II-8을 제작했다. 전자는 중전투기로 개발되다가 소련 공군에 채용되지 않아 지상공격기로 변경된 기종이었다. II-10은 1944년 6월 초 공군의 시험을 통과했다. 경쟁기종으로는 수호이 설계국이 제안한 Su-6이 있었으나 무장을 최대로 탑재할 경우 비행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 II-10이 채택되었다.

II-10의 생산은 1944년 8월 23일부터 시작되었다. 1949년 생산이 종료될 때 까지 II-10은 4,900대가 생산되었다. 북한 공군은 개전 직전까지 113대의 II-10을 획득했다.

II-10 제원

구분	II-10
승무원	2명
전장/너비	11.6m/11.6m
전고/익면	4.18m/30.0m ²
전투중량	6,335kg
최대이륙중량	6,535kg
엔진출력	1,770마력(미쿨린 AM-42엔진)
최고속도	551km/h
항속거리	800km
상승한도	5,500m
무장	고정무장 : 23mm Via-23 기관포 4정, 베레진 B-20기관포 1정 선택 : RS-82 또는 RS-132 로켓탄 4발/250kg 항공폭탄 2발

운 용

북한 공군은 1948년 12월 말 소련공군이 철수할 때 II-10 지상공격기를 비롯한 전투용 항공기를 인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1949년 12월 항공사단이 편성되었다. 항공사단은 1950년 1월 17일 제11비행사단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북한 공군이 도입한 II-10 중 일부는 1945~46년에 생산된 노후 기종으로 기계적 신뢰성이 부족한 기종이었다. 또한 예비부품 확보도 부족한 상태였다. II-10의 경우 1949년 6월 당시 예비부품을 소요의 50%만 확보한 상태였다.

북한 공군은 1950년 개전을 앞두고 지상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II-10 도입에 박차를 가했다. 1950년 1월 25일에는 II-10을 장비한 습격기연대와 Yak-9를 장비한 추격기연대의 병력이 거의 비슷했으나 1950년 2월 20일에는 습격기연대의 병력이 추격기연대의 두배로 증강되었다. 개전 직전 북한 공군은 총 113대의 II-10 지상공격기를 보유했다. 그러나 개전을 앞두고 비행 시간을 단축해 조종사를 배출했기 때문에 북한공군 조종사의 전투력은 부족했다. 이점은 특히 지상공격 임무에서 단점이 되었다.

미국 공군이 참전하면서 북한 공군은 제공권을 상실했고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II-10 기종은 거의 작전을 펼칠 수 없었다. Yak-9를 장비한 전투기부대가 1950년 9월까지 평균 2대 규모로 전투 출격을 계속 했던 것과 달리 개전 초기를 제외하면 II-10 기종의 전투 출격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 공군이 보유한 II-10은 1950년 9월까지 대부분 파괴되었다.

중국 공군도 1950년 말 2개 항공사단이 II-10 지상공격기를 보유했으나 한국 전선에 투입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USGPO, 1983, Third Printing)
-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 과정을 통해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현대북한연구』 15-2(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 김선호, 「6·25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중심으로」, 『군사』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이신재, 「625전쟁기 북한공군의 성장과정 고찰」, 『군사』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이신재, 「6·25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지원 고찰 1945~1950」, 『현대북한연구』 19-1(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투폴레프2 경폭격기

Tu-2

개요

Tu-2는 소련의 투폴레프 설계국이 개발한 쌍발 경폭격기이다. 1942년 실전에 배치되어 1948년 까지 총 2,257대가 생산되었다. 6·25전쟁 당시 중국공군의 제8·10·20폭격기사단이 이 기종을 보유했다.

연혁 및 제원

1937년 반역행위로 수용소에 수감된 항공기 설계자 안드레이 투폴레프(Andrei Tupolev)는 수감 기간 중 신형 경폭격기를 개발했다. 투폴레프는 과거에 연구하던 경폭격기들의 설계안을 참고했으며 AM-37엔진을 탑재했다. 이 시제품은 1941년 1월 29일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 1941년 독일군이 침공하자 소련 정부는 신형 폭격기 획득을 위해 투폴레프가 설계한 경폭격기를 Tu-2라는 명칭으로 양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Tu-2는 1941년 9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한편 전쟁 중 소련 정부는 AM-38엔진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AM-37엔진 생산을 중단시켰다. Tu-2는 AM-37엔진이 단종되자 ASh-82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맞춰 기체 설계를 일부 변경했다.

TU-2 제원

구분	Tu-2S
승무원	4명
전장/너비	13.8m/18.86m
전고	4.13m
전투중량	10,360kg
최대이륙중량	11,360kg
엔진출력	1,850마력(ASh-82FN엔진 2개)
최고속도	547km/h
항속거리	2,100km
상승한도	9,000m
상승속도	8.2m/s
무장	주익에 ShVAK 기관포 2정, 동체에 UBT 기관총 3정 폭장량 3,000kg

출처 : Moore, Jason Nicholas, *Tupolev TU-2: The Forgotten Medium Bomber* (Fonthill Media, 2016) p.87.

운 용

6·25전쟁 당시 중국공군의 제8, 10, 20폭격기사단이 이 기종을 보유했다. 중국 공군 폭격기 부대는 MiG-15 전투기의 엄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작전을 전개했다. 중국 공군은 1951년 11월 30일 9대의 Tu-22 폭격기의 대화도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16대의 La-11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날 Tu-2 폭격기 부대에 전투기 엄호를 제공할 예정이었던 미그15 부대의 출격이 5분 늦어지는 작전상의 착오가 있었다. 중국 공군의 공격부대를 포착한 미국 공군 30대의 F-86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격을 감행했다. 중국 공군의 폭격기 부대는 상공에서 공격을 준비하던 미공군의 F-86 부대가 엄호를 제공할 중공군 전투기라고 오인해 경계를 하지 않았다. 미공군의 공격으로 4대의 Tu-2 폭격기와 3대의 La-11 전투기가 격추당했다. 중공군은 이날 전투 이후 Tu-2의 폭격 임무를 야간에만 수행했다.

중공군은 Tu-2로 편성된 제162폭격기 사단 등의 공세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폭격기 부대의 역량 부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지 않았다. 1953년 초 김일성은 총참모장 남일을 통해 중국 공군이 서울을 보복 폭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측은 서울을 공격할 경우 미군이 만주의 중공군 비행장을 보복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해 김일성의 요청을 거부했다.

참고문헌

-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USGPO, 1983, Third Printing)
-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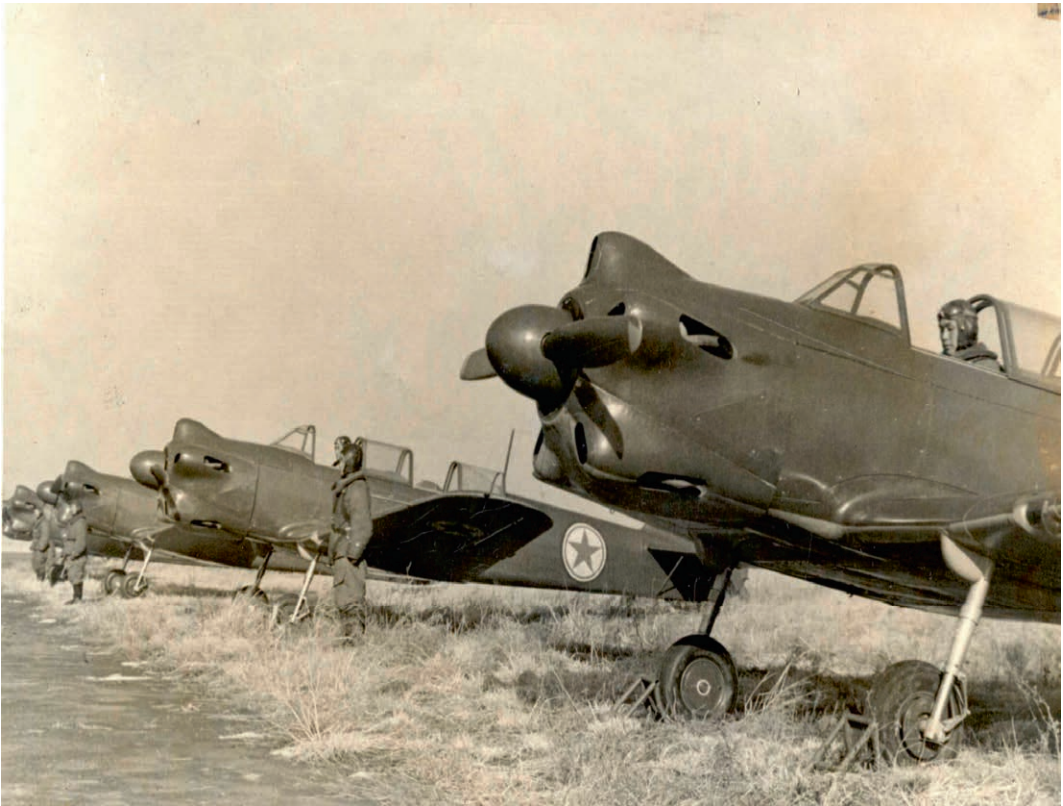


야크18 훈련기

Yak-18

개요

Yak-18은 북한 공군과 중공 공군이 사용한 훈련기이다.



- 6·25전쟁 발발 직전에 촬영된 북한 공군의 Yak-18 훈련기
- 출처 : RG242, National Archives

연혁 및 제원

Yak-18은 1945년 5월 소련의 항공 엔지니어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가 설계한 훈련기이다. 1946년 소련공군의 고등훈련기로 채용되었다. 이 기종은 1956년까지 생산되었다.

운 용

북한공군 비행사단 제25연대가 Yak-18 훈련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Po-2 훈련기로 기초 훈련을 마친 조종사는 Yak-18 훈련기로 교육을 실시했다. Yak-18로 조종훈련을 마친 조종사는 전투기나 지상공격기 조종 교육을 실시했다. 북한공군은 6·25전쟁 중 Yak-18을 야간 폭격기로 운용했다. 1953년 6월 4~5대의 Yak-18이 인천의 유엔군 유류야적장을 폭격해 550만 갤런의 연료를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참고문헌

-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USGPO, 1983, Third Printing)
- Hallion, Richard., *The Naval Air War in Korea*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11)
-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Po-2 훈련기/야간폭격기

개요

Po-2는 6·25전쟁 중 공산군이 조종사의 기초 비행훈련, 연락용과 야간폭격용으로 운용한 다목적 항공기이다.



- 소련공군이 훈련기로 운용한 Po-2

연혁 및 제원

Po-2는 처음에 U-2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었다. 1928년 1월 첫 시제품이 초도비행을 실시했다. 1929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초급훈련기로 사

용되었다. 1953년까지 생산되며 소련공군의 주력 훈련기로 사용되었다. U-2는 1944년 설계자인 폴리카르포프(Nikolai Polikarpov)를 기려 Po-2로 개칭되었다.

U-2는 독일과의 전쟁이 발발하자 야간폭격기로 사용되었다. 폭격기로 개량된 형식은 U-2VS였다. 이 기종은 50kg 폭탄이나 100kg 폭탄을 장착하고 야간 폭격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여성 조종사들도 편성된 제 588야간폭격기연대는 야간에 저고도로 비행하며 독일군의 후방을 타격해 명성을 얻었다.

Po-2 제원

구분	Po-2
승무원	2명
전장/너비	8.17m/11.4m
전고/익면	3.1m/33.2m ²
전투중량	1,030kg
최대이륙중량	1,350kg
엔진출력	125마력(M-11D엔진)
최고속도	152km/h
항속거리	630km
상승한도	3,000m
상승속도	2.78m/s
무장	7.62mm ShKAS 기관총 1정 50kg 폭탄 6발

운 용

북한군은 초기에 Po-2를 훈련기로 도입했다. 그러나 유엔군이 참전한 뒤 제공권을 빼앗기자 Po-2를 소련공군과 같이 야간폭격 임무에 투입

하기 시작했다.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한 직후 Po-2를 이용한 야간 폭격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50년 11월 평양비행장에 대한 일련의 야간 공습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한 대의 Po-2 야간폭격기가 평양비행장에 주둔한 미국 공군 제8전투폭격비행단을 공격해 11대의 전투기에 손상을 입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선이 고착된 이후에는 김포와 수원 비행장이 북한 야간폭격기 부대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1951년 6월 17일 2대의 Po-2 폭격기가 수원 비행장을 공격해 제335전투요격대대의 F-86 전투기 9대에 손상을 입혔다. 유엔군은 Po-2를 요격하기 위해 F-94 전투기 등을 투입했으나 Po-2의 속력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 요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쟁 기간 중 최소 1대의 F-94가 Po-2를 추격하던 중 속도를 너무 늦춰 실속하는 바람에 추락했다.

Po-2 폭격기는 전쟁 중반 이후 공산군 공군의 유일한 공세전력으로 서 야간 폭격을 통해 유엔군에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참고문헌

-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USGPO, 1983, Third Printing)
-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1차사료

I U.S. Corps Command Report Sep 1951, G2 Section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ATIS Interrogation Reports, Issue #3: North Korean Forces*(1950. 9. 6)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ATIS Research Supplement, Enemy Forces, Issue No.4*(1950. 12. 15)
 HQ EUSAK, Monograph: Enemy Materiel(1953. 8. 16), RG550 Entry E2(A1) Box27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R-1(FEC)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ume I(1951. 4. 8)
 CIA, Information Report 00-T-00061 Engineering Analysis of the Russian T34/85 Tank(1951. 9)
 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1952. 7. 31)
 Operation Research Office, ORO-T-261 The Structure of a Battle Analysis of a UN-NK Action North of Taegu Korea, September 1950(1954. 1. 20)

민족보위성, 『T-34 탱크 운전수의 간단한 주의사항』, (간행연도 미상)
 민족보위성 포병지휘국, 『포병전투규정』(1949)
 조선인민군총참모부 포병참모부, 『포병교범』(1948)
 민족보위성총참모부 『보병전투규정 제1부: 전투원, 분대, 소대, 중대』(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RG242 Entry300-C Box1
 민족보위성총참모부 『보병전투규정 제2부: 대대, 연대』(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RG242 Entry300-C Box1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장갑탱크 및 기계화부대 전투규정』, (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장갑탱크 및 기계화부대에있어서 탱크와 자동포 관리교범』, (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
 민족보위성총참모부, 『1938년식 122mm 곡사포 사격일람표』(1949)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자동포병의 조직과 전투사용에 관한 교시』, (평양: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
 민족보위성총참모부, 『자동포교범』, (평양: 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50)

中國人民解放軍 華北軍區, 『野戰砲兵操典草案』(1950. 1)

단행본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권주혁, 『기갑전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지식산업사, 2008)
 기광서, 백준기, 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김선호,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20)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전현수 옮김,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정서 (1945~1952)』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육군군사연구소, 『6·25전쟁시 피아 부대편성 및 무기·장비』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육군박물관, 『6·25전쟁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서울: 육군박물관, 2020)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정현수 외, 『중공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선인, 2006)
 중공군 향미원조전쟁경험 총결편사위원회 편, 김경현, 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한국전쟁과 춘천』 (춘천: 춘천문화원, 2020)
 최용호,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개정판)』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3)
 예브게니 게오르기예비치 페펠라예프 저; 정성택 역, 『세이버에 맞선 미그기: 6·25참전 소련공군조종사 회고록』 (서울: 공군대학, 2011)

Chesneau, Robert&Gardiner, Robert,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USGPO, 1983, Third Printing)
 Hallion, Richard., *The Naval Air War in Korea*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11)
 Harriman, Bill., *The Mosin-Nagant Rifle* (Oxford: Ospery, 2016)
 Higgins, David R., *King Tiger vs IS-2: Operation Solstice 1945* (Oxford: Osprey, 2011)
 Hogg, Ian V., *German Artillery of World War Two* (London: Grennhill Books, 1997)
 Hogg, Ian V., *Allied Artillery of World War Two*. (Ramsbury: Crowood Press, 1998)
 Ivanov, A., *Artilleriia SSSR: v period vtoroy mirovoy voyniy* (Sankt-peterburg: Izdatel'skiy Dom Neva, 2003)
 Jordan, John., *Conway Warship 2016* (London: Bloomsbury, 2016)
 Kinnear, James., *Russian Armored Cars 1930-2000* (Darlington: Darlington Productions, 2000)
 Lambert, John.,&Ross, Al., *Allied Coastal Forces of World War II volume I: Fairmile Designs & US Submarine Chasers* (Barnsley: Seaforth Publishing, 2018)
 Less, Leland, *Rikugun: Guide to Japanese Ground Forces 1937-1945 Vol.2*, (Solihull: Helion, 2015)
 Less, Leland, *Kangzhan: Guide to Chinese Ground Forces 1937-45* (Solihull: Helion, 2016)

- Matray, James I.,(ed.),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
- Michulec, Robert. *T-34 Mythical Weapon* (Mississauga: Air Connection, 2007)
- Moore, Jason Nicholas, *Lavochkin Fighters of the Second World War* (Fonthill Media, 2016)
- Moore, Jason Nicholas, *Tupolev TU-2: The Forgotten Medium Bomber* (Fonthill Media, 2016)
- Norris, John., *Artillery: A History*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2000)
- Pliatonov, A. V., *Entsiklopeiia sovetskikh nadvodnykh koriabl'tii* (Sankt-Peterburg: Poligon, 2002)
- Prenatt, Jamie., *Katyusha: Russian Multiple Rocket Launchers 1941-Present* (Oxford: Osprey,2016)
- Rohwer, Juergen and Monakov, Mikhail S., *Stalin's Ocean-going Fleet: Soviet Naval Strategy and Shipbuilding Programmes 1935-1953* (London: Routledge, 2001)
- Siegelbaum, Lewis H., *Cars for Comrades: The Life of the Soviet Automobil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 Volkert, Jochen., *Tyagatshi: Soviet Full-Trackd Artillery Tractors of World War 2 in Red Army and Wehrmacht Service* (Erlangen: Tankograd Publishing, 2006)
- Walter, John., *Hotchkiss Machine Guns: From Verdun to Iwo Jima* (Osprey, 2019)
- War Department, *Technical Manual 30-480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1944. 9. 15)
- War Department, *Handbook on USSR Military Forces*(1946. 3)
-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 Zaloga, Steven J. and Ness, Leland S., *Red Army Handbook 1939-1945*, (Glouchestershire: Sutton Publishing, 1998)
- Zaloga, Steven J., *IS-2 Heavy Tank 1944-73* (Oxford: Osprey, 2011)
- Zaloga, Steven J., *T-34-85 vs M26 Pershing: Korea 1950* (Oxford: Osprey, 2011)
- Zaloga, Steven., *Anti Tank Rifles* (Oxford: Ospery, 2018)
- Zaloga, Steven J., *SU-76 Assault Gun*, (Oxford: Ospery, 2019)
- 佐山二郎, 『小銃・拳銃・機関銃入門—日本の小火器徹底研究』, (東京: 光人社, 2008)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高射砲—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0)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歩兵砲 対戦車砲 他,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1)
- 佐山二郎, 『日本陸軍の火砲 野戦重砲・騎砲 他, 日本の陸戦兵器徹底研究』(東京: 光人社, 2012)

陈辉亭·陈雷, 『抗美援朝防空作战实录』, (北京: 解放军文艺出版社, 2010)

黄毅, 『中国人民志愿军后勤史』, (北京: 金盾出版社, 1991)

《抗美援朝战争后勤经验总结》编委会, 『抗美援朝战争后勤经验总结 图片选集』, (北京: 长城出版社, 1989)

聂济峰·聂昭华·李韧, 『上甘岭: 攻不破的东方壁垒』,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18)

台运真, 『万箭齐发: 志愿军发起全线战术反击作战』, (吉林: 吉林出版集团有限公司, 2014)

田越英, 『中国军兵种』(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13)

王本昌·侯永吉, 『威震敌胆: 炮兵第九团团史』(中国人民解放军炮兵第九团, 1993)

王亚志, 『彭德怀军事参谋的回忆: 1950年代中苏军事关系见证』(复旦大学出版社, 2009)

吴清丽·王计昌 主编, 『出奇制胜: 军事院校详解人民军队实战案例 抗美援朝卷』(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7)

张明金·刘立勤, 『中国人民志愿军 历史上的27个军』(北京: 解放军出版社, 2014)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军事历史研究所, 『中国人民志愿军炮兵部队抗美援朝战争战史 下(初稿)』(연도미상)

학술논문 및 기사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 과정을 통해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현대북한연구』 15-2(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김선호, 「6·25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중심으로」, 『군사』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김재복, 「선두척후로서의 독립적 땅크 중대에 대하여」 『군사지식』8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

노양규, 「6·25전쟁시 전차운용의 특징과 영향」, 『군사』 80 (2011. 9)

박희성, 「6·26전쟁 초기 북한 해군의 해안방어 작전: 원산 제588군부대 작전을 중심으로」, 『史叢』 98(2019. 9)

심헌용,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 연구」, 『동북아연구』 29-2(2014)

이신재, 「625전쟁기 북한공군의 성장과정 고찰」, 『군사』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이신재, 「6·25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지원 고찰 1945~1950」, 『현대북한연구』 19-1(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Li Chen, 'From Civil War Victor to Cold War Guard: Positional Warfare in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1951-1953'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8-1&2, 2015

郭兆东·王跃波, 「战争年代我军组建的汽车部队(四)」, 『汽车运用』 2004年 7期

郭兆东·王跃波, 「战争年代我军组建的汽车部队(五)」, 『汽车运用』 2004年 8期

李鹏, 「上甘岭战役志愿军炮兵作战纪实」 『世界航空航天博览』 2004年第12期

章慕荣,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陸軍武器裝備建設之考察」 『二十一世紀』 2005年 8月號

저 자 : 윤 시 원(尹時源)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문학박사)
- 주요 저서 및 논문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읽기』(2016, 역서)
 - 『흔들리는 동맹』(2011, 역서)
 - 『독소전쟁사』(2007, 역서)
 - 『한국 징병제의 제도화와 국민개병주의의 형해화』(2019, 박사학위 논문) 등 다수

감 수

고 한 빈(전쟁기념사업회 학예연구사)
양 영 조(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김 선 호(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6·25전쟁 주요 무기 II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 국군인쇄창 편집디자인과
인 쇄 국군인쇄창(M21030149)

The Korean Wa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